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TWO CHAÏRS

NOVEMBER+DECEMBER



2025 vol.75

SPECIAL THEME Upgrade! AI User's Guide **LIFE & '북방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운하 도시, 벨기에 브뤼허
SENIOR &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경주 **WEALTH &** 금 가격의 장기 상승 추세를 이끌 구조적 변화

아시안뱅커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WEALTH & SOCIETY 2024

BEST PRIVATE BANK IN SOUTH KOREA



November and December

Twilight of the Year

〈TWO CHAIRS〉 11+12월호에서는 현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AI 기반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 사용 실태와 트렌드부터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 사용법과 유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에 방문하면 좋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브뤼허와 가을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해외 리조트,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경주에 대한 여행 기사도 담았습니다. 연말, 지인들과 만남을 가지면 좋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집에서 근사한 한 끼를 즐길 수 있는 레시피, 엄선한 재료로 만들어 믿고 사먹을 수 있는 호텔에서 판매하는 김치도 소개합니다.

추위가 깊어지는 이 계절,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

NOVEMBER+DECEMBER
2025 vol.75



05 Special Theme

06 INTRO

We are the Future

08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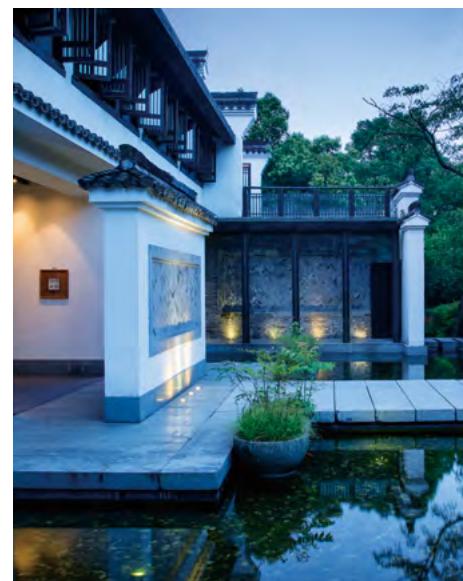
AI 시대를 제대로 헤쳐나가는 법

12 REPORT

친절한 AI 씨, 상황별 사용법

18 TIPS

Analog-AI Study



21 Life &

22 TRAVEL ▶

‘북방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운하 도시
벨기에 브뤼허

30 EXHIBITION

300년 전 명작부터 디지털 설치 작품까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34 ARCHITECT

빛과 그림자의 언어로 공간을 설계하는
스튜디오, 아틀리에 장 누벨

40 STAY

Where the World Turns Autumn

46 WHAT'S HOT

종교와 라이프스타일 그 사이, 불교

50 CURATION

삶을 읽어내는 힘, 문해력

54 CLASSIC STORY

4개의 전설, 하나의 계절



61 Senior &

62 LOCAL TOUR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경주

68 SIGNATURE HOLE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코스

74 GOLF LESSON

작은 실수가 스코어를 좌우한다.
롱 게임, 실수 줄이는 두 가지 포인트

78 READING

알고 보면 더 재밌는
2025 노벨 문학상 뒷이야기

82 GOURMET

가까워진 파인다이닝 세계

86 FOOD

집에서 맛보는 호텔 김치

88 RECIPE ▶

집에서도 근사하게 즐기는
Home-made Seafood Dining

92 HEALTH

당연해서 놓친 비타민 C 이야기



97 Wealth &

98 INVESTMENT

금 가격의 장기 상승 추세를 이끌
구조적 변화

102 REAL ESTATE

노후 대비를 위한 효율적 투자자산,
농지

108 TAX STORY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법

112 READERS LETTER

QR코드 아이콘 가이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행 및 편집인 하영춘
발행처 (주)한경매거진앤북
발행일 2025년 11월 1일
2025년 11-12월호 제10권 제6호(통권 제75호)
디자인·인쇄 (주)한경매거진앤북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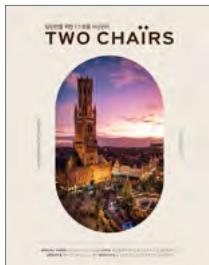
격월간 *TWO CHAIRS*는
(주)한경매거진앤북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집지윤리강령·집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772672 066004

ISSN 2672-0663



COVER STORY

북방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벨기에 브뤼허는
연말에 방문하기 좋은 도시다. 11월 말부터 열리는
원터 글로 죽제와 크리스마스 마켓은 도시 전체를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들인다.



* 우리WON뱅킹 앱은 사용자의 AOS/iOS 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리WON뱅킹 앱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588-5000, 평일 09~18시, 주말/공휴일 제외)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1074(2025.02.07-2026.02.13)



S P E C I A L



Upgrade! AI User's Guide

인공지능^{AI}은 이제 더 이상 소수 전문가나 특정 산업 내에서만 논의되는 중요한 기술이 아닙니다. 2025년 AI 트렌드와 함께 챗GPT 등 간단한 AI 서비스 사용법, 활용 시 주의할 점 등을 알아봅니다.



We are the Future

미래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요즘 인공지능^{AI} 트렌드.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Reference. 마이크로소프트 '2025년 AI 트렌드', 삼성SDS, 오픈AI

75%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콘퍼레이션^{IDC}의 '2024 A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의 AI 도입률은 2023년 55%에서 2024년 75%까지 급증했다. 이제 AI가 실험 사용 단계를 넘어 사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6억 건

사람들은 챗GPT를 얼마나 이용할까? 오픈AI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 챗GPT가 요청받은 하루 평균 메시지는 4억 5,000만 건가량이었는데, 올해 6월에는 26억 2,000만 건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형 AI

이전까지는 방대한 문장 등의 텍스트를 AI가 학습해 도출한 패턴을 바탕으로 답을 내놓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기반한 AI였다. 하지만 이는 학습한 데이터가 옳지 못하면 그 결값값 또한 옳을 수 없다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다. 이런 이유로 생겨난 유형이 바로 추론형 AI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중간 결과를 점검하며 논리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인간의 사고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 '추론형 AI'라 부른다. 처리 속도는 기존보다 늦지만 복잡한 문제 해결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며 신뢰도를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



AI AGENT

젠크 향 엔비디아 CEO의 표현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사람 대신 일을 해주는 디지털 노동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기업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며 성장한 AI 에이전트는 현재 각종 AI 기업이 가장 눈독 들이는 부분이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은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이 2024년 128억 6,000만 달러(약 18조 4,000억 원)에서 2030년 332억 1,000만 달러(약 47조 5,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그만큼 AI의 인간 노동력 대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이익만 늘어날 것이고, 실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AI 집사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AI '서비스'를 떠올려보자. 말만 꺼내면 뭐든 답을 알려주고 일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포브스>는 2026년 AI 에이전트가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보기 AI 에이전트에게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하기만 하면 필요한 재료 목록을 알아서 작성하고 주문, 배달까지 해준다. 집안일은 스마트 가전, 로봇 청소기 관리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준다. 이런 식으로 AI 에이전트가 개인화·일상화된 매일의 자질한 집안일을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가 운동이나 업무 등 조금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해준다고. 일단 AI가 검색하고 쇼핑까지 하는 일은 가능해졌다. 이제까지는 검색과 구매는 다른 플랫폼으로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 둘이 합쳐진다. 지난 9월 오픈AI가 챗GPT에서 바로 제품을 구매하는 인스턴트 체크아웃^{Instant Checkout}과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Agentic Commerce Protocol}을 발표한 것. 그 결과 AI가 검색을 넘어 결제까지 대행해주는 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AI 슬롭

'짐승에게 먹이로 주는 음식물 찌꺼기', '오물통'이라는 슬롭^{Slop}의 뜻처럼 AI가 생산한 질 낮은 콘텐츠를 일컫는 신조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걸어 다니는 상어 등 기괴한 동물 영상인 '이탈리언 브레인롯 Italian Brainrot'을 떠올려보자. 이런 AI 슬롭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펍터 레스트, 네이버 등 플랫폼에 경쟁적으로 반복 게시되면서 원치 않아도 쓰레기를 봐야 한다는 피로감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같은 맥락에서 '워크 슬롭 Work Slop'이란 신조어도 있다. AI를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빠르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결과물은 핵심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이거나 오류투성이로 추가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말이다.

UBI?

AI가 모든 물건을 알아서 만들어준다고 상상해보자. 그 물건은 누가 살 수 있을까? AI가 다 대신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당연하게도 AI가 득세하는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맥킨지 보고서는 2030년까지 미국 일자리의 30%가 자동화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체 노동력의 6~7%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렇게 AI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UBI는 심사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경제적 불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액수의 현금을 말한다. 자동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과거 1790년대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기본 소득 개념이 200년이 한참 지나 부활했다. 물론 이 개념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UBI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오간다. "대중을 위한 구호품에 불과하다"라는 부정적 의견부터 "빅테크 기업이 UBI 자금을 현실화하는 것에 찬성할 리 없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러나 "당장 중요한 것은 불균형한 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설왕설래에도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는 것은 결국 AI 경제가 성공하려면 '소비자에게 구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앞으로 이 구매력 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도가 있을 것이고, 미래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사회일지도 모른다. UBI에 대한 논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실마리일 것이다. ●





AI 시대를 제대로 헤쳐나가는 법

AI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제대로 살기 위해 지금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레플리카, 한경DB

AI가 인류의 구세주인 양 추앙받고 있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동등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모두에게 같은 필요성을 갖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마주해야 한다.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AI가 저지르는 폭력-차별과 배제의 언어

지난해 10월, 미국의 14세 소년이 챗GPT와 장기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캐릭터닷AI Character AI의 챗봇을 사용한 13세 소녀가 사망해 유족이 소송을 제

기한 사건도 있다. 메타Meta의 챗봇이 아동과 선정적 대화를 나누도록 방치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다. AI는 가상이지만, 피해는 실제다. 이후 전 세계는 AI의 위험성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와 네바다주, 유타주 등은 AI 챗봇을 정신 건강 상담이나 치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캘리포니아주는 온라인상에서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이 법안은 AI 챗봇 운영 기업에 플랫폼 이용자의 나이 확인 기능과 AI 챗봇의 모든 답변이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

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동반자 챗봇'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챗봇 플랫폼이 이용자의 자살 충동이나 자해 표현 등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프로토콜을 갖출 것을 강제한다. 불법 딥페이크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 규제도 포함됐다. 오픈AI, 메타 등 빅테크는 물론 캐릭터닷AI, 레플리카Replika 같은 스타트업까지 AI 기업이라면 모두 규제 대상이다.

인간을 위해 발명한 AI가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는 결과는 종종 있다. IT 전문 글로벌 미디어 'IT WORLD'는 AI가 사람을 차별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주택조합은 공실 부동산 신청서를 평가할 때 AI를 사용한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경비원은 AI에게 '거부'당했다. AI가 그의 입주 신청서를 점수가 너무 낮다고 분류해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에서만 400명이 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세입자가 AI로 도출한 낮은 점수 때문에 임대계약을 거절당했다.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들의 신청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 모두는 '주택 바우처'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기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사람은 차별한다. 그리고 그 차별은 고스란히 AI에게 학습

된다. 우리의 특정 조건이 AI에게 어떤 차별 기재로 입력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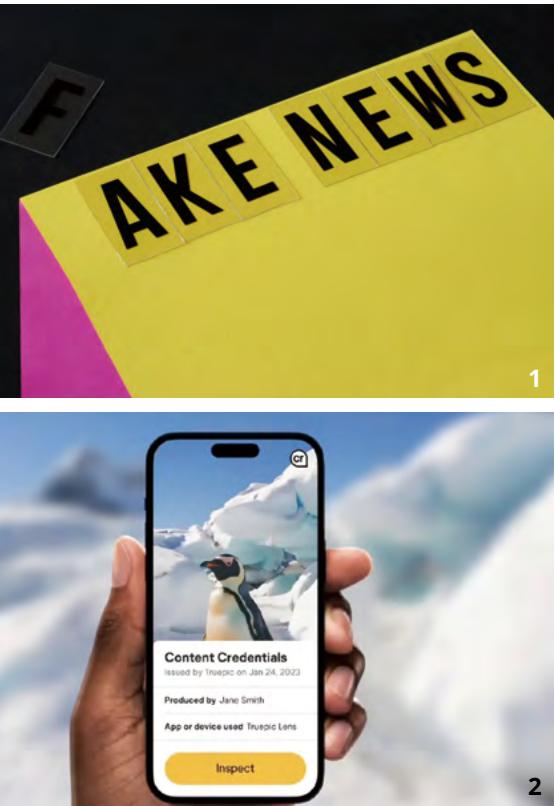
거짓을 판별할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AI에게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대신 작성하게 시켰다가 오류로 망신당하는 사례는 이제 꽤 흔하다. 망신만 당하면 다행이다.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고 보상해야 할 때도 많다. 호주 고용노동부는 세계적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 Deloitte에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주했다. 보고서엔 오픈AI의 AI가 지어낸 가짜 판결문 등의 오류가 포함돼 있었다.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보고서를 실재하는 것처럼 각주나 참고 문헌으로 제시했고, 심지어 호주 법원 판결문까지 조작해 인용한 것. 결국 딜로이트는 해당 오류를 삭제한 수정본을 재제출했고, 용역비 일부를 환불 조치했다. 정확함이 생명인 리서치·컨설팅 기업으로선 상당히 체면을 구긴 셈이다.

AI가 만들어낸 쓰레기 콘텐츠를 부르는 'AI 슬롭Slop'이란 단어는 기업에서도 쓰인다. 이를 '워크 슬롭Work Slop'이라 부르는데, 핵심 내용이 빠지고 부정확한 내용이 가득한 AI

AI로 인한 워크 슬롭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AI가 저지른 실수를 뒷수습하느라 오히려 업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의미다. 노동자는 이제 기존에 자신이 하던 일 외에 AI 사용으로 발생하는 워크 슬롭까지 떠안아 결국 이중으로 일하게 됐다.





1 AI는 가짜뉴스의 위협을 가속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 2000년대 중반 정치 패러디로 시작한 가짜 뉴스는 이제 AI 기술력에 힘입어 진위를 구분하기 더 힘들어졌다.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가 사회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2 진짜처럼 보이는 정교한 AI 이미지나 영상 등 콘텐츠가 문제로 떠오르자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출처와 경로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콘텐츠 자작 증명' 기술을 도입하는 빅테크도 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에 이어 삼성전자도 해당 기술을 도입했다.

3 오픈AI의 AI 기반 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 소라2로 제작한 영상의 한 장면.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아인슈타인과 WWE 레슬링 경기장을 벌이는 이 영상은 사후 초상권 논란을 일으켰다.

결과물을 검증해 재수정하거나 아예 새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스탠퍼드대 소셜 미디어 연구소 등이 공동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 건의 워크 슬롭을 처리하는 데 평균 2시간이 소요됐다. 급여로 환산하면 미국 기준으로 직원 1인당 월 186달러의 손실이다. 직원 1만 명의 기업이라면 연간 9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AI 활용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효율성과 비용 절감 아니었나. 결국 AI는 둘 중 어떤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그러나 중요한 악영향도 있다. 같은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워크 슬롭을 만든 동료를 '될 유능하다'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AI를 고민 없이 활용해 결과를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동료에게 워크 슬롭을 전가하는 셈이니 조직 내 불신이 커지게 된다는 것. 동료 간 신뢰와 협력을 약화시킨다는 치명적 단점을 AI가 상쇄할 수 있을까? 아마도 워크 슬롭을 유발하면서까지 왜 AI를 활용하는지 파악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포천>은 직장인이 업무에 AI를 활용하면서도 이를 숨기는 이유를 '비밀 경쟁력'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남몰래 동료보다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경쟁 논리와 불신에 기반한 노동환경 안에서 워크 슬롭은 계속 될 것이고 심화될 것이다. 최신 기술은 무엇이건 두 팔 벌려 수용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곳에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포와 찬사가 부정적으로 얹혀 돌아간다. 그 안에서 기회를 잡고 성장하는 것은 AI 기업이지 우리가 결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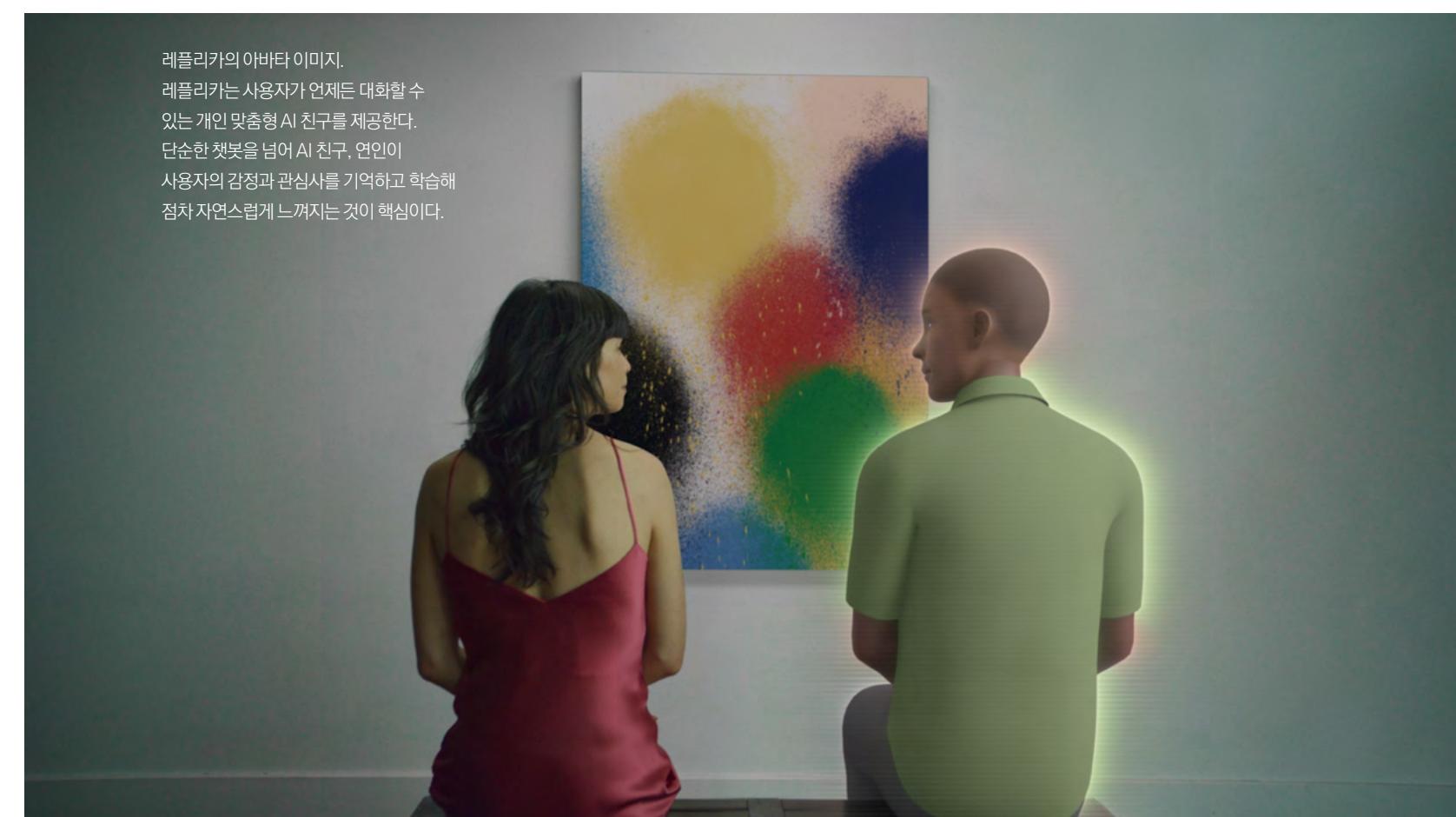
'안전한 AI'가 되려면

살펴본 바에 따르면 AI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있다. 뒤쳐질까, 손해 볼까 불안한 경쟁 시대에 편하게 쉬운 사소하지만 중요한 가치들 안에 말이다. 사람과 사람을 믿고 추진할 때 나오

는 힘, 긍정의 경험, 온라인 바깥의 실제 사람을 마주하며 쌓이는 경험과 감정 같은 것들. 그 다양한 감정과 무형의 에너지가 섞여 AI에 입력될 올바른 메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AI는 지름길이 아닌 우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AI 업계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오픈AI는 자녀 보호 기능과 유해 콘텐츠 차단 시스템을 내놨고, 레플리카는 콘텐츠 필터링, 위기 지원 안내 시스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앞으로의 AI 기술 개발 트렌드는 'AI의 필수성과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국제 인공지능윤리협회 IAAE가 지난 5월 주최한 '2025 ASC 콘퍼런스'에서 "안전한 AI가 곧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통상 혁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규제, 안전망 등으로 본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건 안전하지 않다면 지속할 수 없다. 다행히 AI 안전성이 혁신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통과 당시 스티브 파디야 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기회의 창이 사라지

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때 바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강화해야 할 것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의 영역이다. 공감, 설득력, 인간적 감정 같은 것을 AI는 느낄 수 없다. 제리 캐플런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한 'AI 월드 2025'에서 "지금처럼 AI가 더 많이 쓰일수록 '인간성'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언급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우리가 AI의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속도나 물량이 아닌, 감정과 깊이를 갖추는데에서 비롯된다는 것. AI가 보편화되면서 진짜 인간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것이 희귀해지고, 더 귀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결국 우리는 그냥 우리로 잘 존재해야 한다.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쉬운 길도 돌아가야 하고, 스스로 경험해 느끼는 즐거움과 가치를 낱낱이 흡수해야 한다. 알파고와 대국한 후 은퇴한 이세돌도 이제 "AI와 인간이 대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AI 시대에도 인간다움을 놓치지 않고 개성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간단한 명제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무더히 노력해야 하고, 더 날카로운 눈으로 AI 기업을 지켜봐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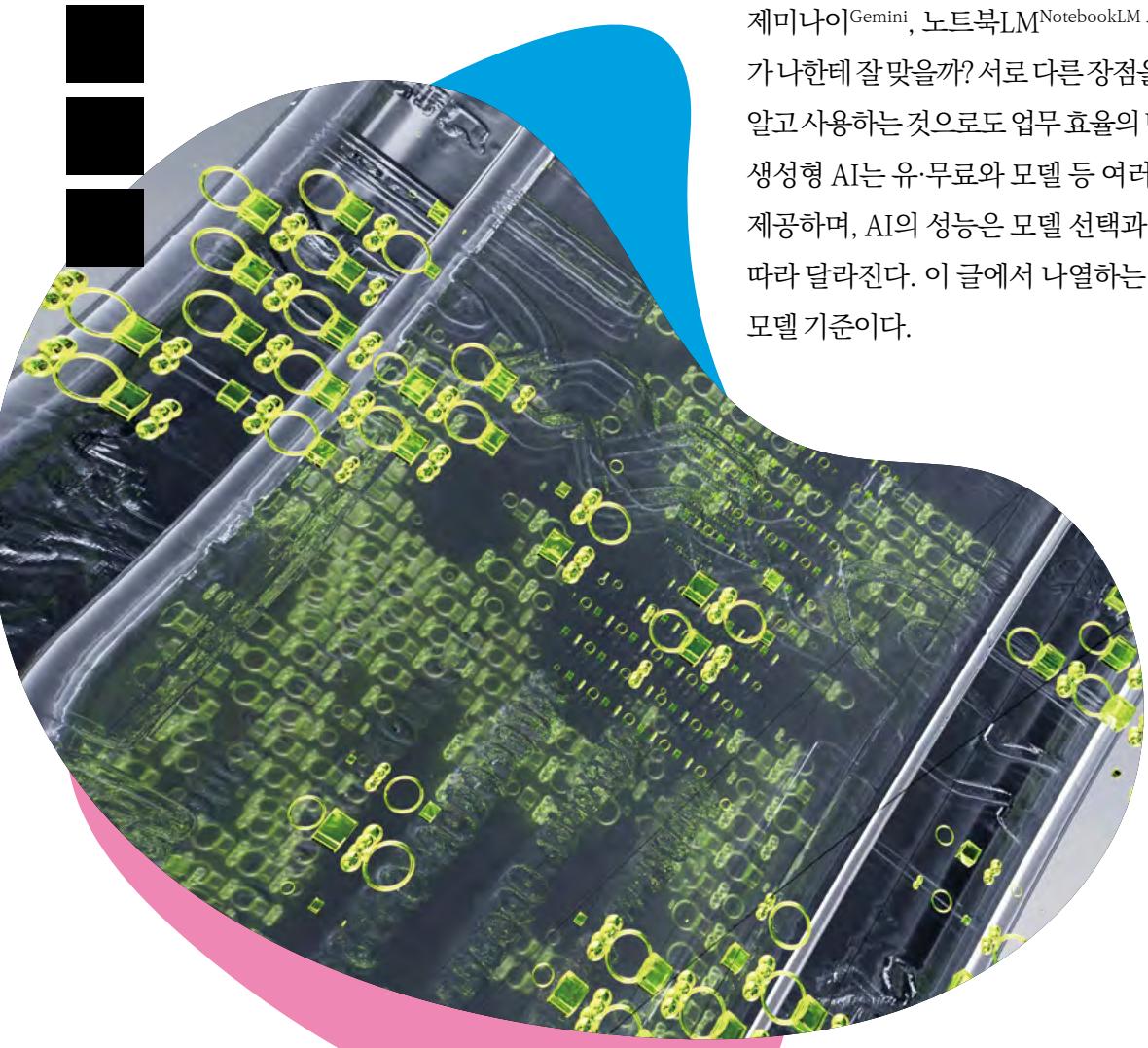
레플리카의 아바타 이미지.
레플리카는 사용자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AI 친구를 제공한다.
단순한 챗봇을 넘어 AI 친구, 연인이 사용자의 감정과 관심사를 기억하고 학습해 점차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핵심이다.



친절한 AI 씨, 상황별 사용법

일상에 훌쩍 스며든 AI 서비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자신에게 맞는, 혹은 상황에 맞는 AI를 찾아 쓰는 것 역시 능력이 되는 시대다. 문서 작성, 검색, 운전, 외국어 공부 등 일상의 테마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AI 사용 방법을 소개한다.

Writer: 한소영 Photo: 한경DB, SK텔레콤, 언스플래시



“AI, 뭐 쓰세요?”

시간을 쪼개 쓰는 바쁜 현대인이라면 아마도 서로의 안부를 묻듯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지 않을까? 이때 가리키는 AI는 사용자가 말을 걸면서 명령하면 나 대신 정보를 찾거나, 자료를 문서화하거나, 글을 창작하기도 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일컫는다. 플랫폼 내 추천 알고리즘 등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접하게 되는 AI 기술이 아니다. 이러한 AI 기술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가 기술을 당하고(?) 있는지도 구분해내기조차 어렵다. 대신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켜서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잘 알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의 대명사가 된 것이 바로 ‘챗GPTChatGPT’다.

세상에 챗GPT 딱 하나만 있다면 어떤 AI를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AI 기술이 있다. 대표적으로 퍼플렉시티Perplexity,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노트북LMNotebookLM 등이 꼽힌다. 어떤 AI 가나한테 잘 맞을까? 서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어 이 차이를 알고 사용하는 것으로도 업무 효율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유·무료와 모델 등 여러 AI를 활용해 답변을 제공하며, AI의 성능은 모델 선택과 부가 기능, 사용법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에서 나열하는 각 AI의 특징은 무료 모델 기준이다.

챗GPT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챗GPT’다. 챗GPT는 어떤 주제든 답해줄 AI 서비스를 찾는 이에게 적합하다. 자연스러운 자연어 기반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사용자는 대화를 통해 텍스트 생성이나 번역, 코드 작성 등 다양한 목적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화형 AI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최신 트렌드가 답변에 반영된다. 즉, 쓸수록 그 성능이 점점 강화된다.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이 AI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이용자들 간의 편의성을 위해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하도록 인터페이스도 쉽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주의할 점은 많은 이가 사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만큼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AI 환각 현상이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챗GPT를 정말로 대화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것처럼 챗GPT에 묻고 조언을 듣는 식이다. 쇼핑을 함께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친구한테 어떤 물건을 사줘야 할지를 추천받는 것처럼 챗GPT에 원하는 품목과 기준을 말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흔하다.

퍼플렉시티

연구자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AI는 ‘퍼플렉시티’다. 답변에 일일이 출처를 달아주는 특징 때문이다.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이 강화된 퍼플렉시티는 다른 AI에 비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출처를 인용해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연구자에게 통한듯 보인다. 요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탁월한 전략이다. 이처럼 어떤 논리나 과정으로 답변을 제공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얼굴 없는 조교인 AI를 신뢰하지 않던 연구자조차도 거부하기 어려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셈이다. 대신 창의적 답변을 요구하는 작업엔 맞지 않을 수 있다. 검색과 요약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와의 연속적 대화나 맥락 유지 기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를 개인화 않아도 되는 창의적 연구자라면 사용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클로드

문서 분석과 코딩에 특화된 AI는 ‘클로드’다. 수십만 단어에 달하는 긴 문서를 한 번에 요약·분석 가능하다. 기존 데이터의 요약 분석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AI와 비교하면 환각 현상이 적다는 평가다. 또한 개발사가 AI의 윤리적 사용에 역점을 두고 ‘AI 윤리 원칙’을 기



반으로 클로드를 개발했다고 한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코딩할 때 쓰는 AI로 각광받는다. 한편 창의적 답변 기능은 약하다.

제미나이

구글 생태계와 연동되는 AI를 찾는다면 ‘제미나이’다.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독스, 구글시트 등 다양한 구글 생태계 내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협업하고 있어 갤럭시 유저라면 접근성이 좋다. 갤럭시 유저가 많은 한국에서는 이미 제미나이가 챗GPT만큼이나 친근한 생성형 AI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많은 이가 사용하는 만큼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빈도도 높은 편이다.

노트북LM

학습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입소문 난 AI는 ‘노트북LM’이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기반으로 질의응답하므로 사용자의 답변 신뢰도가 높다. 자신이 올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니 환각 현상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셈이다. 어려운 외국어 논문을 한국어 팟캐스트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것도 소문난 특장점이다. 영상을 분석해 요약 정리해주거나 개요나 주제를 정리해주고, 팟캐스트 음성으로 변환해주기도 한다. 문서로 읽기보다 귀로 듣는 요약을 선호하는 이에게 유용하다.

커리어를 부탁해!

아마도 AI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자라면 하나의 AI만 사용하는 것보다 각 서비스의 장점을 터득해 여러 개의 AI를 상황별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문서 작성부터 회의 기록 등 시간이 걸리면서 번거로운 일을 AI가 처리해주면서부터 분야를 막론하고 각종 업무에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추세다. 상황별로 어떤 AI가 유용할까?

회의·강연 내용을 정리할 때

네이버 '클로바노트 ClovaNote'는 회의나 강연, 인터뷰 음성 등을 텍스트로 빠르게 변환해준다. 발화자 수나 대화 유형을 미리 설정하면 인식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 물론 변환된 텍스트가 음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력된 내용을 검수하는 과정은 필수다. 많은 양의 대화 정보를 일일이 타이핑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내용을 요약·정리해주기도 하는데, 이 역시 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클로바노트에서 변환된 텍스트를 챗GPT 등 다른 AI로 요약·재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획안을 구상할 때

'윔지컬 Whimsical'은 '엉뚱한' 또는 '기발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이름처럼 사용자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로, 사업 기획이나 개발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일을 진행하는데 활용하기 좋은 AI다. 직접 아이디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마인드맵 기능을 활용해 내가 가진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고, 순서도를 그리는 플로차트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기획하는 서비스 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스토리텔 Storytell AI'는 엑셀 자료를 보고서로 만들 때 유용하다. 엑셀 데이터에 관한 수치 분석, 시각화, 요약 정리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한 번에 이뤄지므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름이 'Storytell'인 이유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해 스토리를 구성해주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확장시키기도 한다. 비슷한 특징이 있는 '줄리어스 Julius AI'도 있다. 줄리어스 AI는 데이터를 분석



해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데 능숙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 많이 이용된다.

텍스트·이미지·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때

챗GPT 등 대부분의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다. 마케팅 문구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는 업무에 활용되는 AI로는 '카피 Copy AI'가 있다. 이미지 작업엔 '미드저니 Midjourney'나 '달리3 DALL-E 3'가 유명하고, 포토샵 사용자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Adobe Firefly'도 많이 사용한다. 영상 생성에는 '비오2 Veo2'와 '소라 Sora'가 자주 쓰이고, '비오3 Veo3'도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헤일루오 Hailuo AI'는 무료라서 접근성이 높다. '브루 Vrew'는 자막, 컷 편집, 내레이션까지 AI로 처리해준다.



운전하면서 AI

운전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꾼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AI 기술을 도입해 더욱 똑똑해졌다. 위치 기반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은 이제 길만 찾아주는 내비게이터가 아니다. '대화형 모빌리티 AI 에이전트'를 표방하면서 말 한마디면 연락 문자도 보내고 적합한 장소도 검색해 알아서 찾아준다. 이제 내비게이터가 AI 에이전트로 훌바꿈한 것이다. 문자는 보낼 사람과 보낼 내용을 말로 하면 끝이다. 별도로 호출하지 않아도 "문자 보내줘"라고 말하면 반응한다. 경유지를 포함해 경로를 요청하거나 자주 찾는 장소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운전자가 근처 주유소에 들렀다 집에 가자고 말하면 최종 목적지인 집과 경유지인 근처 주유소를 함께 인식해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는 식이다. 또 테마별 장소 추천, 교통·생활 정보 안내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호작용 주행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모빌리티 AI 기술이 복잡해지는 도로 교통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교통 체증이 해소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변화하는 기술에 적절하고 현명하게 적응하는 운전자의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완벽한 개인 외국어 선생님 탄생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서 AI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 1위는 통번역가였다. AI 번역 기술이 통번역가를 대체한다거나, 이제 인간은 외국어를 배울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다소 건조한 미래상에 관한 이야기가 떠도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AI를 폭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외국어 학습이다. 특히 영어 학습 분야에서 약진이 두드러진다. 챗GPT, 제미나이 등은 영한·한영 전환을 자연스럽게 수행해 언어 장벽을 허물고 있다.

언어 학습에 AI를 도입한 이후 국내 주요 영어 학습 앱의 이용자 수는 크게 늘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영어 교육 상위 5개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5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90.2% 증가했다. AI 도입



이 이 같은 성장세를 이끈 셈이다. AI는 학습자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절한 학습량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반복 학습을 시켜주며, 언제든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언어 학습에 효과적이다.

듀오링고 Duoli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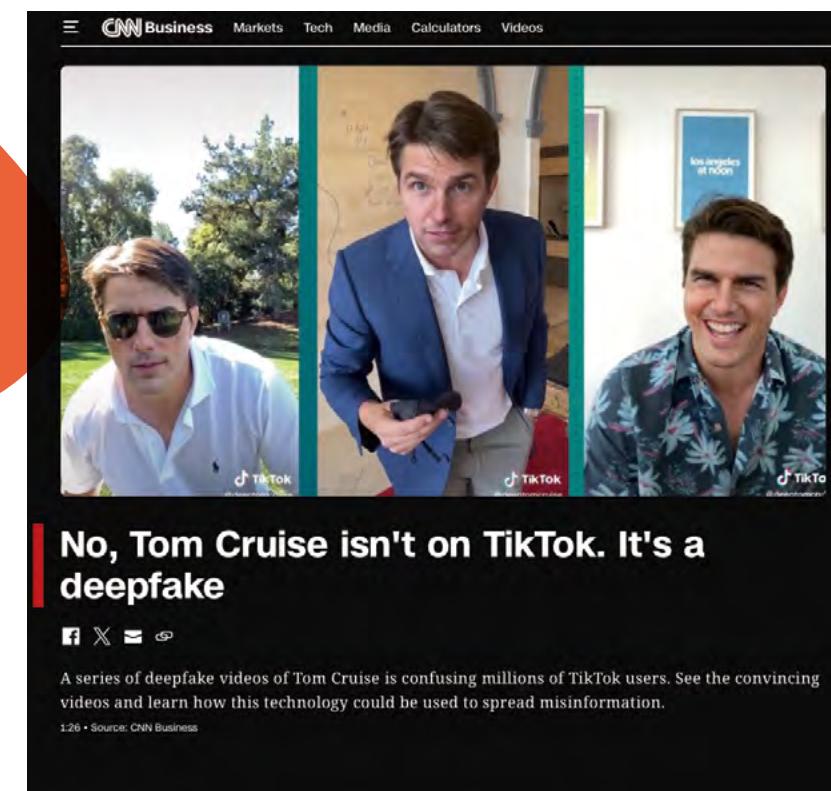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형식의 언어 학습 앱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준 이용자 수 62만 명으로, 이는 1년 새 344% 급증한 수치다. 앱에는 원어민 목소리로 학습자와 대화하는 다양한 캐릭터가 있으며, 보상이 있는 게임화된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동기부여한다. ‘듀오링고’는 GPT-4를 활용해 AI 회화와 오답 해설 기능을 제공한다.

스피크 SPEAK

‘스피크’는 오픈AI와 기술제휴를 맺고 생성형 AI를 언어 학습에 접목 한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실제 원어민과 대화하듯 AI 튜터와 자연스럽게 말하기 연습이 가능하며, AI 튜터가 사용자의 발음과 익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여행·쇼핑·비즈니스 등 다양한 상황별 회화 연습이 주요 특징이며, 사용자의 실력과 목표에 따라 맞춤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

말해보카

영단어부터 문법, 리스닝, 회화까지 공부하는 맞춤형 영어 학습 앱이다. 20문제를 풀면 ‘말해보카 AI’가 학습자의 레벨을 파악하고, 수준에 맞는 퀴즈들을 제공한다. 학습자가 모르는 것 위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마치 개인 교습처럼 상황별로 자세한 오답 노트를 제공하고, 복습 시스템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미국 배우 톰 크루즈로 보이는 기사 속 영상은 틱톡에서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했으나, 딥페이크가 생성한 가짜 영상이다.

챗GPT에 제대로 질문하기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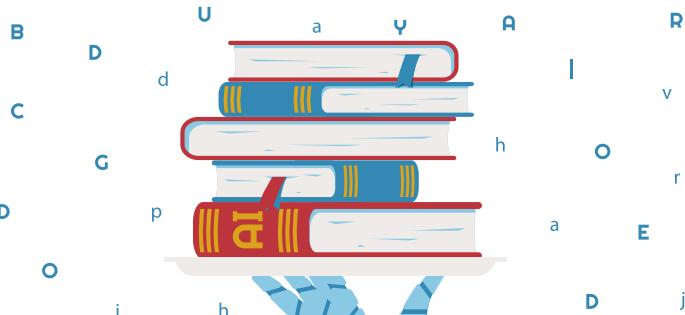
생성형 AI를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질문하는 것’이다. 우선, 명령은 한번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기보다 단계별로 요청하는 것이 정확성을 높인다. 뚱뚱그려 말하기보다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서에 AI를 활용할 경우, 회사 보고서 양식을 미리 AI에게 알려주면 더 정확한 초안이 나온다. 글 작성은 AI에게 요청할 땐 누가 읽을 건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좋다. 리서치할 때는 공식 보고서나 공공 데이터만 활용해달라고 지시하면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땐 구도, 색감,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퀄리티가 높아진다. ●

가짜 딥페이크 광고에 속지 않는 법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사람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해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이 기술이 허위 정보와 결합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짜 딥페이크 광고나 뉴스를 구별해내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확인 과정을 따라 주의하면 허위 정보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1 먼저 출처를 확인한다. 가장 기본 단계다. 콘텐츠의 제작자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제작자나 사이트의 신뢰도를 확인해본다.
- 2 비슷한 내용을 여러 매체에서 다시 알아본다. 한 곳에서만 나왔다면 그 정보는 의심해도 좋다.
- 3 영상은 멈춰서 관찰해본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상의 특정 부분이 짓이기거나 부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등 오류가 포착된다.
- 4 자극적 감정을 유도하는 콘텐츠는 일단 의심해본다. 심한 분노나 충격, 공포를 유발하는 콘텐츠일수록 가짜일 확률이 높다.





Analog-AI Study

말만 하면 AI가 다 찾아주는 세상이지만, 스스로 찾고 습득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의 힘을 잊어선 안 된다.

그것만이 AI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다.

AI 공부를 시작한다면 참고할 만한 다양한 정보 창구.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한경DB

1

미디어

최신 동향과 뉴스로 기본 상식 쌓기

AI타임스

2017년 창간한 AI 전문 미디어. 머신러닝, 딥러닝, IoT, 로봇, 빅데이터 등 AI를 비롯한 최신 기술 동향부터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닌 분석과 통찰을 담은 기사까지 고루 담고 있다.

www.aitimes.com

AI매터스

AI 관련 뉴스부터 국내외 보고서나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해둬 지식을 습득하기 좋은 AI 전문 미디어. 어렵고 복잡한 AI 툴 사용 정보나 활용 노하우 등 AI 입문을 위한 다양한 섹션도 있다.

aimatters.co.kr

더코어

'AI, 비즈니스, 미디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큐레이션한 뉴스를 올리는 구독 기반의 미디어. 해당 분야의 박사급 에디터들이 포진해 전문 의견과 연구 경험을 담은 깊이 있는 기사가 많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thecore.media

2

뉴스레터

꿀팁부터 심화 편까지 콜라 받기

모두레터

'모두를 위한 AI 뉴스레터'라는 타이틀에 맞게 AI 트렌드부터 세미나, 커뮤니티 소식 등 전반적 업계 동향을 쉽게 쓴 뉴스레터를 주 1회 보내준다. 'AI 에이전트의 진짜 실력자', 'AI가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 '구글의 비밀 병기 공개' 등 흥미를 유발하는 주제를 선별해 재미있게 쓴 것이 특징.

moduletter.stibee.com

테크잇슈

IT 칼럼니스트가 엄선한 테크 및 비즈 트렌드 뉴스를 주 2회 보내준다. AI를 비롯한 전반적인 IT 산업에 대한 지식을 쌓기 좋은 곳. 주변에 아는 척하기 좋은 기사를 모은 '아는 척 한 스푼!'부터 고민과 설명이 필요한 주제를 담은 '칼럼잇슈'를 통해 심도 있는 기사도 담는다.

techissue.stibee.com

셀렉트 디아제스트

AI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셀렉트스타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논문 리뷰+비즈니스 트렌드+기업 분석이 결합된 업계 관련 심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정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좋아 심화 정보를 찾는 사람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추천한다.

selectstar.stibee.com

3

커뮤니티·플랫폼

정보 찾고 나누기

오픈프롬프트

질문이 올바르면 답도 올바르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프롬프트 Prompt', 명령어를 제대로 입력해야 한다. 오픈프롬프트는 국내 최대의 AI 프롬프트 공유 플랫폼으로, 챗GPT, 미드저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위한 다양한 명령어 예시를 찾고 올릴 수 있다.

www.prpt.ai

지피터스

실제 사용 사례를 옮기는 커뮤니티로, 사용 할 수 있는 AI 활용 팁이 많다.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실제 AI 활용 사례를 프롬프트와 함께 주 3회 보내준다. 온·오프라인에서 만나 핵심 내용을 듣고 실습하는 스터디도 운영한다.

www.gpters.org



4

도서

천천히 깊게 이해하기

〈먼저 온 미래〉

장강명 지음, 동아시아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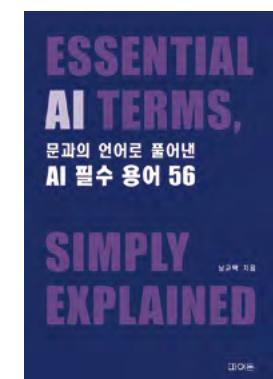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바둑계는 우리보다 먼저 AI라는 현상을 경험했다. AI는 우리의 일과 경험, 가치를 어떻게 위협할까? 과학기술이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는 저널리스트 장강명은 전현직 프로 기사 30명을 심층 인터뷰해 미래를 먼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작가는 우리의 미래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AI는 정말 한낱 도구일 뿐일까? 바둑계를 거울삼아 우리가 마주할 근미래의 풍경은 제법 서늘하다.

〈문과의 언어로 풀어낸 AI 필수 용어 56〉

남규택 지음, 파이돈 펴냄

'운영 체계'나 '서버', 'URL'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낯선 사람이라면 이 책을 펼쳐볼 것. AI 관련 용어를 일상 속 경험에 빗대 설명해 뱃속까지 '문과'인 사람을 위한 용어 해설집이다. 용어 해설을 넘어서 해당 용어가 왜 중요한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업무와 삶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철저히 문과적인 흐름으로 썼다.



〈헬로 AI 지금, 만나려 갑니다〉

임춘성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AI 시대가 초래할 지식의 격차는 자본주의가 만든 빈부 격차의 속도를 가뿐히 추월할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AI 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산업공학과 교수인 저자는 AI가 인간을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과 인간이 AI를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 등을 충분히 고찰해 AI 시대에 우리가 갖출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WOORI BANK GLOBAL NETWORK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BR, UK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FAX 971-4-325-8366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디카지점

TEL 971-4-325-8365

FAX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미얀마

TEL 95-01-643798

FAX 95(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미얀마

TEL 95-01-643798

FAX 95(0)69 299 254 0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홍콩지점

TEL 971-4-325-8365

FAX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LA지점

TEL 971-4-325-8365

FAX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FAX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캄보디아우리은행

TEL +855 23 963 333

FAX +855 23 963 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싱가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물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FAX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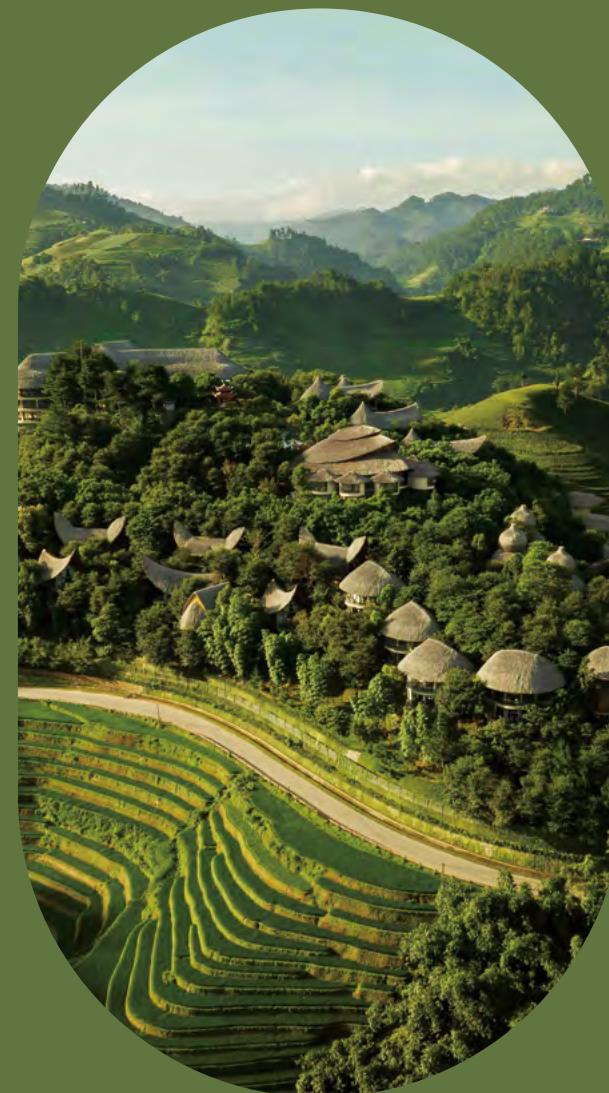
풀란드사무소

TEL 48-323-07-6417

FAX 48-323-07-6417

ADD Universitecka 13, 40-007, Katowice, Poland

LIFE &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방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운하 도시

벨기에 브뤼허 Bruges

중세 유럽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브뤼허. 운하와 광장, 그리고 중세의 거리를 따라 걸으면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특히 11월 말부터 이어지는 ‘윈터 글로’ 축제는 브뤼허의 겨울을 한층 낭만적으로 물들인다.

Writer: 두경아 Photo: 비지트 브뤼허



2



3

벨기에 서북부 베스트플란데런주의 주도 브뤼허는 브뤼셀에서 서북쪽으로 약 90km, 겐트에서 40km 떨어진 인기 관광도시다. 수 세기 동안 브뤼허의 운하는 바다와 도시를 잇는 통로이자,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다. 운하를 따라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브뤼허를 한자동 맹 Hanseatic League의 주요 거점이자 북유럽 최대의 무역도시로 발전시켰다. 15세기 브뤼허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황금 시대 Golden Century를 맞았다. 오늘날까지도 중세의 건축물과 거리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시간이 멈춘 듯 한 풍경 속에서 당시의 번영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로 인해 브뤼허의 구시가지 전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브뤼허는 특히 겨울에 여행하기 좋은 도시다. 매년 두 달여

동안 열리는 ‘윈터 글로 Winter Glow’ 기간에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아름답게 물든다. 빛의 트레일 Light Experience Trail을 따라서 도시 곳곳의 예술적 조명 설치물을 감상할 수 있고, 아이스링크장으로 변신한 알베르 1세 공원 Koning Albert I-Park에서 크리스마스 장식 아래 아이스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다. 따뜻한 음료와 음악이 흐르는 윈터 바 Winter Bar, 마르크트 광장과 시몬 스테빈 광장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 그리고 ‘홀리데이 쇼핑 데이 Holiday Shopping Days’ 등 다양한 이벤트가 겨울 브뤼허의 낭만을 완성한다. 특히 주말과 크리스마스 주간을 포함한 19일간의 쇼핑 데이에는 대중 교통이 무료이며, 노선에 따라 연장 운행돼 편리하게 관광 할 수 있다. 올해 윈터 글로는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4일 까지 이어진다.

1_ 중세 건축물과 거리 구조가 완벽히 보존된 벨기에 브뤼허

2_ 브뤼허 운하 위를 유유히 떠가는 관광 보트

3_ 윈터 글로 기간, 알베르 1세 공원은 화려한 아이스링크장으로 변신한다.

번영의 흔적이 남아 있는 브뤼허의 심장 두 개의 광장

브뤼허의 중심, 흐로터 마르크트 Grote Markt 광장에는 유서 깊은 도시 상징인 브뤼허 종탑 Belfort이 우뚝 서 있다. 높이 83m의 탑은 366개 계단을 따라 오르면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압도적 파노라마 풍경을 선사한다. 광장은 종탑과 함께 네오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주청사 Provinciaal Ho, 계단식 박공지붕이 인상적인 다채로운 전통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주청사 내부에는 스테인드글라스, 조각품,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광장에는 관광 마차가 대기하고 있어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광장에 있는 맥주 박물관은 맥주 원료부터 양조 과정, 음식 페어링, 브뤼허의 맥주 문화, 트라피스트 및 수도원 맥주 까지 맥주에 관한 모든 것을 인터랙티브한 전시로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은 ‘브뤼허의 곰 Bruges Bear’ 이야기를 따라가는 키즈 투어도 마련돼 있으며, 전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바 Bar에서 16종의 다양한 맥주를 시음할 수 있다.

흐로터 마르크트 광장이 브뤼허의 심장이라면, 브뤼흐 Burg 광장은 영혼이라 할 만하다. 수 세기 동안 브뤼허의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이던 이곳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14세기 고딕 양식의 시청사 Stadhuis Brugge가 자리하며 도시 행정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웅장하고 장엄한 광장은 기념비적인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각 건물은 건축된 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며, 한 공간 안에서 브뤼허 건축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유물이다. 성혈 대성당 Basiliek van het Heilig Bloed 부터 브뤼허 자유관 Brugse Vrije, 대주교관 Sint-Donaasproosdij 등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는 주요 건물들이 자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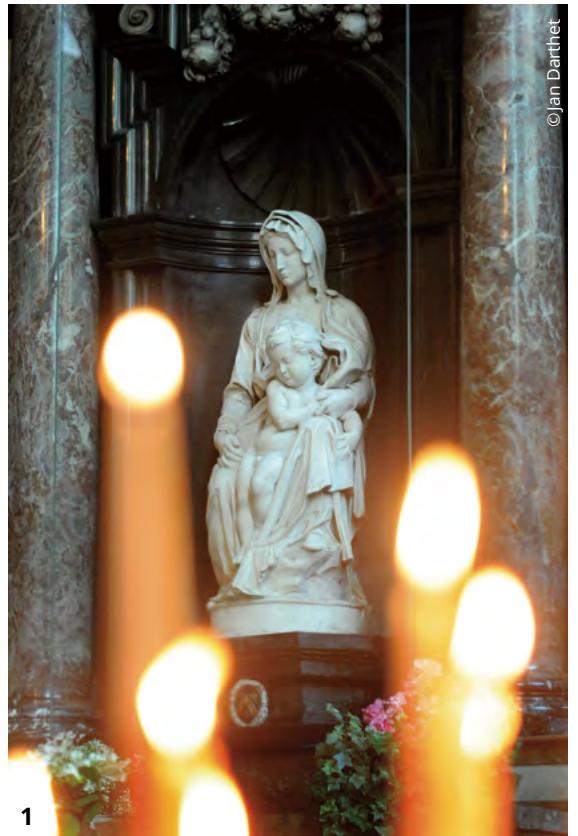
1_ 브뤼허의 맥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맥주 박물관

2_ 시청사 출입구에서 바라본 브뤼허 종탑

3_ 성모마리아 교회가 자리한 흐로터 퀸서 광장

4_ 관광 마차가 낭만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르크트 광장

5_ 14세기 고딕 양식으로 지은 시청사의 내부.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1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만나다 성모마리아 교회

황금시대이던 15세기, 브뤼허는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부르고뉴 왕가의 후원을 받으며, 이른바 플랑드르파 Flemish Primitive로 일컫는 화가들이 유럽 미술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작업했다. 거장들의 걸작은 브뤼허의 여러 미술관과 교회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브뤼허의 성모마리아 교회 Onze-Lieve-Vrouwekerk는 꼭 방문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총 높이 115m에 이르는 교회탑을 갖춘 이 성당은 13세기 설립된 고딕 양식 건물이다. 13~14세기 회화와 벽화, 스테인드글라스로 채워져 있어 관광 필수로 꼽힌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이다. 이탈리아 밖으로 반출된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작품으로, 1504년경에 제작됐다. 당시 부유한 브뤼허 상인 마우스크론 Mouscron 가문이 구입해 봉헌했다.

15~16세기 장례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용담공 勇膽公 샤를 Charles과 그의 딸 메리(부르고뉴 공작 부인)의 무덤도 자리하고 있다. 무덤 위에는 유리 덮개가 설치되어 아래 벽면의 프레스코화를 위쪽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 무덤은 얀 포르만의 작품이다. 베르나르트 판 오를레이와 마르퀴스 헤이라르츠의 ‘수난 3연작 The Passion Triptych’은 플랑드르 회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판 오를레이가 세상을 떠난 뒤, 헤이라르츠가 양 날개 부분을 완성했다.

1245년에 설립된 프린슬리 베긴회 수도원 Beguinage Ten Wijngaerde은 하얀 외벽과 고요한 수도원 정원이 인상적인 공간이다. 이곳은 한때 ‘베긴 Beguine’이라 부른 여성 공동체의 거주지였다. 그들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미혼이거나 혼자 된 여성으로,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추구했다. 베긴회 안에서의 일상은 가능한 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현재에도 침묵을 지키며 성 베네딕토회와 성 빙첸시오회의 수녀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3

1_ 이탈리아 밖으로 반출된 유일한 미켈란젤로의 작품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상

2_ 경건한 여성 공동체 주거지였던 베긴회. 베긴회로 들어가는 정문과 다리가 어우러진 풍경

3_ 13~14세기 회화와 벽화, 스테인드글라스로 꾸민 성모마리아 교회





1

2



© Jan Darthet

브뤼허 최고 포토 스폰 미네바터르, 로젠후카이

브뤼허 구시가지는 어디든 인증샷 명소지만, 특히 운하 주변은 더욱 아름답다. 이 중 브뤼허의 가장 로맨틱한 명소로 꼽히는 곳은 ‘사랑의 호수’라 불리는 미네바터르 Minnewater다. 오래전, 브뤼허 사람들은 이 호수에 미년 minnen, 즉 사랑과 물의 요정들이 산다고 믿었다. 그 전설에 한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짙은 나무숲과 녹음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호수 주변 미네바터르 공원은 바지 다리 Bargebrug로 이어지는데, 이는 다리·광장·캐노피·휴식 공간이 하나의 세련된 조형물로 도시 입구를 장식한다. 다리 난간은 처음엔 거의 수직으로 세워지지만, 도심 쪽으로 갈수록 점차 열리듯 펼쳐져 있다.

로사리 Rosary 부두인 로젠후카이 Rozenhoedkaai는 묵주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도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이 펼쳐지는 포토 스폰으로 사랑받고 있다. 운하 위로 반사되는 중세 건물의 지붕과 그 뒤로 솟은 브뤼허 종탑 등이 그림처럼 어우러진다. 브뤼허 대표적 야경 명소이며, 보드를 타고 둘러보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콘세르트헤바우 브뤼허 Concertgebouw Brugge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01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공연장이다. 1,289석 규모의 대공연장 Concert Auditorium과 322석의 실내악 홀 Chamber Music Hall은 모두 탁월한 음향 설계로 정평이 나 있다. 공연장 곳곳에서는 현대 사운드 아트 작품과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진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이 없는 낮 시간에는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 뒤편을 둘러볼 수도 있다. ●

- 1_ ‘사랑의 호수’라 불리는 미네바터르 공원에 있는 미네바터르 다리
2_ 브뤼허 대표적 야경 명소인 로젠후카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브뤼허 역사지구

중세 시대의 브뤼허는 유럽을 대표하는 상업·문화 중심지 중 하나였다. 도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복잡하게 얹힌 운하로, 이는 상업 교통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브뤼허는 중세 도시 구조가 거의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벽돌로 지은 고딕 양식 건축물과 여러 시대에 걸친 조화로운 건축 군이 함께 남아 있다.

15세기 브뤼허는 플랑드르파의 요람이었다. 부유한 후원자들이 얀 반에이크 Jan van Eyck, 한스 멤링 Hans Memling 같은 화가들을 지원하며 예술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이 같은 이유로, 유네스코는 2000년 브뤼허 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벨기에 브뤼허까지 어떻게 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벨기에로 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다. 인근 유럽 도시로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의 도시를 경유하거나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브뤼셀까지 이동한다. 브뤼셀센트랄역에서 브뤼허까지는 기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크라위스버스트 언덕 위에 자리한
신트얀스하위스 몰런 풍차



300년 전 명작부터 디지털 설치 작품까지 전남국제수목 비엔날레

동아시아 수목 작품을 모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지난 9월~10월에 진행됐다.
321년 만에 처음 공개된 '세마도' 진본부터
6대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생성되고
변화하는 파동 이미지를 구현한
팀랩의 디지털 설치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다.

Writer. 두경아 Photo.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전라남도 해남·진도·목포 일대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를 주제로 황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 문명권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형성된 공동의 수목 문화를 조명한다. 올해 비엔날레는 해남→진도→목포 순으로 관람하도록 구성했다. 조선 후기 문인화의 뿌리와 출발점에 해당하는 해남을 시작으로 크게 변성해 굵은 줄기를 형성한 진도를 거쳐, 목포문화예술회관과 목포실내체육관에서는 전 세계로 확장·융합되는 수목화를 보여주려는 의도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윤재갑 총감독은 "남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수목화가 모두 전 세계 미술계와 비엔날레에서 소외되어 있다"면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이러한 배제와 불균형을 넘어 동아시아 회화 미학과 방법론을 국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 창구"라고 소개했다.

[해남 땅끝순례문화관]

로랑 그라소 '과거에 대한 고찰'

프랑스 현대미술 작가 로랑 그라소. 그의 회화 연작 '과거에 대한 고찰'은 공재 윤두서와 겸재 정선의 회화를 오마주한 3부작으로, 단순한 과거의 재현을 넘어 '과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시각적 탐구 방법을 제시한다. 전통과 현대, 기억과 상상, 회화와 철학이 중첩되는 해남에서 로랑 그라소는 과거를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유하고 감각하는 장을 만들어낸다.



[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

정선 '인왕재색도'

겸재 정선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화가로, 진경산수회를 정립한 선구적 인물이다. 그는 당시의 주류이던 중국 화풍의 관념적 산수화에서 벗어나 직접 산천을 답사하며 실제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의 진경산수는 정교한 필치와 뛰어난 구성,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히 자연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그려낸 시대적 시선이 자미의식의 정수로 평가받는다.



윤두서 '자화상 영인본'

조선 후기 문인화가 공재 윤두서는 고산 윤선도의 증손이자 다산 정약용의 외증조부다. 그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을 추구하며, 사실적 화풍을 통해 조선 후기 회화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특히 전통적인 산수화 형식에서 벗어나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그의 '자화상'은 내면을 깨뚫는 듯 강렬한 시선과 뛰어난 묘사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진도 남도전통미술관]

박생광 '호랑이와 모란'

수묵 채색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며 한국 회화의 독자적 경지를 개척한 작가 내고 박생광. 탈, 무속, 불상, 단군신화, 십장생, 부적, 단청 등 한국 고유의 전통 소재를 수묵의 선과 오방색의 강렬한 색채로 결합하며, 민속적 상상력과 상징성을 한 화면에 압축하는 독창적 화풍을 구축했다.

서세옥 '사람들'

산정 서세옥은 전통 서예의 필법을 회화로 확장하며, 한국 현대 수묵화의 조형 언어를 새롭게 구축한 대표 작가다. 그의 작품은 단순화한 선과 넓은 여백을 통해 형상과 관계 및 움직임을 표현하며, 화면 위 선들은 마치 호흡하듯 리듬과 속도를 품고 있다. 간결하지만 단단한 선, 넓은 여백은 침묵 속에서 관객과 조용히 마주한다.

[진도 소전미술관]

김정희 '후지즈카 지카시 세한도 영인본'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는 시서화를 두루 섭렵하며 자신만의 독창적 서체인 추사체를 창조해 서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대표작인 '세한도'는 1844년 그가 제주에 유배된 시기에 그린 작품으로, 북경에서 귀한 책들을 구해준 제자 이상적에게 전하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다. 초가집과 나무들을 그린 간결한 묘사는 문인화 특유의 극도로 절제되고 생략된 표현을 보여준다.



[목포 실내체육관]

마리안토 'The Sovereign of Mount Merapi'

인도네시아 작가 마리안토는 **스그라피토** Sgraffito 기법을 통해 수묵화와 유사한 흑백 질감을 구현하는 작가다. 그는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억압, 환경 파괴, 정치적 긴장을 회화적으로 드러내왔으며, 전통적 회화 기법이 사회적 성찰과 치유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수묵의 미학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 동시대의 감각과 감정, 기억과 저항이 교차하는 장소로 확장시킨다.



전영광 '집합001-MY057'

전영광의 대형 설치 작품은 한지 조각을 작은 보자기 형태로 접어 캔버스나 목재 위에 빼곡하게 배치하는 '집합' Aggregation 시리즈 중 하나다. 이는 한약방 풍경과 약재를 싸던 한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는 한지와 고서를 중심으로 독창적이고 입체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 왔다. 그의 작업은 수묵적 재료가 단순한 매체를 넘어 기억의 공간성과 집합적 정체성을 촉발하는 시각언어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넘어 해양 문명권의 다중성 Multicentricity을 포용하는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지민석 '코신현어황해도'

지민석은 한국의 전통 철학과 무속 신앙에 대한 관심을 펴포먼스, 비디오, 페인팅,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선보이는 작업을 하는 작가다. 그의 대표작인 연작 '신중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코신현어황해도'는 세계적 상품인 코카콜라를 신격화해 표현하고, 이를 전통 불교 회화의 궤불 형식과 결합해 보여준다. 이러한 작품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독창적 매개체로 기능하며, 관람자에게 공감과 유희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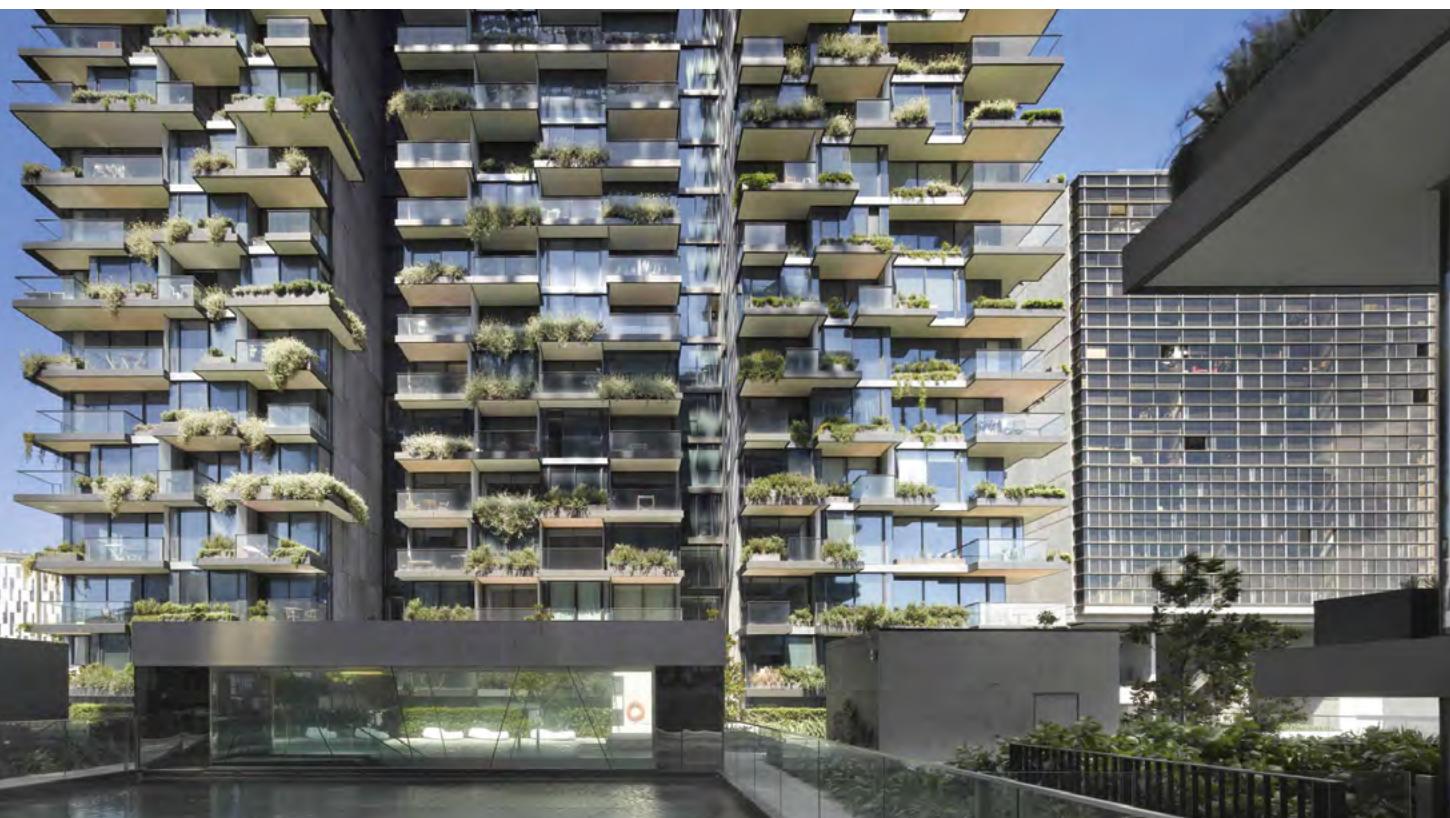


3

빛과 그림자의 언어로 공간을 설계하는 스튜디오 아틀리에 장 누벨 Ateliers Jean Nouvel

아틀리에 장 누벨은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이끄는 세계적 건축 스튜디오다.
그는 빛과 문화적 맥락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현대건축의 흐름을 바꿨다.

Writer: 두경아 Photo: Ateliers Jean Nouvel



2

1994년 설립한 아틀리에 장 누벨은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이 이끄는 세계적 건축 스튜디오다. 장 누벨은 현대건축의 흐름을 선도한 대표적인 거장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을 넘어 빛·기후·문화적 맥락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프랑스 뷔蔑Fumel 출신으로, 보자르 미술학교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이후 건축가 클로드 파랑Claude Parent과 도시 이론가 폴 비릴리오Paul Virilio가 운영하는 아틀리에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1970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건축 사무소를 설립했다. 그는 건축가들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비판하며 프랑스 건축 운동 'Mars 1976'을 주도했고, 건축조합을 결성해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중심의 건축,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적 태도와 사회적 관점은 그의 작품 전반에 깊이 스며 있다.

그는 1987년 '아랍 세계 연구소'로 주목받기 시작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물 '아그바르 타워', 파리의 '까르띠에 미술관' 등을 선보이며 세계적 명성을 쌓았다. 그는 '빛의 장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통한 환상적 분위기의 건축물을 만들어낸다. 아랍 세계 연구소는 전면에 설치된 기계식 셔터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혁신적 디자인을 선보였고, '루브르 아부다비'

는 '빛의 비Rain of Light'라는 콘셉트로 돔형 지붕을 통해 빛을 산란시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2000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2001년 영국왕립 건축가협회RIBA 로열 골드 메달, 2006년 국제 고층 건물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건축계의 최고 영예인 프리츠커상Pritzker Prize을 받으며 세계적 영향력을 확고히 했다. 아틀리에 장 누벨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다. 한남동 리움미술관과 청담동 돌체앤가바나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계했으며,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는 삼성과 협업해 파리에 '삼성 올림픽 체험장'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1_ 라빌레트 공원에 위치한 파리 필하모닉

2_ 외벽의 약 50%가 수직 정원으로 덮여 있는 원 센트럴 파크

3_ 이미지, 색채, 빛으로 가득한 공연장 덴마크 라디오 심포니 홀

호수를 품은 복합문화센터 KKL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스위스의 중심부, 루체른 호수가에 자리한 루체른 ‘문화컨벤션 센터’는 장 누벨의 철학이 담긴 복합 문화 공간이다. 탁월한 음향으로 명성을 얻은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밝고 넓은 테라스와 로비 및 전시 공간이 들어서 있다.

이 건물은 복잡한 부지 조건 속에서도 주변 환경과 완벽히 어우러지는 현대건축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호수’였다. 건물이 호수가를 침범할 수 없다면, 반대로 호수가 건물 쪽으로 스며들게 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중심축은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배치하고, 콘서트홀과 콘퍼런스 센터 등 주요 공간은 호수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설계했다. 이들 사이의 1층 공간은 수로로 나뉘어 있으며, ‘물의 정원’으로 설계해 다리로 연결된다. 모든 요소는 높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청동색 경사 지붕 아래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통합된다. 중앙의 작은 콘서트홀은 완전히 개방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바로 그 아래 위치한 바와 레스토랑에서는 도시와 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지붕 아래의 화색빛 청람색 패널은 루체른 호수, 도시, 산악 풍경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

KKL Luzern

- 1 아름다운 루체른 호수가에 자리한 KKL 루체른 문화 컨벤션 센터
- 2 바와 레스토랑에서는 도시와 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 3 1층 공간은 수로로 나뉘어 있으며, 물의 정원으로 설계해 다리로 연결된다.



© KKL Luzern, Switzerland



© KKL Luzern, Switzerland



© KKL Luzern, Switz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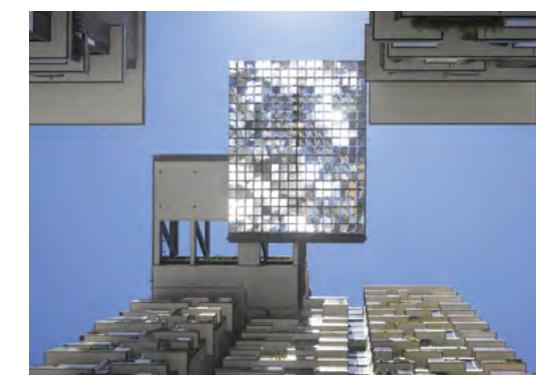
시드니 스카이라인을 바꾼 녹색 수직 정원 시드니 원 센트럴 파크

시드니 도심에 자리한 ‘원 센트럴 파크’는 34층과 12층 2개 타워가 하단의 공용 건물로 연결된 주거 복합 건물이다. 외벽의 약 50%가 프랑스 식물학자이자 조경 예술가인 파트리크 블랑Patrick Blanc과 협업해 만든 수직 정원으로 덮여 있다. 이 정원은 인근 시립공원을 수직으로 확장한 듯한 조경 개념으로, 도심 속에서도 녹색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그린 아이콘’을 완성한 것이다.

수직 정원은 단순한 조경 요소를 넘어 계절에 따라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자연적 차양 장치 역할을 한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최대한의 일조량을 확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각 세대는 시드니의 온화한 기후를 반영해 실내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로지아(실내형 발코니) 구조로 설계되어 야외 생활공간이 한층 넓어졌다.

북쪽과 동쪽 외벽의 로지아는 소음·바람·햇빛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사드 안쪽에 배치했고, 남쪽과 서쪽 외벽의 로지아는 파사드 밖으로 확장해 공원 전망을 극대화했다. 건물 상단에는 거대한 캔틸레버 구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입주민 전용 라운지와 전망 테라스가 자리한다. 여기에 부착된 태양광 반사 장치Helostat는 햇빛을 모아 그늘진 공원을 비추며, 밤에는 조명으로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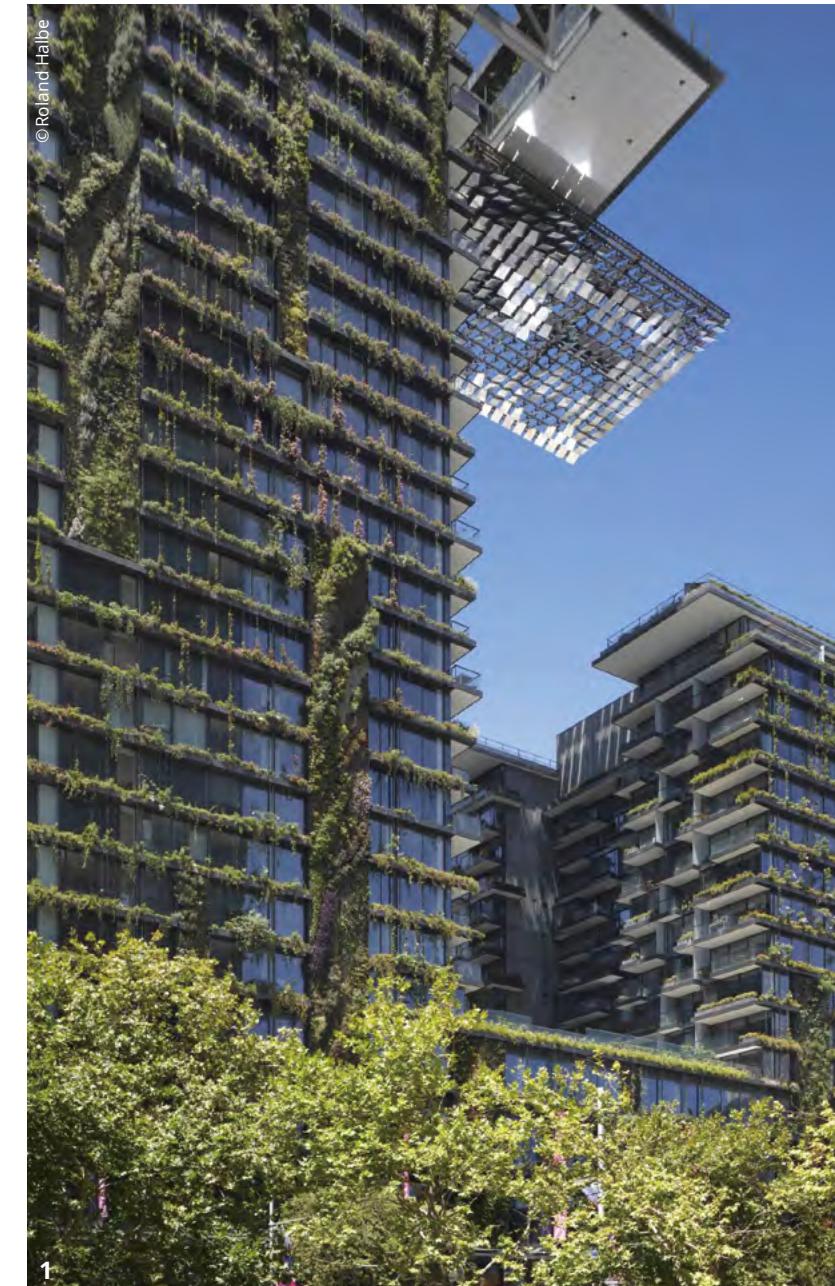
- 1 건물 외벽을 수직 정원으로 조성한 원 센트럴 파크
- 2 태양광 반사 장치는 햇빛을 모아 그늘진 공원에 빛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 3 시드니의 온화한 기후를 반영한 로지아 구조로, 실내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 Roland Halbe



© Roland Halbe



© Roland Halbe

One Central Park



1. 얇은 레이스 같은 지붕은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상적 공간을 만든다.
2. 장 누벨은 사디야트섬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루브르 아부다비를 설계했다.
3. 야자수잎을 엮은 모양에서 모티브를 얻어 기하학적 레이스 구조를 완성했다.

Louvre Abu Dhabi

빛이 비처럼 내리는 돔형 지붕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의 도시’ Museum City’라 일컫는 루브르 아부다비는 2007년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 UAE의 정부 간 협정을 통해 탄생한 아랍권 최초의 종합 박물관이다.

장 누벨은 사디야트 Saadiyat 섬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 모래와 바다, 그늘과 빛이 교차하는 미개발의 석호(라군) 섬은 그의 설계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고대 아라비아의 관개 시스템인 ‘팔라즈 Falaj’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박물관 곳곳을 가로지르는 수로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 물길은 건물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면서 공간 전체에 생명감을 불어넣는다.

루브르 아부다비의 상징인 거대한 돔은 전통적으로 지붕 재료로 사용해온 야자수잎을 엮은 모양에서 모티브를 얻은 기하학적 레이스 구조다. 그 결과 돔 아래에는 사막의 햇살을 산란시켜 신비로운 ‘빛의 비’를 만들어낸다.

이 돔은 외부 5겹, 내부 5겹, 총 10겹의 금속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일한 기하학 패턴이 서로 다른 크기와 각도로 반복되어 복잡하고 정교한 입체감을 형성한다. 그 결과 거대한 돔은 마치 얇은 레이스처럼 가볍고 섬세하게 보이며, 시간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상적 공간을 완성했다.



옛 궁전을 둘러싼 사막 장미 도하 카타르 국립박물관

도하 코르니시 남쪽, 카타르 건국의 아버지 세이크 자심 빈 무함마드 알 타니의 복원된 옛 궁전터 위에 장누벨이 설계한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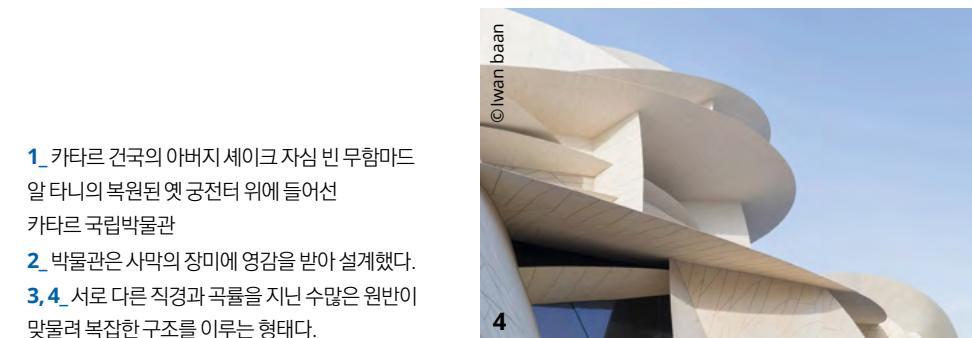
장 누벨은 카타르의 역사와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해 설계를 구상했다. 영감의 원천은 사막의 토양 속에서 광물이 결정화될 때 형성되는 자연 조형물 ‘사막의 장미 Desert Rose’였다. 그는 이를 “자연이 만들어낸 최초의 건축 구조물”이라 부르며, 이 유기적 형태를 현대건축 언어로 재해석했다.

박물관은 서로 다른 직경과 곡률을 지닌 수많은 원반이 맞물려 복잡한 구조를 이루는 형태로 설계됐다. 일부 원반은 수직으로 지지대를 형성하고, 다른 일부는 수평으로 다른 원반 위에 놓아 옛 궁전을 마치 목걸이처럼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중앙 안뜰인 바라하는 갤러리들 사이에 자리 잡아 야외 문화 행사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된다.

외관은 모래색 콘크리트로 마감해 사막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마치 땅에서 자라난 듯한 인상을 준다. 내부에서도 서로 맞물리는 원반 구조가 이어져 다양한 각도와 높이의 볼륨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돌출된 원반은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어내 건축 미학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



Musée national du Qatar





Where the World Turns Autumn

화려한 색상의 단풍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과 황금빛으로 물드는 들판, 짧기만 한 가을을 가장 잘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지역 고유의 문화와 천혜 자연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럭셔리 리조트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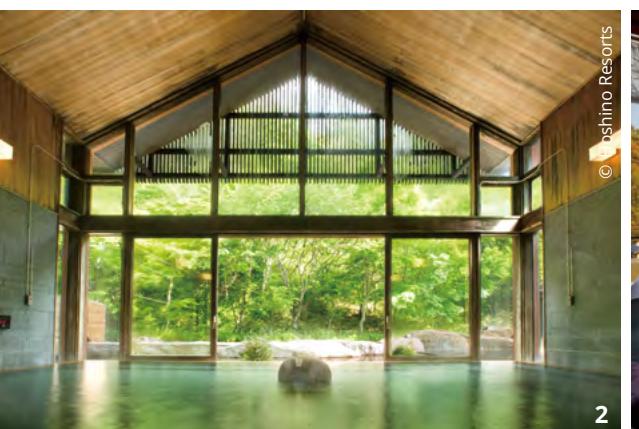
Editor: 이승률

HOSHINOYA KARUIZAWA Japan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가루이자와는 예부터 귀족과 부호들의 별장지로 사랑받은 일본의 대표적 휴양지다. ‘호시노야 가루이자와’ 리조트는 11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온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다. 특히 가을에 방문하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리조트는 온통 붉은색과 황금빛으로 물든다. 시끌벅적한 도심을 떠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행지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가루이자와 숲 산책로를 따라 걷는 동안 단풍과 강물 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져 깊은 휴식을 선사한다. 객실에는 TV도 없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연과 교감하도록 의도한 리조트의 작은 배려다.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리조트 곳곳을 걷거나 1915년부터 이어져온 천연 온천을 즐기면 몸과 마음이 치유될 터. 분당 400L가 솟는 탄산수와 염화물 온천수는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몸을 정화한다. 미식 경험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메인 다이닝 ‘가스케Kasuke’에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송이버섯과 샤인머스캣, 제철 산나물이 어우러진 한정 산 가이세키를 선보인다.

📍 2148 Hoshino, Karuizawa, Kitasaku-gun, Nagano, Japan
📞 +81-50-3134-8091

- 1 자연을 만끽하며 심신의 회복을 돋는 스파를 즐길 수 있다.
- 2 1915년부터 이어온 원천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노천탕 ‘톱보노유’
- 3 숲과 맞닿아 있는 암마로지(숲 전망)의 게스트 룸





1



2



3



4

AMANFAYUN China

중국의 7대 고도 중 하나이자 저장성의 성도인 항저우. 북송 시대 대문장가 소동파가 “물빛 반짝이는 청명한 날도 좋고, 비 오는 날의 안개 낀 산빛도 좋은 천하 명승”이라고 칭송할 만큼 절경이 펼쳐진다. 중국 10대 명승지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호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 숲이 우거진 계곡 옆 고요한 불교 사원으로 둘러싸인 ‘아만파윤’이 자리 한다. 파윤_{法云}은 과거 서호 뒷산에서 용정차밭을 터전 삼아 살아가던 농부들의 마을이었다. 현재 그 집들을 리모델링해 객실로 사용한다. 아만파윤에서 보내는 휴가는 그야말로 고요하다. 사색을 원한다면 정처 없이 걸어도 좋다.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7개 불교 사찰이 고대 순례길을 이룬다. 그중 ‘영은사_{靈隱寺}’는 가히 압도적이다. 중국 내 가장 크고 부유한 불교 사원으로, 무려 326년 인도 고승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다. 어스름이 내려앉으면 가을 낭만을 만끽하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아만파윤의 중심에 위치한 ‘파윤 플레이스’ 2층에는 도서관이 자리한다. 1층에서는 아만에서 염선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는데, 서예와 다도 및 태극권은 물론 중국악기도 다뤄볼 수 있다.

- 1_도보로 방문이 가능한 중국 내 가장 크고 부유한 사원으로 알려진 영은사
- 2_중국 전통적 느낌과 현대적 느낌을 적절히 살린 메인 레스토랑 & 바
- 3, 4_농부의 집이던 곳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아만파윤 빌라 내부

22 Fayun Lane, West Lake Street West Lake Scenic Area, Zhejiang Sheng, China
+86-571-8732-999

GARRYA MÙ CANG CHAI

Vietnam

베트남 북부 옌바이성 무강짜이는 베트남 소수민족인 몽^HMong족과 타이Thai족이 수백 년에 걸쳐 산비탈에 만든 계단식 다랑논이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다. 지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50곳’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절경을 자랑한다. 특히 벼를 갈무리할 시기인 9월과 10월에는 주변 산세의 능선을 따라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다른 유선형 접시를 쌓아놓은 듯한 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한다. 지난 8월 이곳에 ‘가리야 무강짜이’ 리조트가 오픈했다. 무강짜이 지역에 처음 들어선 글로벌 럭셔리 리조트다. 해발 1,000m, 6.5헥타르(약 2만 평) 규모의 부지에 30(약 9평)~154m²(약 47평) 크기의 객실 110개를 갖췄는데, 스위트와 빌라 객실에는 테라스와 프라이빗 수영장이 있어 다랑논을 바라보며 고즈넉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베트

남 전통 대나무 건축과 봉족의 전통 문양을 반영한 객실 인테리어도 특별하다. 6개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소수민족의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작 요리 등 독특한 건강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안 웰빙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과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Pu Nhu Village, La Pan Tan Commune, M Cang Chai District, Vietnam

📞 +84-216-3878-989

1 자연과 조화를 이룬 무강짜이 풀스위트

2 다랑논 위에 자리한 가리야 무강짜이 전경

3 몽족의 전통 문양을 반영해 꾸민 웰빙스위트 침실



© Heavens Portfolio



© Heavens Portfolio



3



© Garrya



© Garrya

CASTELFALFI

Italy

멀리 유럽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이탈리아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나라다.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토스카나의 가을은 찬란하고 감미롭다. 부드러운 곡선의 낮은 구릉 사이로 사이프러스나무가 줄지어 있고,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드넓은 올리브밭과 포도밭은 자연이 빚어낸 계절의 교향곡처럼 특별한 낭만을 선사한다. ‘카스텔팔피’는 토스카나의 진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리조트다. 1,100헥타르(약 330만 평)에 이르는 광대한 부지에 중세 마을과 유기농 포도밭, 전통 농가, 호텔, 빌라, 스파,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실제 8세기에 형성된 마을로, 이후 마을 전체를 리조트로 레노베이션했지만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고성_{古城}에서 보내는 휴가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객실은 지역 장인이 제작한 목재 가구와 자연 소재로

꾸몄다. 옛 담배 창고를 개조한 ‘타바카이아’ 객실은 농가 고유의 감성을 담았고, 프라이빗 빌라에는 야외 수영장과 테라스를 갖춰 독립적이면서 여유로운 휴식을 제공한다. 카스텔팔피 리조트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리조트 내 포도밭과 올리브 농장에서 직접 포도를 따고 올리브 오일을 테이스팅하는 등 특별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 레스토랑에서는 현지 식재료와 와인을 중심으로 구성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

📍 Localit Castelfalfi, 50050 Montaione, FI, Italy

📞 +39-0571-892000

1 고성을 그대로 살려 레노베이션한 카스텔팔피 전경

2 야외 스파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낭만 그 자체다.

3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유기농 포도밭



종교와 라이프스타일 그 사이, 불교

불교가 힙하다. 불교 박람회에서 일렉트로닉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건 예삿일.

지난해에는 종교를 자유분방하게 즐기는 의외성이 화제를 모았다가, 올해는 환경문제, 마음 챙김 등 현대인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답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는 분위기다. ‘추구미’가 된 트렌드로서 불교의 현주소.

Writer. 한소영 Photo. 한경DB, 언스플래시

불교가 ‘힙’해진 이유

‘불교’와 ‘힙’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에 쓰게 될 줄이야! 하 나의 트렌드가 된 불교를 둘러싼 현상이 범상치 않다. 불교가 문화 코드가 된 시발점이 언제, 어디인지는 정확히 따질 수 없지만, 대중이 불교를 문화로 즐긴다는 사실

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은 축제처럼 변화한 불교 박람회 현장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불교가 힙하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8월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는 4일간 10만여 명이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도대체 박람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지난 부산국제불교박람회를 살펴보면 불교가 재미있는 요인이 뭔지 알아차릴 수 있다. 박람회는 크게 전시 존, 공예품 존, 식품 존, 체험 존 그리고 무대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우선 전시 존에서는 불상·불화·단청을 비롯한 한국 전통 미술과 불교미술부터 선과 명상의 의미를 예술로 승화한 현대미술까지 망라한 작품을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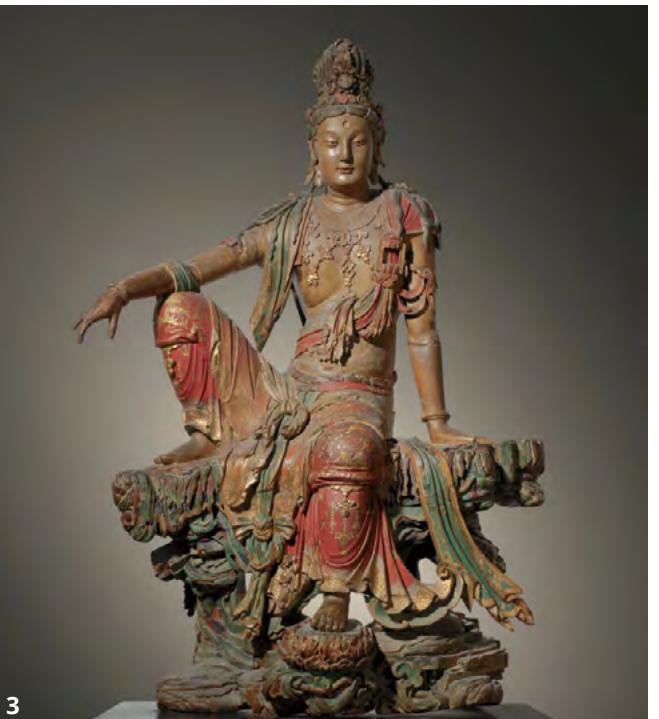
공예품 존에서는 불교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상품을 선보였는데, 분야도 다양했다. 건축(인테리어, 단청, 조경 등)부터 의복(천연 염색, 전통 의복) 그리고 불교 관련 디자인 상품이나 여행 상품, 출판물까지. 불상, 목탁, 염주 등 같은 카테고리의 제품들도 부스마다 개성이 달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식품 존에서는 그 지역의 사찰과 연계한 특색 있는 사찰 음식을 선보였다. 비건·웰빙 등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콩으로 만든 고기나 발효 음식, 각종 웰빙 식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체험 존에서는 불교의 명상과 수행을 MZ세대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환경 친화적 제품을 만들어보거나, 싱잉볼을 체험하고,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을 하는 등 불교의 수행 정신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체험 활동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역시 무대 프로그램이었다. 팔찌를 차고 즐기는 이들이 꽉 찬 박람회 현장은 록 페스티벌 현장을 방불케 했는데, 실제로 박람회 현장에서는 EDM 공연까지 펼쳐졌다.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도 ‘뉴진스 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DJ 겸 개그맨 윤성호 씨가 개막식 무대를 장식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묘하게 연상시키는 뉴진스님은 불교 교리를 EDM 음악으로 편곡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불교 교리를 보다 쉽게 접 할 수 있게 하는 일명 ‘DJ 법회’다. 이른바 ‘반야심경 떼창’이 펼쳐진다. 이 외에도 배꼽 잡는 요소를 꼽자면 끝도 없다. 엄숙하고 조용한 줄만 알았던 불교 문화가 모두를 들썩거리게 할 줄 부처님도 몰랐으리라.

불교는 기존 신자들 이외의 대중문화 소비자로서 젊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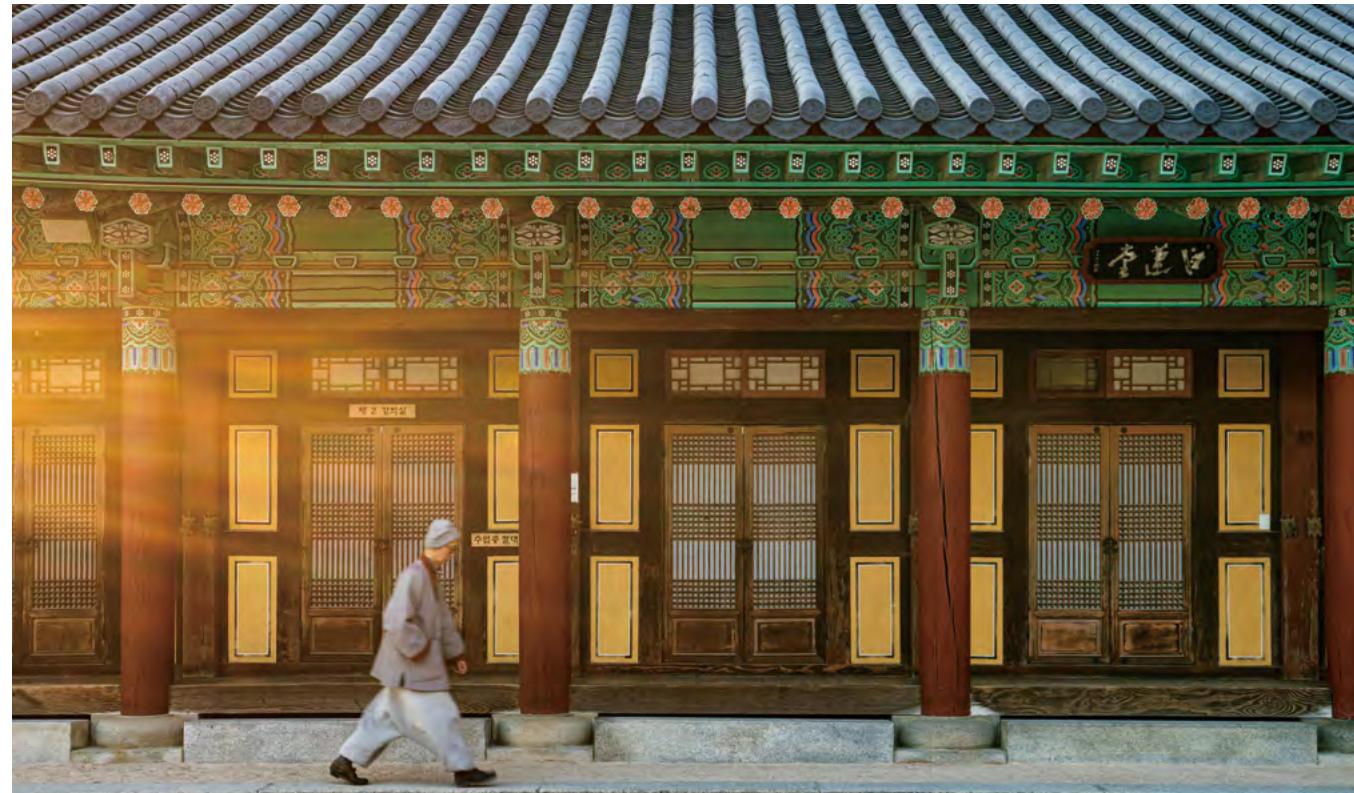


1. 올해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현장

2. 올해 초 아이돌 ‘제니’의 신곡 뮤직비디오에는 불교의 다양한 상징이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제니가 마치 부처처럼 앉아 있다.

3. 온라인상에서 ‘힙한 부처’라고 떠도는 불상 모습. 작품명 ‘남해의 관음’으로, 미국 넬슨 앤텁스 미술관이 소장했다.



대 추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각종 언어유희로 무장한 이벤트와 관련 상품들이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불교 문화의 인기에는 불교 본연의 사상이나 미학이 현대 소비자가 추구하는 정서적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웰니스, 슬로 라이프, 마음 챙김 등이다. 무종교 비율이 높은 청년 세대는 불교를 합리적 실용 철학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즉 종교적 신앙을 갖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공감하거나, 취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서 불교를 소비하는 흐름이 청년 세대 사이에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아 가는 것이다.

불교적 라이프스타일

불교의 가르침은 음식 문화에도 손을 뻗친다. 최근 건강식과 비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찰 음식, 이른바 절밥을 찾는 이도 많아졌다. 사찰 음식은 불교 사찰에서 전해지는 요리를 말한다. 사찰 음식의 대표적 특징은 육식과 인공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음식 만드는 과정을 또 다른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대개 떡이나 나물을 만들어 신자들이 나눠 먹는다. 두부나 김치, 나물을 한데 비벼서 만든 비빔밥도 대표적 사찰 음식이다. 버섯잡채, 순나물, 칼국수 등 단출한 음식이 사찰 음식의 백미다.

‘발우공양’이란 나무 그릇인 발우를 사용해 행하는 식사법을 의미한다. 여러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때 마련된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발우에 덜어 남기지 않고 먹는 것으로, 평등·청결·청빈·공동체 의식 등을 수행하는 한 과정이다. 채식으로 된 건강한 조리법과 먹을 만큼 적당히 먹고 남기지 않는 식사 문화가 친환경주의와 맞닿아 있다.

‘불상명’을 위한 공간

최근 ‘국중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불상을 감상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인 ‘사유의 방’이 있다. 2021년 11월에 개관한 전시실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에 전시된 ‘경주 백루사 금동약사여래입상’



천안 각원사. 태조상을 배경으로 거대한 청동 불상을 볼 수 있다.

금동반가사유상(국보) 두 점만을 전시한 공간이다. 사유의 방은 개관 때부터 화제였다. 고도로 정교한 불교 문화를 상징하는 반가사유상을 가까이에서 언제든 감상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불상을 보고 명 때리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행위를 뜻하는 ‘불상명’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불상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유의 방 말고 또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은 신라의 찬란한 미술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신라 시대는 불교가 꽃피우던 시기다. 신라 시대 불교 조각부터 신라 최대의 사찰인 황룡사를 비롯해 분황사,

감은사, 사천왕사 등에서 출토된 사리기(감은사 서탑 사리장엄구, 보물), 기와, 전돌, 벽전 등을 소개한다. 이곳에서는 통일신라 불상의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아기 부처’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전시실 한쪽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오롯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라는 종교가 변화한 시절과 맞아떨어져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로운 삶의 방식에서 많은 이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기대해본다. ●

사찰 음식에 관심 있다면

유튜브 | 정위 스님의 채소한끼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채식”이라 말하는 정위 스님이 구하기 쉬운 제철 채소로 쉽고 건강하게 요리하는 레시피를 알려준다. 몸에 이로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이 매회 펼쳐진다. 고기 없이도 다양하고 풍성하고 배부른 한 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www.youtube.com/@monkjungwe

교육기관 | 봉녕사 사찰 음식교육관

2013년에 조계종 문화사업단이 선정한 사찰 음식 특화 사찰로 등록된 봉녕사는 사찰 음식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또 담그기, 사찰 김치·장아찌 담그기 등 사찰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봉녕사 사찰 음식교육관

031-252-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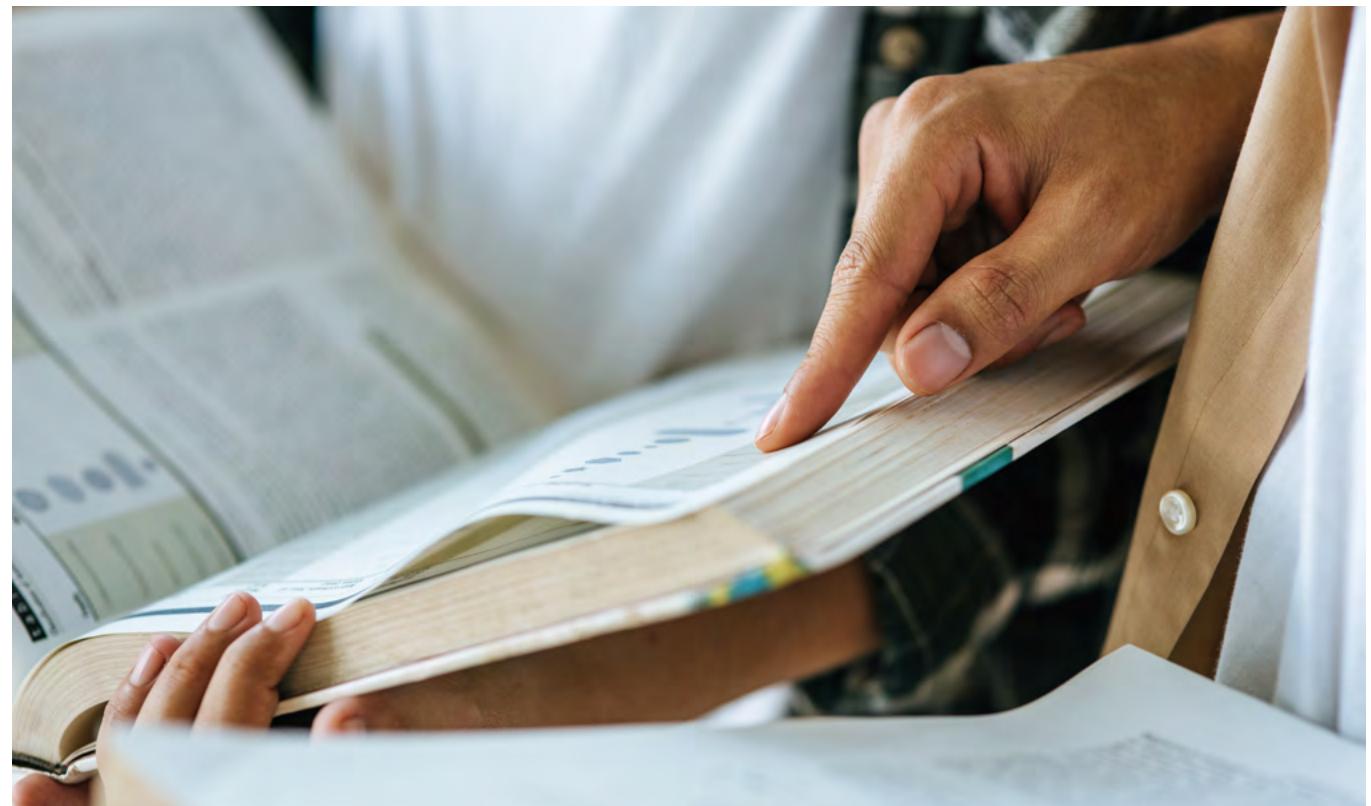
www.bongnyeongsatemplefood.co.kr

레스토랑 | 발우공양

발우공양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찰 음식 전문점이다.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찰에서 전승되는 전통 조리법에 따라 요리하며, 계절별로 다르게 나오는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5층

점심 1부 11:30~13:20,
점심 2부 13:30~14:40, 저녁 18:00~21:00,
일요일 정기 휴무
02-733-2081



삶을 읽어내는 힘, 문해력

우리 사회의 문해력 저하 논란이 뜨겁다. 문해력을 단순히 글 읽고 지식을 얻는 능력으로 오해하는 것에서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 우리 삶에서 문해력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왜 지금 문해력이 문제가 될까?

Writer. 한소영 Photo. 한경DB, 언스플래시, 프리픽 Reference.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김성우·엄기호, 도서출판 따비)

문해력이 뭐길래

한글날이 제579돌을 맞았다. 그런데 올해 한글날은 조금 더 특별했다고 할까.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끝에 이 어진 데다 노벨 문학상 수상일까지 겹치면서 한층 풍성한 의미가 포개진 듯하다.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점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은 더 한층 커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경사스러운 몇몇 날을 제

외하면 실은 우리 사회는 매일매일 자못 심각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로 ‘문해력’ 저하 문제다. 여기저기서 우리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중이다.

한국은 문맹률이 1%도 안 된다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도 문해력 문제는 최근 들어 더 주목받는다. 읽기 환경의 변화로 인한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가 문제가 된 가운데, 성인의 문해력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각주라는 단어는 38년 평생 처음 들어본다”라는 댓글이 화제를 모았다.

한글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과 노벨 문학상 수상의 쾌거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마주하니 정말로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저하된 문해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문해력이 정말 저하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일단 문해력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문해력은 리터러시 Literacy를 번역한 말이다. 리터러시를 ‘문식성’이라 번역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대중적으로 쓰고 있다. 유네스코는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한다. 리터러시, 문해력, 문식성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차이를 파고들면 세밀한 논의가 필요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이 모두를 문해력으로 통용하기로 한다. 문해력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문해력, 위기인가 변화인가

글보다 말이 먼저 존재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류는 말로 대화하다가 상형문자를 만들어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하기와 쓰기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극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한다. 듣는 사람이 말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과장되거나 허술한 진술이 끼어든다. 말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은 발화한 순간 ‘사라지므로’ 사람들이 솔깃해서 듣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렇다. 그런데 글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 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서 불명확성을 없애고, 전후 맥락이 완벽 하기를 원한다.

구텐베르크의 활자 혁명 이후로 세계는 읽고 해석해야 하는 텍스트의 세계로 바뀌었다. 즉 문해력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말에서 글로, 듣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모바일이 대중화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다. 듣는 것으로 세계를 이해해온 중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대는 오히려 문해력의 위기인 셈이다. 상상해보라. 둥글게 모여 앉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대답하던 사람들 중 몇 명이 갑자기 훌로 책을 읽으며 입을 닫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다면 일목요연하게 글을 적어 지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말로 대화하던 이들은 일순 답답할 수밖에 없다. 대화를 방해하는 행동 아닌가, 왜 저러나면서 욕을 했을 수도 있다. 문해력은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현대에 적용하면 지금 문해력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즉 ‘변화’라는 진단이 나온다.

공격의 무기가 된 문해력?

안타깝게도 위기가 아닌 변화라고 해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역량을 조롱하는 의미로 문해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타인이 자신과 다르게 이해할 때 “네 말은 틀렸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가 세계를 참과 거짓으로 이해할 때 자신과 다른 상대의 말은 ‘거짓’이 되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삶 속에서 말·글은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역할에 갇히지 않는다. 말·글의 역할은 서로 다양하다. 말은 만남을 탄생시킨다. 말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랑을 선언하고, 결혼이 성립된다. 결혼을 성립시키는 등의 법안을 통해서 시키는 것도 바로 말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말과 글이 행위와 이어진다는 것이다. 말·글과 행동이 연속선상에 놓이는 것이라면, 말·글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즉 누군가의 말을 쉽게 옳다 그르다로 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다. 문해력은 나의 교양이나 감정을 심화하고, 타인과 소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지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다. 문해력이 서로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둔갑해서는 절대 안 된다.



1



2

1, 2 함께 모여 앉아 듣고 대화하는 것보다 혼자서 글을 읽고 독해하는 것이 문해력 위기의 진짜 원인은 아닐까?

문해력은 개인의 문제일까?

타인과 소통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문해력은 공동체의 역량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의 공동 저자 김성우는 문해력을 단지 개인이 잘 읽고 쓰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입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사회가 얼마나 잘 닦아놓았느냐의 문제로 본다. 문해력의 문제를 그저 개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안하고도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문해력 지표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ISA에서 학생들이 받는 점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더 중요한 건 집에 문해력과 관련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을 펼쳐낼 기회를 갖는가,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동네 도서관이 있는가, 도서관에 가면 내가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줄 사서가 있는가, 나는 사서 선생님과 친해서 말을 나눠볼 수 있

아동의 읽기권 Children's Rights to Read

1. 아동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읽을 권리와 권리를 갖는다.
2. 아동은 인쇄물과 디지털 형식의 텍스트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자신이 읽을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자신의 경험과 언어를 반영한 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글을 읽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즐거움을 위해 읽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풍부한 지식을 지닌 리터러시 파트너에게 독서 환경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독서를 위해 따로 긴 시간을 할당할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독서를 통해 배운 것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쓰기, 말하기,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등 다른 종류의 소통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읽을 권리가 있다.
10. 아동은 읽기와 읽기 교육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 및 조직의 재정 및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혜택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김성우·엄기호)에서 재인용

는가, 또 내가 소셜 미디어를 한다면 거기서 책 읽는 사람이나 책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읽고 쓰기와 숙고하기가 일상에 얼마나 녹아 있는가, 의미 있는 리터러시 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같은 지표를 제시한다.

이처럼 문해력은 개인의 역량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사회적 책임의 정상적 작동을 함의하기도 한다. 미국의 리터러시 교육자 단체인 국제리터러시협회 International Literacy Association는 ‘아동의 읽기권’의 주장을 통해 모든 아동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읽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전에, 이들의 읽기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다. 아동의 읽기권을 면면이 살펴보면 한국 아이들의 읽기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자명해 보인다.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문해력 강화하기

“유튜브가 책을 집어삼킬” 것 같은 시대에서도 긴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의 중요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학과 문학, 학문과 교육,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조차도 이미지나 영상으로만 이뤄지기는 어렵다. 인류가 다시 동굴로 들어가 둥글게 모여 앉아 말로만 대화를 이어가는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도 전혀 볼 수 없다. 결국 영상과 텍스트를 모두 소화해내는 유연한 역량과 동시에 긴 텍스트를 끝까지 읽어내는 능력은 세계가 복잡해지면서 인간에게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소양이다. 그렇다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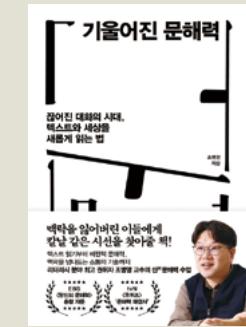
책의 적은 유튜브가 아니다. 여러 미디어를 대립물로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 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텍스트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를 경험한 세대가 탄생한 지금, 미디어를 장벽으로 만들지, 다양한 이야기를 꼬집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로 만들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 ●

문해력 관련 책 추천



문해력 격차

김지원·민정홍 지음, 어크로스 펴냄
EBS ‘문해력 시리즈’ <당신의 문해력>, <책맹인류> 등을 연출한 두 PD가 7년여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해력 격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심화되는지 풀어낸다. 충격적인 사실은 문해력을 강조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읽고 쓰기 어려워하는 아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와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아이의 문해력 격차를 벌리고 있는가? 이 책은 문해력을 둘러싼 현실을 낱낱이 바라보고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한다.



기울어진 문해력

조병영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지문을 얼마나 빨리 읽어낼 수 있느냐가 문해력으로 오해받은 세월 동안 성찰을 위한 비판적 문해력은 희소해졌다. 기능적 문해력의 도식에서 벗어나 삶이라는 텍스트를 마주할 때 문해력은 글자를 넘어 사회적 소통과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빠듯게 ‘기울어진’ 문해력을 다 같이 뛰어놀 드넓은 들판으로 불러내는 이 책은 명실공히 국내 리터러시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조병영 교수가 썼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김성우·엄기호 지음, 따비 펴냄
문화 연구자 엄기호와 응용언어학자 김성우의 리터러시에 대한 대담집으로,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라는 부제가 달렸다. ‘보는 것’이 익숙해지는 세상에서 리터러시란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문해력 향상을 위한 개인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혐오와 소통의 위기를 벗어나 좋은 삶을 위한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1

4개의 전설, 하나의 계절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서트헤바우, 그리고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호흡을 맞추는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까지. 서로 다른 전통과 사운드가 한 무대 위에서 교차하며 한 해의 가장 완숙한 계절, 클래식의 정점을 연주한다.

Writer: 강은진 Photo: 각 공연장 제공



2



3

베를린 필하모닉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음악적 완벽의 전형이라 평가받는 베를린 필하모닉이 다시 서울을 찾는다. 2023년 첫 내한 이후 2년 만, 그리고 악단 역사상 처음으로 사흘간의 대장정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친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키릴 페트렌코의 지휘 아래 3개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완성될 이번 무대는 베를린 필의 전통과 진화가 동시에 호흡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이름 앞에는 늘 ‘정통’과 ‘혁신’이라는 수식이 나란히 선다. 1882년 창단 이후 헤르베르트 카라얀, 클라우디오 아바도, 사이먼 래틀을 거쳐 음악사의 기준점을 세워온 오케스트라. 이들이 지금의 완벽한 앙상블로 진화한 배경에는, 음악을 ‘해부하듯’ 탐구하는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가 있다. 2019년부터 악단을 이끄는 그는 정제된 분석력과 섬세한 해석으로 ‘소리의 조각가’라 불린다. 언론 노출을 피하는 ‘샤이 가이’로 알려졌지만, 그의 리허설은 악보 한 마디를 수십 번 반복하는 집요한 몰입으로 유명하다. 그 끝에서 완성되는 베를린 필의 사운드는 한층 더 긴장감 있고 투명하다.

이번 내한은 그가 만들어온 음악 세계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11월 7일 첫날 무대는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목가’로 문을 열어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과 브람스 교향곡 1번으로 이어진다. 8일에는 야나체크의 ‘라치안 춤곡’, 베르토크의 ‘중국의 이상한 관리 모음곡’, 스트라빈스키

의 ‘페트루시카’가 이어지며, 9일 마지막 무대는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과 다시 한번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브람스의 교향곡 1번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단 한 번의 공연이 아닌, 3일간의 여정을 통해 베를린 필의 다층적 얼굴을 만나는 셈이다.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협연 역시 이번 무대의 중심축이다. 2021년 베를린 필과의 첫 협연 이후, 그는 페트렌코가 이끄는 무대에서 ‘감성과 구조의 균형’을 보여주는 연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통해 피아노와 관현악이 서로의 숨결을 교환하듯 이어질 예정이며, 두 사람의 해석이 빛어낼 시적 긴장은 이번 공연의 백미가 될 것이다.

베를린 필은 고전 낭만주의의 깊이와 현대의 자유를 모두 품은 오케스트라다. 2014년 자체 레이블 ‘베를린 필하모닉 리코딩스’를 설립하고, 디지털 콘서트홀을 통해 전 세계 관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전통을 새롭게 이어가고 있다. 음악에 수많은 명연을 남겼지만, 그들은 여전히 현재형 오케스트라로 존재한다. 페트렌코의 지휘 아래 다시 울려 퍼질 브람스 교향곡 1번의 도입부, 슈만의 서정이 김선욱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순간, 그리고 베르토크와 스트라빈스키가 그려낸 리듬의 격렬함까지. 세 공연을 모두 본다면, 그건 단순한 감상 영역을 넘어 ‘음악이 진화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진귀한 경험이 될 것이다.

1 베를린 필하모닉은 음악적 완벽의 전형이라 평가받는 140여 년 전통의 악단이다.

2 헤르베르트 카라얀, 클라우디오 아바도, 사이먼 래틀을 잇는 러시아 출신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

3 베를린 필과 함께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줄 피아니스트 김선욱

일정 2025년 11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 11월 8일(토) 오후 5시 / 11월 9일(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협연** 피아니스트 김선욱(11월 7·9일 공연) **프로그램** 11월 7일 바그너 ‘지크프리트 목가’ / 슈만 피아노 협주곡 / 브람스 교향곡 1번 11월 8일 야나체크 ‘라치안 춤곡’ / 베르토크 ‘중국의 이상한 관리 모음곡’ /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시카’ 11월 9일 슈만 ‘만프레드 서곡’ / 슈만 피아노 협주곡 / 브람스 교향곡 1번
문의 빈체로 02-599-5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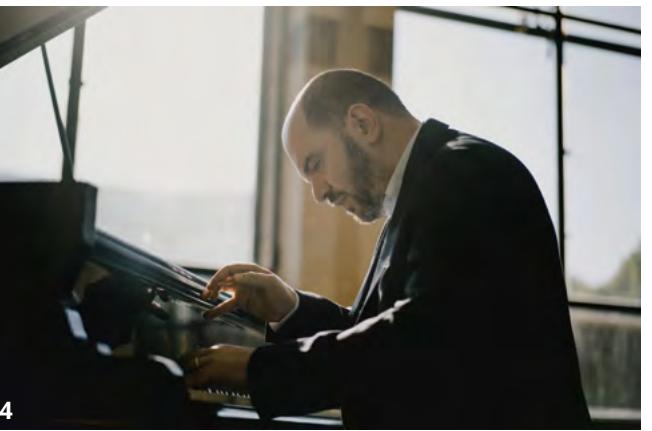


1



2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RCO



3

4

가을 공기가 맑아질 무렵, 암스테르담의 정교한 소리가 서울로 향한다.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가 차세대 거장 클라우스 메켈레와 함께 한국 무대에 오른다. 11월 5일과 6일 서울, 9일 부산까지 이어지는 이번 투어는 세대와 시대를 잇는 음악의 항해이자, 클래식의 미래를 보여주는 무대다.

RCO는 1888년 창단된 네덜란드의 대표 오케스트라로, 그라모폰이 선정한 ‘세계 1위 오케스트라’(2008)의 명성을 얻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말러, 스트라빈스키가 직접 지휘하던 전통을 이어왔으며 특유의 투명하고 정밀한 음향은 콘세르트헤바우 홀의 공기와 함께 진화해 ‘암스테르담의 온도’라 일컬을 만큼 따뜻하고 세련됐다. 지휘봉을 잡는 메켈레는 올해 스물아홉 살. 차분하면서도 불꽃 같은 에너지를 지닌 그는 2027년 RCO의 제8대 수석 지휘자이자 시카고 심포니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말러 페스티벌, 미국 투어, 신작 초연 등 굵직한 무대를 이끌며 세밀한 악상 처리와 날렵한 해석으로 전통 속에 새로운 균형을 심어왔다.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11월 5일)은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슈타인과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게르슈타인의 폭넓은 음색과 메켈레의 젊은 시선이 교차하며 세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어 버르토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 RCO의 구조감과 현악의 밀도를 선보인다. 11월 6일 롯데콘서트홀과 9일 부산콘서트홀에서는 바이올리ニ스트 다니엘 로사코비크가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그는 메켈레와의 오랜 호흡 속에서 감정의 조율을 완성해 클래식의 순수함을 되살린다. 무대는 말러의 교향곡 5번으로 이어지며 극적 서사와 감정의 깊이가 고조된다. 절정의 순간, RCO의 금관이 터져나오면 청명한 공기 속에서 음 하나하나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이번 투어의 마지막 도시 부산은 RCO의 첫 방문지다. 유럽의 중심에서 연주해온 그들이 한국 남단의 바다를 향해 음악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하다. 클라우스 메켈레와 함께하는 이 여정은 전통의 무게와 청춘의 감각이 교차하는, 지금 세계 클래식의 가장 생생한 단면을 보여줄 것이다.

1_ 빈 필, 베를린 필과 함께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2_ RCO와 첫 협연을 펼치는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

3_ 클라우스 메켈레가 신뢰하는 음악적 동반자이자 차세대 스타 바이올리ニ스트로 평가받는 다니엘 로사코비크

4_ 테크닉과 감성의 균형을 갖춘 연주자로 평가받는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슈타인

일정 2025년 11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예술의전당 6일(목)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 9일(일) 오후 5시 부산콘서트홀 협연 키릴 게르슈타인(피아노, 11월 5일) / 다니엘 로사코비크(바이올린, 11월 6·9일) 프로그램 11월 5일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 버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11월 6·9일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 말러 교향곡 5번 문의 한국경제신문 공연사업국 02-360-4524

빈 필하모닉
Wiener Philharmoniker



클래식 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 해의 끝자락, 빈의 황금빛이 서울의 밤을 물들인다. 1842년 창단 이래 세계 클래식의 중심에 서온 빈 필하모닉이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함께 한국을 다시 찾는다. 2019년 전석 매진을 기록한 전설적 조합이 6년 만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선다. 틸레만은 ‘독일 낭만주의의 수호자’라 불린다. 카라얀의 리허설 피아니스트로 출발한 그는 바그너, 브루크너, 슈만, 브람스에 이르는 전통 음악 속에서 음악 구조와 감정을 깨뚫는 해석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의 지휘 아래 빈 필의 사운드는 더욱 유려해지고, 견고한 형식과 자유로운 감정이 맞물리면서 한 음 한 음이 황금빛 결을 입는다. 올해 무대는 독일 낭만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11월 19일 틸레만은 슈만 교향곡 3번 ‘라인’으로 포문을 열고, 라인 강의 흐름처럼 장엄한 서사로 객석을 채운다. 이어 브람스 교향곡 4번이 변주와 푸가의 교차 속에 고요한 장엄함을

완성한다. 다음 날 20일은 브루크너 교향곡 5번 단독 연주로, 그가 평생 탐구해온 브루크너 해석의 정점이자 ‘기도 같은 음악’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빈 필하모닉의 소리는 흔히 ‘황금빛 사운드’로 일컫는다. 음의 질감이 부드럽고 현의 울림이 공기 중에 둥글게 퍼지는, 오스트리아 빈 고유의 전통이 스며 있는 음색이다. 지휘자 없이도 스스로의 해석과 질서를 지켜내는 ‘자치 오케스트라’로서의 자부심과 세대를 이어온 완벽한 앙상블이 그들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무대를 완성하는 이는 빈 필이 가장 신뢰하는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다. 절제 속에서도 감정의 흐름을 숨기지 않는 그의 지휘는 기도처럼 깊은 몰입을 자아낸다. 이번 무대는 그가 그려온 독일 낭만의 궤적이 빈 필하모닉의 황금빛 사운드와 만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일정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 2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로그램 11월 19일 슈만 교향곡 3번 ‘라인’ / 브람스 교향곡 4번 11월 20일 브루크너 교향곡 5번 문의 더블유씨엔코리아(주) 02-360-4524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
Orchestra dell'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

12월의 서울, 음악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 찾아온다. 이탈리아의 대표 교향악단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가 지휘자 대니얼 하딩, 그리고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함께 무대에 선다. 새 음악감독과 함께하는 첫 내한이자, 임윤찬의 첫 라벨 협연 무대로 더욱 특별하다. 라벨의 피아노협주곡 G장조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낭만적 감정에서 벗어나 재즈의 리듬과 인상주의 색채를 오가는 이 작품 속에서 임윤찬은 감정과 구조를 동시에 잡아내며 완전히 새로운 결을 만들어낸다. 섬세한 페달링과 긴 호흡, 그리고 한 음 한 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집중력은 그가 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젊은 거장인지 증명한다.

지휘자 대니얼 하딩은 산타체칠리아의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다. 이탈리아의 열정에 북유럽적 절제를 더해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투명하게 빛낸다.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서곡으로 문을 열고, 임윤찬의 라벨 협연을 지나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탈리아의 빛, 프랑스의 세련미, 러시아의 낭만이 한 무대에 펼쳐진다. 산타체칠리아는 1908년 창단 이후 수많은 거장과 함께하며 이탈리아 음악의 정수를 지켜온 오케스트라다. 그들의 생동하는 사운드가 임윤찬의 피아노와 만날 때 이 무대는 단순한 협연을 넘어 음악의 본질이 맞닿는 순간이 될 것이다. ●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는 11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다.



그라모폰상, 디아파종 활금상 등 세계적 음반상을 휩쓸며 젊은 거장으로 우뚝 선 피아니스트 임윤찬

일정 2025년 12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협연 피아니스트 임윤찬 프로그램 베르디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서곡 / 라벨 피아노협주곡 G장조 /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문의 빈체로 02-599-5743

 우리은행 TWO CHAIRS × ⓘ 가연결혼정보

결혼? 나의 가치 있는 선택
답은 가연



- 제휴서비스: 「우리은행 × 가연 프레스티지 서비스」^{주1)}
1년 이용 바우처 제공
- 제휴기간: 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단, 선착순 1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우리은행 TCE^{주2)} 고객 중 희망고객
(단, 가연결혼정보 남녀 연령조건^{주3)} 충족限)
- 바우처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전담 PB/FA 통한
제휴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
- 서비스 가입절차: 바우처 수령 후 가연결혼정보 표준약관 및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주4)} 및 외국 국적자
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양도 및 판매 불가

주1) 프레스티지 서비스: 담당 매니저 2대 1 전담관리, 결혼전제 만남추천, 정회원 전용 파티 초대 등

주2) TCE: 우리은행 고객분류 기준으로 순수개인 금융수신 6개월 평잔 10억이상 고객

(금융수신: 수신+신탁+수수익증권(해외펀드포함)+방카슈랑스+정약저축+통장식CD+퇴직연금(DC)가입자적립금)

주3) 연령조건: (24년도 기준) 남성 94년생(30세)~59년생(65세), 여성 99년생(25세)~63년생(61세)

주4)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사/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자인 및 그 배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만족도 91.6%

23년 3월 1일 ~ 24년 5월 12일에 프로필 추천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매칭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총 4개 평가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가연결혼정보 전담상담센터 | 1666-5314

SENIOR &



삶에서 경험은 가장 큰 스승이며, 혜안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현재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 경주

11월, 천년 고분과 왕궁터 및 트렌디한 카페가 공존하는 경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바로 APEC 정상회의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무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국제 행사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될 경주의 가을을 들여다봤다.

Editor: 박소윤 Photo: <SRT 매거진>



눈부신 신라의 달밤 동궁과 월지

경주의 하루는 유독 길다. 멋진 야경 포인트가 산재해 해가 진 뒤에도 여행이 계속되기 때문. 야경의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동궁과 월지다. 신라 왕궁의 별궁 터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가 열리던 곳이다. 신라가 멸망한 후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든다’는 뜻에서 ‘안압지’라 불렸으나, 1980년대 ‘월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가 발굴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동궁과 월지는 경주 야경 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전각과 석축을 비추는 조명이 그리는 데칼코마니 풍경이 황홀함을 선사한다. 동궁과 월지 맞은 편에 있는 월성 해자는 신라 시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성됐다. 땅의 생김새가 초승달과 같다 해서 ‘반월성’이라 불렸다. 830여 년간 왕궁으로 존재하며 신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반월성과 이를 둘러싼 해자의 진가는 해가 진 뒤 드러난다. 해자 위로 어둠과 빛이 고요히 녹아들면 월성은 그 옆을 묵묵히 지킬 따름이다. 하늘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해자가 사뭇 몽환적이다. 해자의 끝과 끝을 거니는 데 10분이면 충분하다. 월성을 뒤로하고 조금만 더 걷다 보면 반짝이는 다리 하나가 시야를 가득 채운다. 원효대사와 요석 공주의 사랑이 깃든 월정교다. 원효대사가 파계를 각오하고 요석 공주와 인연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으로, 오랜 시간 고증을 거쳐 지난 2018년 1,300여 년 전 모습으로 복원됐다. 오색단청과 붉은 기둥을 품은 월정교는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가까이서 보면 응장하면서도 단아하다. 밤이 깊어도 변함없는 반짝임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원화로 102

신라 왕궁의 별궁 터 동궁과 월지 너머로 해가지고 있다. 동궁과 월지는 경주를 대표하는 야경 스폿 중 하나다.

경주, 세계를 품다 보문관광단지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024년 6월, 경주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APEC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1989년 창립된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체로, 한국·미국·중국·일본·호주·싱가포르·멕시코·페루 등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 행사다. 전 세계 경제 리더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행사이인 만큼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개최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두 번째 APEC 정상회의라는 점도 무척 고무적이다. 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톡톡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전국적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무대는 국내 최초의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다. 1970년대 우리나라 관광 개발의 시작을 알린 출발점이자 경주 관광의 핵심이 되는 곳이다. 푸른 보문호를 중심으로 약 808만 6,000m²(240만여 평)의 드넓은 부지에 조성된 종합 관광 휴양지로 호텔, 컨벤션 센터, 레저·휴양 시설 등이 들어서 여행객에게 필수 코스로 꼽히며 경주 여행의 거점으로 삼기 좋다. 싱그러운 자연을 한껏 느끼고 싶다면 보문호를 따라 이어진 보문호반길을 추천한다. 시간에 따라 벚꽃, 단풍 등으로 옷을 갈아입는 가로수를 눈에 담으며 깊어가는 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 인근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가 자리한다. 전시·페스티벌·박람회·학술 회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연중 펼쳐지는 경주 문화 예술 인프라의 집합체로, 다양한 행사·숙박·관광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다.

▣ 보문관광단지 경북 경주시 신평동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북 경주시 보문로 507



1_도심 곳곳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_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자리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_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보문관광단지 전경. 2025년은 보문관광단지가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4_2025년 APEC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통과 현대가 빛어내는 대비 경주엑스포대공원 & 불국사

내남사거리에서 시작하는 황리단길은 경주에서 가장 짧은 길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MZ세대의 발길이 향하는 장소가 한 곳 추가됐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이다. 1988년 국제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된 엑스포대공원은 현재 전시·체험·공연 등 다양한 경험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82m의 아찔한 높이와 중심부가 뻥뚫린 파격적 설계가 돋보이는 경주타워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의 상징이다. '탑을 품은 건물'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 이는 재일 한국인 건축가 고故 이타미 준(한국 이름 유동룡). 사라진 황룡사 9층 목탑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의 뜻이 중심 공간에 담겼다. 꼭대기 층인 전망대에서는 보문호를 중심으로 자리한 보문관광단지, 경주월드 등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세계적 건축가 구마 겐고가 설계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념관도 놓칠 수 없다. 현무암을 이어 붙이듯 쌓아 올린 독특한 외관은 주상절리에서, 건물 전체를 덮은 황금빛 격자와 3개의 언덕 형상은 각각 신라 금관과 고분을 상징한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백미는 솔거미술관이다. 과거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의 작품 830여 점이 이곳에 소장돼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이 현대 문화의 상징이라면, 불국사는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 시절 수학여행 단골 장소로, 학창 시절 교과서로 수없이 접해 지겨울 법도 한데,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다운 자태는 마주 할 때마다 새롭다. 불국사의 템플스테이는 숙박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대웅전의 다보탑과 석가탑을 벗 삼아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 경주엑스포대공원 경북 경주시 경감로 614

▣ 불국사 경북 경주시 불국로 385

1_유네스코 세계유산 불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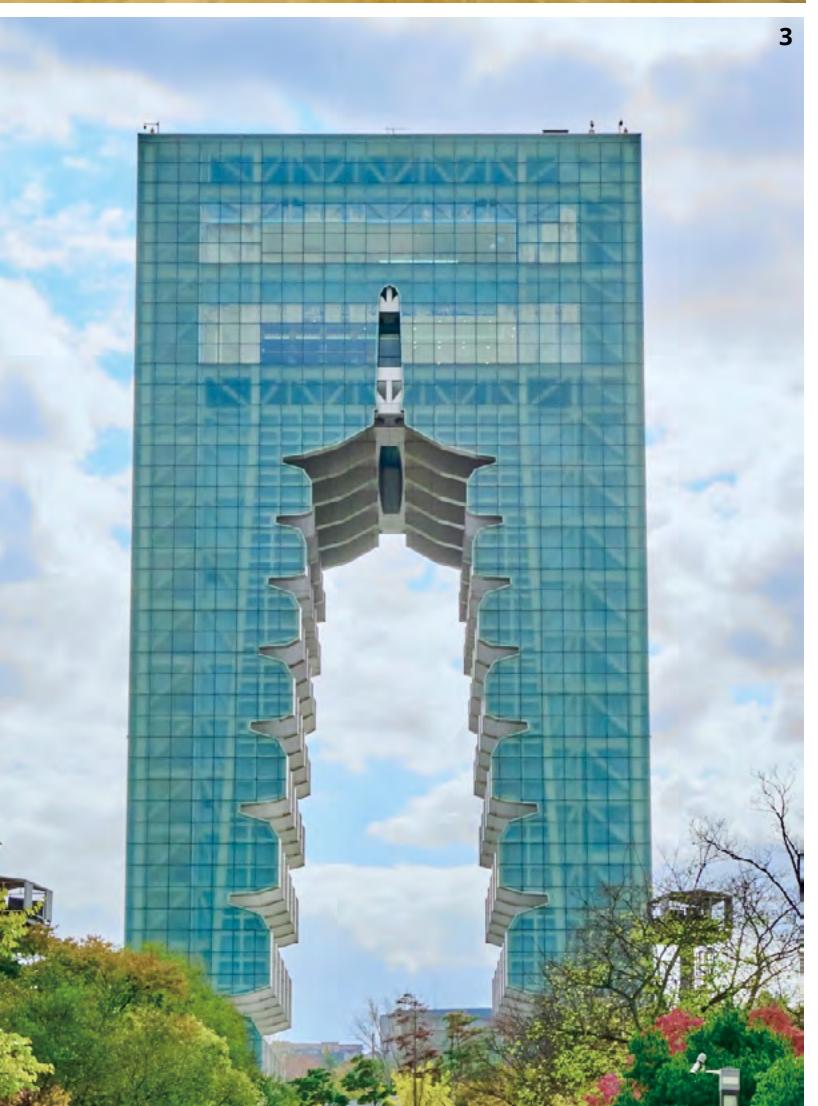
2_경주엑스포대공원 안에 자리한 솔거미술관

3_7세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로 추정되는 황룡사 9층 목탑을 본떠 만든 경주타워



2

3



황남대총과 목련이 어우러진 대릉원 포토 존



첨성대는 신라 시대에 건립된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대다.

뚜벅뚜벅, 천년의 길 경주대릉원 & 첨성대

경주에서라면 따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걸어도 좋다. 발 닿는 어느 곳이든 문화 유적지가 펼쳐진다. 황리단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해본다. 아기자기한 소품숍, 원두 향이 그윽한 카페를 기웃거리며 10분가량 걷다 보면 경주대릉원 정문이다. 경주대릉원은 노동동과 황남동 사이에 있는 신라 시대 고분군을 통칭한다. 황남대총, 봉황대, 금관총, 천마총 등 크고 작은 신라 시대 무덤 23기가 밀집해 있다. 넓은 고분 공원 안에서도 유독 사랑받는 공간이 있으니 황남대총 뒤쪽에 심은 목련 앞이다. 부드러운 쌍곡선의 황남대총 사이에 뾰얗게 편 목련 앞은 이곳에서 제일가는 포토 존이다. 꽃이 피는 봄에만 봄비는 것이 아니다. 짙은 초록을 지나 빨간 단풍, 하얀 눈꽃으로 옷을 갈아입는 사계절 내내 카메라에 비경을 담는 이들로 길게 줄이 늘어선다. 경주대릉원 정문을 지나 길 하나만 건너면 첨성대가 너른 벌

판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명실상부 경주의 랜드마크이자 국보다. 오후 햇살을 받은 첨성대는 유심히 들여다볼수록 신비롭다. 압도적 규모는 아니지만, 위로 갈수록 오묘하게 좁아드는 곡선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천년의 신비를 탐nik하듯 한참을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는 이도 여럿이다. 첨성대 뒤편에 서면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첨성대와 반월성 사이 울창한 숲 하나가 존재감을 뽐낸다. 경주 김씨의 시조 알지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경주계림이다. 신라 탈해왕 때 닦이 숲속에서 운 뒤 김알지가 태어났다는 전설에 근거해 '닦이 운 수풀'이란 뜻의 이름이 붙었다. 한때 신라의 국호마저 계림이라 쓸 만큼 유서 깊고 신성한 숲이다. 왕버들·느티나무·단풍나무 등 고목이 하늘을 가릴 듯 울울 창창해 산책하기 좋고, 이른바 '사진밭'도 잘 받는다. ●

▣ 경주대릉원(매표소) & 첨성대 경북 경주시 계림로 9

▣ 경주계림 경북 경주시 교동

파인비치골프링크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코스

국내 최초 해안 코스 골프장으로 알려진 파인비치 골프링크스는 그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5성급 호텔식 서비스부터 입지의 장점을 살린 잔디 관리와 시설 업그레이드까지 수도권에서 면 땅끝 해남까지 찾아갈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Writer.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파인비치의 시그너처 홀인 비치
코스 6번 홀. 우측 해안 절벽을
넘기는 파 3 홀로, 바다 풍광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티샷은 좌측 벙커
방향이 안전한 전략적 홀이다.

대한민국 시그너처 홀

대한민국에는 54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골프장에는 오너와 설계자가 가장 공들여
조성한 골프장의 '얼굴'이라 할 만한 홀이 있습니다.
적게는 18홀, 많게는 81홀 가운데 가장 멋진 딱 한 홀,
바로 '시그너처 홀'입니다. 명문 골프장의 명품 홀을
소개합니다.

미국 서부 해안을 끼고 조성된 페블비치 CC는 세계 골퍼들 사이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골프장’으로 통한다. 바다와 땅이 만들어낸 수려한 경관과 도전적인 코스 설계 덕분이다. 그 명성이 워낙 높다 보니 웬만한 골프장은 감히 ‘한국의 페블비치’란 수식어를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두 곳은 예외다. 경남 남해의 사우스케이프, 그리고 전남 해남의 파인비치 골프링크스다.

파인비치는 국내 처음으로 해안에 들어선 골프장이다. 설계할 때부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클럽하우스 위치를 결정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한다. 비치 코스 6번 홀(파 3)은 이런 파인비치에서도 가장 멋진 시그너처 홀이다. 삼면이 남해에 둘러싸인 이 홀은 페블비치 CC에 버금 가는 명성의 미국 사이프러스포인트 CC의 16번 홀을 빼닮았다. <골프다이제스트>를 포함한 국내 유력 골프 매거

진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 3 홀’로 꼽았다. 티잉 구역에 올라서자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다. 에메랄드빛 남해 건너편에 있는 그린을 향해 치는, 말 그대로 환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이곳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찾은 수많은 여자톱 랭커들이 이 홀에서 찬사를 터트렸다.

잘 가꾼 정원 같은 코스

2010년에 문을 연 파인비치는 라이벌 사우스케이프보다 3년 먼저 개장했다. 호남 기업인 BS그룹이 한국관광공사가 조성한 화원관광단지에 골프장 부지를 확보했다. 그 덕분에 바다와 맞닿은 골프장이 탄생할 수 있었다. 연안관리법은 바다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단지는 국토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파인비치는 해안 코스 하나만으로도 경제성 면에서 충분한 골프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골프장으로 올라서기엔 퍼즐 몇 조각이 부족했다. 경치와 코스가 떠나지만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한계가 워낙 뚜렷했다. 파인비치는 돌파구를 고급화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오크밸리 CC와 남양주 해비치 CC 총지배인 등을 지낸 허명호 대표를 영입한 뒤 하나부터 열까지 뜯어고쳤다. 목표는 ‘5성급 호텔 서비스’를 골프장에 입히는 것. 매년 직원들을 서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등으로 ‘교육 출장’을 보내며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렸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아이보리를 ‘파인비치 색’으로 정하고 모든 인테리어를 여기에 맞췄다. 허 대표는 “주변에 별다른

관광 명소가 없는 만큼 골퍼들이 식사부터 휴식까지 골프장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바꿨다”고 말했다.

금잔디로 완성한 양탄자 페어웨이

올해 파인비치는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 켄터키 블루 그래스, 벤트그래스 등 코스를 채우고 있던 양잔디를 걷어내고 ‘금잔디’라 불리는 조이시아 마트렐라를 깔았다. 매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거듭되는 한국의 여름에서 최고의 코스 품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잔디 교체가 마무리되는 데는 총 4년여가 걸렸다고 한다. 허 대표는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개최하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GC를 비롯해 세계 대표 명문 코스를 견학하며 파인비치에 딱 맞는 잔디를 찾아 나섰다. 그 끝에



비치 코스의 마지막 홀로 바다를 보며 라운드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해안 절벽을 넘기는 긴 파 4홀인 비치 코스 7번 홀



파인 코스 9번 홀은 파인비치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홀이다.

찾아낸 것이 금잔디였다. 잎이 가늘고 촘촘해 질감이 부드러우며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금잔디는 ‘고려지’라고도 불린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넘어가 ‘고라이시바(고려잔디)’라는 이름으로 퍼져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난지형 잔디라 겨울의 혹한에 취약한 데다 잎이 너무 촘촘해 병충해 리스크가 커 한국에서는 부산 동래 베네스트 CC 정도에서만 사용했다. 한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는 해남에 금잔디는 새로운 해법이 됐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로 국내 양잔디 골프장 대부분이 몸살을 앓았지만 파인비치는 촘촘한 양탄자 코스를 유지했다. LPGA에서 활동하는 최운정은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앞두고 나선 연습 라운드에서 “오거스타 내셔널 같다”며 극찬했다. 촘촘한 양탄자 페어웨이가 더해지면서 파인비치는 수도권에

서도 찾아가는 명문 코스가 됐다.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거칠기보다는 포근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준다. 허 대표는 “사우스케이프가 바닷바람을 뚫고 치는 남성적인 코스라면 파인비치는 잘 가꾼 정원 같은 느낌을 주는 코스”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 유일 LPGA 대회를 개최하면서 파인비치는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코스 전체의 잔디를 교체했고, 글로벌 토너먼트에 맞게 드라이빙 레인지도 마련했다. 오시아노 코스 9번 홀(파 4) 전체를 개조해 선수들이 경기 전후 샷을 점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파인비치 관계자는 “호남권에서 국제적 골프 대회가 열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라 한국 서남 지역의 자연·문화·관광 인프라를 전 세계에 소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파인 코스 8번 홀은 바다 위에 그린이 떠 있는 듯하다.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는 바다와 섬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홀의 우측으로 바다가 펼쳐진 비치 코스 9번 홀

바다 건너 215m를 날려야 하는 파3홀

바다를 끼고 왼쪽으로 휘어 있는 파3홀, 티샷으로 눈앞에 펼쳐진 기암절벽과 남해 바다를 넘겨야 하는 도전적인 홀이다. 한눈에도 그린은 저 멀리 보였다. 블랙 티 215m, 블루 티 189m에서 이 홀의 압도적인 매력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다. 많은 남자 아마추어들이 이 홀에서 만큼은 화이트 티(182m) 대신 블랙 티를 선택하는 이유다.

레드 티는 94m, 거리 부담이 큰 여성 골퍼들을 배려한 배치지만 바다를 가로지르는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컸다. 이 때문에 여자 아마추어들은 레드 대신 옐로 티(162m)를 택한다고 한다. 기자 역시 옐로 티에 티를 꽂았다. 캐디는 “대부분 드라이버를 잡지만 원온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온 그린 화률은 2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얼굴을 때리는 강한 바닷바람을 의식해 드라이버를 잡았다. 평소대로 드라이버가 정타를 맞아준다면 원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 하지만 힘이 잔뜩 들어간 탓인지 보기 좋게 ‘뒤땅’이 났다. 힘없는 드라이버를 맞은 공은 평소보다 더 짧게 비행하며 바다로 추락했다. 결국 1별 타를 더 받고 그린 주변에 공을 놓은 뒤 5온 2퍼트, 쿼드러

풀 보기. 스코어 카드에 '+3'(양파)만 적어준 캐디에게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다.

파인비치는 프리미엄 퍼블릭 골프장답게 티 간격이 10분이다. 앞 팀과 뒤 팀을 볼 일이 없다. 비치 코스만큼이나 파인 코스도 인기다. 파인 코스 8번 홀(파 3)을 이 골프장 시그너처 홀로 꼽는 골퍼도 많다고. 파인비치의 또 다른 별명은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골프장’이다. 한번 와보면 왜 이런 별명이 생겼는지 바로 알 수 있다. ●



Information

규모 18홀(파인, 비치) / 834,771㎡
주소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224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그린 피 주중 24만원/ 주말 30만원
문의 061-530-7700
홈페이지 www.pinebeachcc.co.kr



작은 실수가 스코어를 좌우한다

롱 게임, 실수 줄이는 두 가지 포인트

필드에서 스코어를 결정짓는 것은 누가 더 멀리 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수를 최소화하느냐에 달렸다. 특히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롱 게임이 스코어 관리의 핵심이다. 긴 클럽에서 안정적인 샷을 이어간다면 온 그린까지 무리 없이 공을 보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퍼팅 찬스도 늘어나면서 스코어를 줄이는 길이 열린다.

Writer. 오진동 Photo. 오진동, 프리피

아마추어 골퍼에게 롱 게임이 중요한 이유

프로 선수들의 플레이에서는 쇼트 게임의 비중이 높다. 100야드 이내 거리 조절과 퍼팅 정확도가 승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쇼트 게임에서 단 몇 m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프로들은 쇼트 게임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지만 아마추어 골퍼는 상황이 다르다. 롱 게임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스코어에 큰 영향을 미

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비거리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평균 40m 이상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컨드 샷에서 사용하는 클럽의 나이도와 연계된다. 즉, 프로가 간단히 7번 아이언 한 번으로 해결할 거리를 아마추어는 롱 아이언이나 유틸리티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파 5 홀을 예로 들어보자. 우드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장 익숙한 7번 아이언으로 두 번 이상 끊어가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또는 ‘멀리 보내놓

고 보자’는 마음에 우드를 강하게 휘두르다가 미스샷이나 한 홀에서 우드를 두 번 이상 잡는 일도 흔하다. 이처럼 한 샷 한 샷 늘어날수록 체력 소모가 커진다. 평소에는 별 것 아닌 샷이라도 라운드 후반에는 하체와 어깨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실수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또한 아마추어 골퍼들은 흔히 실수 후 마음이 급해져 ‘이번에는 무조건 잘 쳐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심리적 부담은 스윙 리듬을 깨뜨리고, 다음 샷의 실수 위험성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롱 게임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한 샷을 잘 치는 문제가 아니라, 라운드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롱 게임에서 실수를 줄이는 두 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Point 1 오른발을 붙여라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롱 아이언처럼 클럽 길이가 긴 채를 잡으면 아마추어는 대부분 힘을 더 줘야 멀리 간다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이때 스윙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하체에서 시작된다. 다운스윙에서 상체가 먼저 나가면서 오른발이 지면을 빨리 차버리는 동작이 나타나는 것. 곁보기에는 스윙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상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오른발이 일찍 떨어지면 하체의 회전축이 사라지고, 상체가 공 쪽으로 쏠리면서 몸이 서거나 얼리 익스텐션 Early Extension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볼의 윗부분을 맞히는 토피(톱볼), 혹은 클럽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서 손목이 풀려 생기는 뒤팡이 번갈아 나오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오른발이 일찍 들리면 하체 리드가 끊기고 상체가 스윙을 주도하게 된다. 즉, 팔과 손으로만 공을 때리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목이 너무 빨리 풀리며 스쿠핑 Scooping 현상이 생긴다. 오른발이 일찍 떨어지면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상체는 뒤로 젖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순간 스윙 궤도는 위로 솟구치며 ‘아웃 사이드→인’으로 무너지고, 임팩트는 더 이상 클럽의 로프트나 궤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힘으로 공을 때리는 타격형 스윙이 되어버린다. 결국 스윙 리듬은 끊기고 비거리 는 오히려 줄어든다. 반면 오른발을 끝까지 붙이고 체중을 베티면 스윙 축이 안정되고, 하체 회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상태에서는 상체가 공 쪽으로 쏠리지 않고 하체 리드→상체 회전→손의 릴리스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클럽페이스가 정타로 맞고 볼의 탄도와 방향성이 모두 좋아진다. 따라서 오른발이 빨리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골프 스윙의 모든 부분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오른발을 늦게 떼라고 표현하는 대



오른발 떨어지는 모습

신 “오른발로 스윙을 끝까지 벼텨라”라고 지도한다. 임팩트 전까지 오른발이 지면을 단단히 누르는 느낌을 유지하면 하체가 자연스럽게 리드하면서 상체와 클럽이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강하게 휘두르지 않아도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아지고, 적은 힘으로도 바람직한 비거리와 방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오른발 붙이기 실전 연습법 3단계

Training 1 오른발 고정 후 하프스윙하기

처음에는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7번 아이언으로 시작해 본다. 오른발 뒤꿈치를 지면에 붙인 채 하프스윙을 하는 것이다. 몸이 회전하지 않아 답답할 수 있지만, 그 벼티는 감각이 하체 축을 세우는 출발점이다. 이 동작으로 정타를 낼 수 있다면 풀스윙에서도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늦게 떨어질 것이다.

Training 2 폴로스루 3초 버티기

볼을 친 후 폴로스루 자세에서 오른발이 지면에 닿은 상태로 3초 이상 멈춰본다. 균형이 무너지면 이미 오른발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3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하체 회전축이 올바로 잡힌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른발을 벼틴다고 체중을 과하게 오른쪽으로 싣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전하면서 스피나웃(Spin Out)이 나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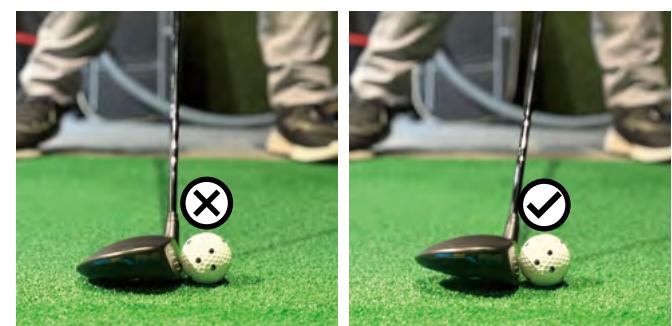


Training 3 오른발은 끌려가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폴로스루까지 오른발을 들지 않고 지면을 단단히 누르되 폴로스루에서 피니시로 넘어갈 때 서서히 오른발이 들리게 한다. 억지로 차거나 들지 말고 몸의 회전에 따라 오른발이 저절로 떨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임팩트 구간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タイト한 라이

공이 떠 있는 라이



공이 놀리며 맞는 모습

느끼는 것이 핵심이다.

Tip 드라이버를 바닥에 두고 연습해본다. 드라이버는 헤드가 크기 때문에 티 없이 연습하면 쓸어 치는 것보다 살짝 찍어 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 감각을 익히면 우드 샷에서도 안정적인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이때 공의 위치는 우드 샷과 동일하게, 우드 위치에 놓는 것이 좋다.



タイト한 라이

공이 떠 있는 라이

Training 2 샌드웨지 감각 이식하기

벙커 샷을 할 때처럼 공을 ‘떠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빠져나가게’ 하는 느낌을 우드에도 적용한다. 이때 동전을 공 뒤에 약 30cm 떨어뜨려두고 클럽이 동전에 맞지 않도록 연습하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헤드의 접근 각도가 달라질 뿐 볼을 압축해 맞히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샌드웨지에서 익힌 ‘눌러 맞히는 감각’을 우드에 적용하면 페어웨이에서도 안정적인 탄도와 방향성을 얻을 수 있다. ●

Point 2 우드도 찍어 치자

페어웨이 우드는 아마추어 골퍼에게 특히 까다로운 클럽 중 하나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가 ‘우드는 쓸어 쳐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특히 페어웨이 우드(3번·5번 등)는 드라이버처럼 띠워 치려다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가 우드를 잡으면 ‘쓸어 쳐야 한다’는 생각에 상체를 일찍 일으키고 손목이 먼저 풀리면서 텁볼이나 뒤땅을 내는 경험을 반복한다. 하지만 잔디 위에서 치는 우드 샷은 ‘찍어 치는 감각’이 핵심이다. 이 말은 아이언처럼 깊게 내려찍으라는 뜻이 아니라,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 헤드가 공을 눌러 압축하는 느낌을 말한다. 볼과 지면 사이의 공간을 억지로 띠워 올리려 하지 말고, 헤드가 볼을 덮는 듯 한 궤도로 지나가야 한다. 이 작은 느낌의 차이가 탄도, 방향성, 비거리 모든 면을 바꿔놓는다.

왜 우드를 찍어 쳐야 할까?

첫째, 저점 관리를 위해서다. 우드는 샤프트가 길고 헤드가 무겁다. 임팩트의 저점이 조금이라도 뒤로 가면 헤드가 공을 스치거나 잔디에 먼저 닿는 일이 발생한다. 찍어 치는 감각으로 임팩트가 공 앞쪽에서 이루어지면 정타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실전에서는 페어웨이에서도 공이 떠 있거나 타이트할 수 있다. 이때 공이 떠 있으면 쓸어 치는 방법이 유리하고, 타이트한 라이에서는 찍어 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요령이다. 둘째, 스피드와 탄도의 안정성 때문이다. 공을 띠우려 손목이 일찍 풀리면 로프트가 과하게 열려 스피드가 많아지고 탄도는 불안정해진다. 이와 반대로 볼을 덮는 느낌으로 눌러 치면 디내믹 로프트(Dynamic Loft)가 안정되어 탄도가 일정하고 방향성이 좋아진다. 셋째, 잔디와의 상호작용이다. 페어웨이에서 쓸어 치면 솔이 먼저 닿아 에너지가 잔디로 흡수되기 쉽다. 찍어 치는 샷은 잔디를 가볍게 눌러 지나가면서 볼에 더 많은 압력을 전달한다. 결과적으로 “쭉” 하는 꾹 눌린 듯한 소리와 함께 탄도는 낮게, 스피드는 적당히, 비거리도 길게 나온다.

찍어 치는 감각을 익히는 연습법

Training 1 티 없이 연습하기

낮은 티나 맨페어웨이 매트 위에 공을 놓고 ‘볼 앞쪽 2cm 지점’을 가볍게 찍는다는 느낌으로 휘둘러본다. 공이 높이 뜨지 않아도 괜찮다. 볼이 눌리며 맞는 단단한 손맛을

요약 Point

1. 폴로스루를 마칠 때까지 오른발을 붙인 채 유지하다 폴로스루에서 피니시 구간에 들어설 때 서서히 친다.
2. 페어웨이 우드는 공을 압축하는 느낌으로 찍어 친다. 이때 타이트한 라이에서는 찍어 치는 느낌으로, 공이 떠 있는 라이에서는 쓸어 치는 느낌으로 친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2025 노벨 문학상 뒷이야기

지난해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노벨 문학상이 10월 9일 스웨덴 한림원에서 발표됐다. 최고 이야기꾼들의 경합과 잔치인 만큼 올해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작가와 그 뜻지 않은 관심을 받은 예상 후보 작가들까지 살펴본다.

Writer: 한소영 Photo: 한경DB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은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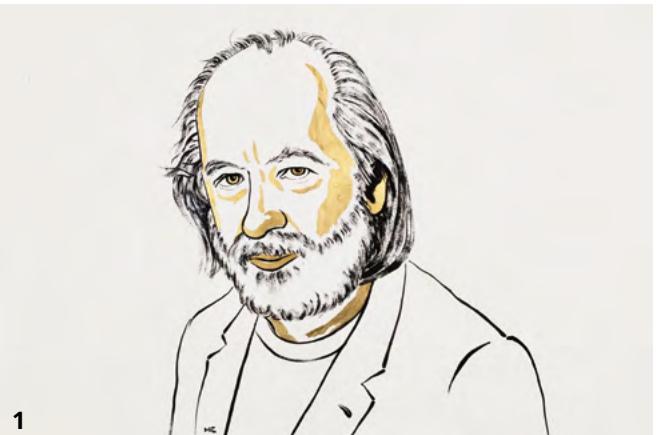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광은 ‘묵시록(아포칼립스 Apocalypse) 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키(László Krasznahorkai)에게 돌아갔다. 묵시록 문학은 ‘대재앙’을 맞은 세계를 배경으로 종말론적 이야기가

펼쳐지는 문학 장르를 말한다. 크러스너호르키이 라슬로는 종말과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와 그 안에 내몰린 인간을 난해하면서도 독창적 문장과 실험적 형식으로 그려온 작가다. 스웨덴 한림원은 그의 소설을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작품”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54년 헝가리 줄리에서 태어난 크러스너호르키이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문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전업 작가의 길을 택했다. 1985년 발표한 데뷔 장편소설 〈사탄탱고〉가 큰 성공을 거두며 단숨에 주목받는 작가로 올라섰다. 1987년 독일로 유학을 갔으며, 이후 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중국·일본 등에 체류하며 그곳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에 구체적으로 투영하기도 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사탄탱고〉(1985), 〈저항의 멜랑콜리〉(1989), 〈서왕모의 강림〉(2008), 〈라스트 울프〉(2009), 〈세계는 계속된다〉(2013)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2016) 등이 있다. 국내에는 이 여섯 권의 소설이 출간돼 있다. 헝가리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케르테스 임레(2002)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는 소설가 겸 각본가이기도 하다. 헝가리 감독 벨라 테르가 연출한 영화 5편의 각본에 참여했다. 1998년 개봉한 영화 〈파멸〉을 시작으로 〈사탄탱고〉(1994),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즈〉(2000), 〈런던에서 온 사나이〉(2007), 〈토리노의 말〉(2011) 등의 각본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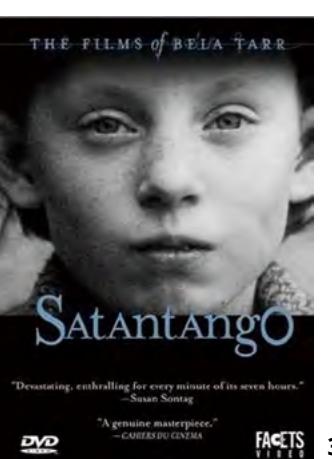
크러스너호르키이는 국제적인 문학상을 받으며 점차 문학 세계를 인정받아왔으며, 그 때문에 노벨 문학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작가였다. 그는 2010년 스위스의 슈피허 문학상, 독일의 브뤼케 베를린 문학상 등을 받았고, 2015년에는 헝가리 작가 최초로 맨부커상(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세계는 계속된다〉로 같은 상 최종 후보에 또 한 번 이름을 올렸다. 부커상은 노벨 문학상, 공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손꼽히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역시 〈채식주의자〉로 2016년 아시아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고, 2018년 〈휑〉으로 다시 같은 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크러스너호르키이는 2015년, 한강은 그다음 해 1년 차이로 부커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18년에는 둘이 다시 후보에 올라 경쟁한 셈이다. 마치 농담처럼 노벨 문학상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지난해 한강이 먼저 맛본 노벨 문학상을 1년 후인 올해 크러스너호르키이가 차지하게 됐다.



1



2



3

- 1 크러스너호르키이의 노벨 문학상 공식 초상화
- 2 국내에 소개된 크러스너호르키이의 작품 표지. 모두 알마출판사에서 출간됐다.
- 3 크러스너호르키이가 각본을 쓴 영화 〈사탄탱고〉 포스터



노벨 문학상 발표 직후 외국의 한 서점 매대에 크리스너호르카이 작품이 진열됐다.

종말론적 세계관과 만연체의 향연

크리스너호르카이의 소설은 어떤 작품일까?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종말’의 이미지와 어두운 색채로 둘러싸인 작품이라는 점이다. 미국 평론가 수전 손태그는 그를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의 최고 거장”이라고 일컬었다. 그의 작품에서 ‘종말’은 거대한 하나의 사건이 극적이고 화려하게 펼쳐지기보다, 세계가 서서히 붕괴하고 해체돼가는 일상적 과정으로 세세하게 묘사된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큰 특징으로는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만연체가 꼽힌다. 한 예로 국내 번역된 〈사탄탱고〉를 펴보자. 첫 문장이 열 줄을 넘어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으로 이뤄진 소설도 그는 썼다. 〈사탄탱고〉는 12개 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 장이 한 단락으로 구성된다. 그의 작품에서는 행을 나눠 단락을 구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저항의 멜랑콜리〉에서도 단락 구분이 없다. 책을 펴는 순간 빽빽한 만연체의 향연을 마주하게 될 뿐이다. 영화로 만든 〈사탄탱고〉는 러닝 시간이 무려 7시간 18분이다. 책과 영화를 모두 본 독자에게서는 “페이지당 한 장면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웃지 못할 평도 나온다. 1980년 형가리 농촌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묵시록 분위기로 그려낸 소설 〈사탄탱고〉는 1부와 2부

가 거울처럼 마주 보며 순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그의 소설은 문장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독창적이고 실험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난해한 작품인데도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후 판매는 한강을 제외한 이전 수상자들의 작품 판매고를 웃돌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내년에 크리스너호르카이 소설이 두 권 새롭게 출간될 예정이다. 〈쥘레가 사라지다〉를 은행나무출판사에서, 최근작인 〈헤르슈트 07769〉는 알마출판사에서 출간한다.

내년 노벨 문학상을 기약하는 작품들

올해도 수상 발표 직전까지 세계적인 작가 다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거론되는 근거의 설득력이 모두 만만치 않으며, 그래서 발표 전까지 이 ‘후보 아닌 후보들’의 경쟁이 꽤 치열한 편이다. 스웨덴 한림원에서 선정하는 그해 노벨 문학상 최종 후보자는 5명이고, 이 명단은 50년 후에 공개된다.

유력 후보를 꼽는 근거의 큰 축은 바로 대륙과 성별을 안배해서 수상자를 정한다는 가설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인종 작가에게 영광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가설은 굉장히 설득력 있으며, 갈수록 이 설은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작가의 성별이나 출신지가 자주 거론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남녀가 번갈아서, 대륙별로 고르게 수상이 돌아가고 있다. 최근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오른쪽 표와 같다. 즉, 올해는 남미나 북유럽·동유럽 출신의 남자 작가가 유력했다.

먼저 강력한 후보로 꼽힌 작가는 제럴드 머네인이다. 그는 1939년생 오스트레일리아 작가다. 노벨상은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상이고, 또 살아 있는 작가에게만 수여하기 때문에 후보를 예상할 때는 작가의 나이 역시 고려된다. 그래서 좀처럼 젊은 작가는 후보로 거론되지 않는다. 머네인은 평생 호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빅토리아주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보편적 이야기를 길어 올린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공감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에 속하며, 지난해와 올해 〈평원〉과 〈소중한 저주〉 단 두 작품이 번역돼 출간됐다.

한편에서는 여성 작가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중국의 카프카’로 불리는 찬쉐 역시 매년 단골 후보다. 국내에서는 그의 작품 〈오향거리〉, 〈황나가〉, 〈격정세계〉 번역본이 나와 한국 독자들에게는 꽤 알려져 있다. 찬쉐는 1953년 생이다. ‘최고의 SF 문학 수장’으로 꼽히는 1939년생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도 강력하다. 애트우드의 수상을 예상하는 이들은 노벨 문학상이 이제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작가에게도 상을 줄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애트우드는 2000년에 〈눈먼 암살자〉로, 2019년 〈증언들〉로 부커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어찌 됐든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맞히기는 어렵지만, 점쳐보는 일은 무척 재미있기도 하다. 유력 후보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채 깜짝 수상한 인물이 바로 한강이었다. 그러니 못 맞혀도 즐겁기 그지없는 일이다. 멋진 문학작품을 읽어나가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니, 아름다운 문학책을 읽으며 노벨 문학상의 여운을 찬찬히 즐겨보자.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에 열린다. ●



제럴드 머네인



찬쉐



마거릿 애트우드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작품

2017년	가즈오 이시구로 서유럽(영국) 남성 〈클라라와 태양〉(민음사), 〈남아 있는 나날〉(민음사) 등
2018년	올가 토타르추크 동유럽(폴란드) 여성 〈태고의 시간들〉(은행나무), 〈기묘한 이야기들〉(민음사) 등
2019년	페터 한트케 중앙유럽(오스트리아) 남성 〈소망 없는 불행〉(민음사), 〈관객 모독〉(민음사) 등
2020년	루이즈 글릭 북미(미국) 여성 〈야생 봇꽃〉(시공사), 〈아베르노〉(시공사) 등
2021년	압둘라자크 구르나 아프리카(탄자니아) 남성 〈낙원〉(문학동네), 〈바닷가에서〉(문학동네) 등
2022년	아니 에르노 서유럽(프랑스) 여성 〈단순한 열정〉(문학동네), 〈부끄러움〉(비체) 등
2023년	윤 포세 북유럽(노르웨이) 남성 〈아침 그리고 저녁〉(문학동네), 〈멜랑콜리아-I-II〉(민음사) 등
2024년	한강 동아시아(한국) 여성 〈채식주의자〉(창비), 〈소년이 온다〉(창비) 등

가까워진 파인다이닝 세계

콘피에르 셀렉션



30일 이상 숙성한 채끝과 우엉 소스가 어우러진 '한우 채끝 스테이크'



파인다이닝의 본고장은 프랑스다. 콘피에르 셀렉션은 한국의 맛 좋고, 빛깔 좋고, 영양 많은 제철 식자재를 프랑스 스타일 코스 요리와 단품 요리로 풀어낸 코리안 프렌치 파인다이닝을 선보인다. 우리 땅에서 난 건강하고 정겨운 계절의 맛들이 너무도 새롭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콘피에르 셀렉션. 아ミュ즈부쉬부터 디저트까지 총 여덟 코스로 제공하는 콘피에르 셀렉션의 가을 코스는 이 계절의 교향곡처럼 조화롭다. 늙은 호박과 사과만이 전할 수 있는 달콤함과 산뜻함으로 시작해 감칠맛이 살아 있는 한우와 제철 해산물이 어우러지고, 매리네이드, 콩피, 발효 등 프랑스와 한국의 섬세한 조리법이 환상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올해 11월에는 광화문 그랑서울점이 문을 연다.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6층
• 10:30~22:00 ☎ 0507-1389-6604
• www.confier.kr

연말 소중한 지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을 찾는다면 최근 대중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파인다이닝은 실패 없는 선택이 될 터. 독창적 미식 세계로 안내하는 화제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네 곳을 소개한다.

Writer. 한소영 Photo. 각 레스토랑

루이 비통 카페



도서관 콘셉트의 매장 인테리어



한국 배의 식감을 살린 '한국배 샤를로트' 만두피에 모노그램을 새긴 '비프 만두'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게리 Frank Gehry가 설계한 파사드로 잘 알려진 '루이 비통 메종 서울' 내에 새로운 미식 공간이 문을 열었다. 그 주인 공 르 카페 루이 비통은 간단한 식사를 뜻하는 '하이엔드 스내킹 High-end Snacking' 문화를 한국 미식 문화와 접목해 서울 도심에서 펼쳐 보인다. 미식 총괄은 윤태균 셰프가 맡았다. 그는 문화 간 융합을 깊이 이해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독창적 메뉴를 개발한다. 정식 오픈과 함께 선보인 메뉴에는 프랑스 생트로페와 파리에서 탄생한 휴양지 풍 풍요로움과 도시의 정치한 감각이 담겨 있다. 여기에 한국적 맛을 더해 달콤함과 감칠맛이 어우러진 구성이 완성된다. 주요 메뉴로는 오리지널 루이 비통 시그너처 시저 샐러드를 유자 드레싱으로 마무리 한 '유자 시저 샐러드 이클립스', 한국 전통 만두를 재해석한 '비프 만두', 한국과 프랑스 문화에 경의를 표하는 디저트인 '페어 샬롯'이 있다.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54 4층
• 11:00~21:00
• 02-3432-1854
• www.louisvuitton.com

하노츠키



교토식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 요리

파인다이닝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일식이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일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하노츠키는 자연의 순환과 사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는 시각·후각·촉각의 세계를 기획 미각의 예술로 승화한다. 하노츠키는 일본 전통적 미학인 ‘와비사비’ 철학을 담아낸 정통 교토식 고품격 가이세키 요리와 일본 최고의 스시 명가 ‘스시 가네사카’의 스시 오마카세를 선보인다. 와사와비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일본 특유의 미학적 표현이며, 가이세키는 코스 요리를 의미한다. 교토식 가이세키

는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조리법을 따른다. 세밀한 계절의 흐름을 전하기 위해 절기마다 최상의 재료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를 열흘로 정하고, 그 시기에 맛과 향 그리고 신선도가 절정에 이르는 식자재로 정성을 다해준비한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런치 12:00~14:30, 디너 18:00~22:00
■ 02-559-7627
■ seoul.intercontinental.com/ko/dining/restaurants/hinotsuki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



한우 안심과 채꼴을 사용한 ‘루나피에나’



줄무늬 전갱이를 사용한 ‘베카피코’

구찌 오스테리아 다 마시모 보투라 서울(이하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은 명품 브랜드 구찌의 이탈리언 컨템퍼러리 레스토랑이다.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 문을 연 구찌 오스테리아로, 지난 2022년 서울 이태원에 첫선을 보인 데 이어 올해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로 자리를 옮겼다. 다양한 지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와 함께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만의 창의성과 우아함 및 독창적 유머가 담긴 신선한 요리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하면서 14종의 단품 메뉴도 새롭게 선보였다. 이탈리아 전통 오징어 요리 두가

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애피타이저 ‘세피아 바이 세피아’, 감자 뇨기에 숙성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를 곁들인 ‘부로 에 오로’, 한우와 흑돼지를 24시간 저온 조리한 파스타 ‘라구 462’, 랩스터에 병아리콩 퓨레와 조개 소스를 더한 ‘아스티체 에드 온데’ 등이다. ●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62 5층
■ 런치 12:00~15:00, 디너 18:00~22:00,
일요일 런치만 운영, 월요일 정기 휴무
■ 0507-1374-1164
■ www.gucci.com

특급 호텔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 집에서 맛보는 호텔 김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겨울맞이 행사 중 김장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는 집에서 담근 김치보다 간편식으로 즐기는 김치가 대중화되면서 치열한 경쟁 중이다.

엄선한 재료와 각 호텔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특급 호텔의 김치 맛은 어떨까?

Editor. 지언 Photo. 각 호텔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워커힐 수페스 김치

'사 먹는 호텔 김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워커힐 수페스^{SUPEX} 김치는 1989년 호텔 내 김치 연구소를 설립하고, 1997년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김치를 판매하고 있다. 워커힐 수페스 김치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 후기 서울·경기 상류 계층에서 전래되어온 아삭한 식감과 과하게 맵지 않은 전통의 맛을 재현했다는 점이다.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건 물론, 전통 항아리에서 숙성하는 방식을 채택해 일반 숙성 발효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불순물이 항아리의 기공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게 함으로써 김치를 장기간 신선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갈하고 깔끔한 맛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워커힐 수페스 김치는 남

북 정상회담, 다보스 포럼, G20 정상회담 등 대규모 국가 행사와 청와대 행사, 대통령 해외 순방, 올림픽 선수단 등을 위한 메뉴로 선택돼 여러 차례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보다 다양한 워커힐 수페스 김치를 맛보고 싶다면 수페스 김치 큐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워커힐 김치 조리장이 계절마다 엄선한 김치를 매달 배송받을 수 있다.

가격

수페스 배추김치 8만4,000원(3kg),
워커힐호텔 포기김치 3만5,900원(3kg)

구입처

오프라인 호텔 내 고메 스토어 르파사쥬(워커힐 수페스 김치)
온라인 store.walkerhill.com



조선호텔앤리조트 조선호텔 프리미엄 김치

좋은 음식을 만드는 기본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조선호텔에서 선보이는 김치는 바로 그 기본에 가장 신경을 쓴다. 최상급 국내산 재료를 지역의 특산품만으로 하나 하나 까다롭게 선별해 사용하며, 염도 및 당도와 계절마다 다른 원물 고유의 미세한 맛까지 고려해 맛의 균형을 조율한다. 아삭하면서 청량하고 풍부한 감칠맛을 내는 조선호텔 프리미엄 김치의 비결은 바로 고춧가루와 고가의 추점이다. 경북 영양의 태양초 고춧가루와 충남 보령의 새우젓만을 사용한다. 거기에 또 하나 셰프의 손맛이 추가된다. 그때그때 주문량에 맞춰 소량 생산, 당일 납품 방식을 고수하며, 담근 지 3일 내에 고객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조선호텔만의 특별한 김치를 맛보고 싶다면 다양한 해산물 부재료를 활용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맛을 재현한 갈치석박지를 추천한다. 제주산 갈치에 홍고추를 갈아 넣어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자랑한다. 현재 조선호텔에서는 배추김치를 비롯해 동치미, 백열무 물김치, 묵은지 등 일반 김치부터 갈치석박지, 갓김치, 어린이용 주니어 김치까지 20여 종의 다양한 김치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

조선호텔 프리미엄 김치 2만8,000원(1kg),
조선호텔 김치 포기김치 5만3,100원(5kg)

구입처

오프라인 호텔 내 텔리 매장,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강남점 식품관
온라인 josuntns.josunhotel.com, www.kurly.com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포기김치

한식 파인다이닝 셰프가 담근 김치는 어떤 맛일까? 파인다이닝식 김치 맛이 궁금하다면 파라다이스 호텔 앤리조트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포기김치를 선택해보자. 파라다이스 호텔 포기김치는 파라다이스 시

티의 한식 파인다이닝 '새라새' 총괄 셰프의 비법 레시피를 그대로 활용해 개발했다. 특히 산지 계약 재배로 기른 질 좋은 배추를 국산 식염으로 절여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여기에 은은한 감칠맛과 깊은 풍미를 살리는 노하우도 더했다. 다시마·멸치·새우·고추씨 등 다양한 재료를 고온 가열해 만든 특제 육수와 더불어 군산 황석어젓, 2년 이상 발효시킨 멸치젓과 새우젓을 셰프만의 황금 비율로 넣어 깔끔하고, 익을수록 시원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거기에 감튀레로 은은한 단맛을 더했다.

가격 프리미엄 포기김치 3만9,800원(4kg)

구입처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SSG닷컴 등



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호텔 김치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없어선 안 되는 존재인 만큼 김치 레시피 역시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른 고유의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호텔 역시 셰프만의 비법 레시피를 활용해 깊고 깔끔한 감칠맛을 자랑하는 김치를 선보이고 있다. 최상급 육젓과 황석어젓, 바다 위에서 급속 동결한 생새우, 4년간 간수를 뱀 고품질 신안 천일염 등으로 버무린 양념에 황태와 보리새우, 표고버섯과 다시마 등을 진하게 우려낸 특제 육수를 사용한 것. 거기에 토마토와 수국잎차, 배, 매실 등을 더해 맛의 균형을 맞췄다. 재료 본연의 깔끔한 맛의 조화와 경남 산청의 알칼리성 천연 암반수로 김치의 풍미를 끌어 올렸다. ●



가격 롯데호텔 배추김치 3만9,900원(4kg)

구입처 온라인 eshop.lottehotel.com

집에서도 근사하게 즐기는
**Home-made
Seafood Dining**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목. 생각보다 쉽게 즐길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 레스토랑 못지않은 비주얼과
 맛을 자랑할 해산물 활용 레시피를 소개한다.

Editor. 지연 *Cooperation.* <집에서 즐기는 근사한 외식>(박채원 지음, 용감한까치)

[뿔소라 에스카르고]

식용 달팽이로 만든 에스카르고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지만, 우리나라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다. 식용 달팽이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메뉴인 소라로도 비슷한 식감과 맛을 낼 수 있다. 모양도 그럴싸해 손님 초대 시 전채 요리로 먹거나 빵에 곁들여 별미처럼 즐길 수 있다.

재료

뿔소라 1kg, 마늘 12톨, 화이트 와인 1컵, 버터 100g, 후춧가루 약간, 이탈리언 파슬리 15g, 소금 약간, 굵은소금 약간, 핑크 페퍼콘 약간(생략 가능), 타임 약간(생략 가능)

만들기

- 물을 끓인 후 화이트 와인과 마늘 3톨, 깨끗이 손질한 뿔소라를 넣고 10분간 끓인다.
- 실온에 녹인 버터, 적당한 크기로 썬 파슬리, 마늘 9톨,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을 넣어 핸드 블렌더로 간다.
- 소라가 다 익으면 한 김 식힌 뒤 포크로 찔러 돌려가며 살을 빼낸 뒤 초록색 내장과 옆에 붙은 치마살을 제거한다.
- 빈 소라 껌데기에 ②의 파슬리 버터 약간, ③의 소라 살, ②의 파슬리 버터 순으로 채운다.
- 트레이에 굵은소금을 넣어 소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 뒤 타임을 올린다.
- 180°C로 예열한 오븐에 20분간 구운 뒤 200°C에서 10분간 더 구워 꺼내면 완성. 취향에 따라 핑크 페퍼콘을 올려 낸다.



TIP 요리 과정 중 3번은 소라의 독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뿔소라는 입을 제거해야 하지만, 삶아 먹을 경우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다. 또 소라를 다듬을 때 껌데기와 살을 짹 맞춰야 다시 소라를 넣을 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니 신경 쓰자.



〈채원의 식탁〉

저자의 다른 레시피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버터 갈릭 크랩

갑각류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추천하고픈 메뉴다. 새콤 고소하면서 깊찔한 맛이 마늘 및 갑각류의 풍미와 어우러져 폭발적 시너지를 일으킨다.



재료

소라게 발 250g, 밥 1공기, 카옌 페퍼 1작은술,
소금 약간, 밀가루 3큰술, 파프리카 가루 1큰술
마늘 소스 버터 40g, 식용유 약간, 이탈리언
파슬리 1술기, 레몬 ¼개, 마늘 70g
곁들이 채소 레몬 ¼개(웨지 형태로 자른 것),
방울토마토 3개, 루콜라 5~10g

만들기

- 1 소라게 발은 깨끗이 손질해 10분간 쪄낸 뒤 5분 동안 뜸을 들인다.
- 2 마늘은 성글게 다진다.
- 3 다 익은 소라게 발은 한 김 식힌 뒤 가위로 껍데기를 잘라 먹기 좋게 손질한다.
- 4 비닐봉지에 밀가루, 파프리카 가루, 카옌 페퍼, 소금을 담고 손질한 소라게 발을 넣은 뒤 흔들어 파우더를 충분히 입힌다.
- 5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버터와 마늘을 넣은 뒤 마늘이 익기 시작하면 소금 약간과 파우더 입힌 게 발을 넣어 섞어가며 익힌다.
- 6 재료가 익으면 다진 이탈리언 파슬리를 넣고 레몬을 짜 넣은 뒤 가볍게 볶는다.
- 7 그릇에 밥을 담고 버터 갈릭 크랩과 웨지형으로 썬 레몬(산미가 부족하면 계에 살짝 뿌려 먹는다), 루콜라, 방울토마토를 올려 내면 완성이다.



TIP 마늘, 버터, 통통한 게살에 매콤함이 더해져 한국인이 싫어할 수 없는 조합이다. 이때 마늘을 ‘아래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충분히 넣는 걸 추천한다. 마늘에 적당히 배어든 해산물의 감칠맛이 매우 좋아 밥이랑 특히 잘 어울리는 밥도둑 메뉴이니 낙낙하게 만든 마늘을 밥 위에 올려 덮밥처럼 즐겨도 좋다. 꼭 한번 도전해보기 바란다.

재료

가리비 400g, 흉고추 1개, 대파(초록 부분) ½대,
중국 녹두 실 당면 100g(버미셀리 면, 즉 얇은
쌀국수 면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중국 녹두 실
당면이 더 가늘어 식감과 맛이 더 좋다), 청주 ½컵,
굵은소금 적당량(고정용)
소스 마늘 250g, 굴 소스 1큰술, 간장 1큰술,
설탕 ½큰술, 식용유 적당량

만들기

- 1 녹두 실 당면은 물에 담가 불린다.
- 2 마늘은 잘게 다진 뒤 식용유를 충분히 둘러 중약불에서 볶아준다. 이때 기름이 소스가 되기 때문에 꼭 기름을 충분히 둘러준다.
- 3 마늘이 황금색이 나려고 하면 분량의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볶은 뒤 불을 끈다. 마늘은 금방 탈 수 있으니 불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
- 4 깨끗이 손질한 가리비는 과도로 살과 껍데기를 분리한다.
- 5 찜기에 가리비 껍데기-불려놓은 실 당면-적당량-가리비 순으로 올린 뒤 청주를 부어준다. 그런 다음 볶아둔 마늘 소스를 가리비 위에 넉넉히 쌓아 올린 뒤 끓는 물에서 8분간 찐다.
- 6 그릇에 굵은소금을 소복이 쌓은 뒤 가리비를 올리고, 잘게 썬 파와 흉고추를 올린다. ●

청증선판

청증선판 清蒸扇貝는 맑게 쪄낸 가리비 요리다. 쫄깃한 가리비와 맹글한 당면이 마늘 양념, 파 향과 섞여 맛이 배가된다. 조리법이 어렵지 않고 남녀노소 선호할 맛에 담음새도 좋아 손님 방문 시 필살 메뉴 중 하나로 꼽힌다. 식사 전에 전체로 먹거나 술안주로도 잘 어울린다.



싱싱한 제철 재료로 만드는 세계 가정식

〈집에서 즐기는 근사한 외식〉은 유럽 요리 및 지중해 요리 같은 고급스러운 서양식과 일식, 중식의 일품요리 레시피를 엄선해 소개한다. 저자가 여행하며 먹어본 어느 유럽 식당의 요리, 무슨 맛일까 궁금했던 해외 유명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 등 요리의 기쁨과 계절의 향으로 주방과 식탁을 채울 수 있는 51가지 근사한 외식 레시피를 담고 있다.



당연해서 놓친 비타민 C 이야기

영양소도 유행을 타는 요즘, 비타민 C는 너무나 익숙해 새로울 게 없다고 느낀다.

어느 누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말이다.

Writer: 강은진 Photo: 프리픽 Reference: 국민건강보험, 삼성서울병원, <비타민 C 면역의 비밀>(하병근 지음, 페가수스)



어쩌면 결핍의 신호

우리는 비타민 C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흔한 영양제 하나쯤으로 여기지만, 인류의 역사는 이 작은 분자를 생존의 경계선 위에서 처음 마주했다. 15세기 후반,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을 때 수많은 선원이 이유도 모른 채 잇몸이 붓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만성피로와 잇몸 출혈, 빈혈, 체중 감소로 이어지다 끝내 팔다리와 잇몸이 부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비참하게 숨을 거뒀다. 모두 비타민 C 결핍에서 비롯된 괴혈병이었다.

레몬만 조금 쟁겨 먹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병. 그러나 1747년, 영국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가 오렌지와 레몬



을 식단에 포함시켜 진행한 역사상 최초의 통제된 임상 실험이 있기까지 인류는 수백 년 동안 괴혈병의 공포 속에서 고통받았다. 미지의 성분이 인류 역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옛날이야기라 할지 모르지만, 비타민 C의 부족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비타민 C 섭취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는 인체의 기본 구조를 지탱하는 필수영양소다. 피부와 혈관, 잇몸, 뼈, 연골 등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해 신체 조직을 단단하게 붙잡아준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모세혈관이 약해져 잇몸이 붓거나 출혈이 생기고, 명이 쉽게 들며 상처 회복이 더뎌진다. 또 피로감과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세포의 회복력과 면역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다. 가벼운 결핍일 때는 피로나 코피 및 소화 장애로 지나칠 수 있지만, 장기간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쉽게 끊기며, 심한 경우 빈혈과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또 비타민 C는 철의 흡수를 돋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결핍이 지속되면 철결핍성빈혈이 생겨 쉽게 피로를 느끼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비타민 C, 몸을 지탱하는 힘

비타민은 '생기Vita'와 '아민Amine'의 합성어로, 생명 유지에 필수인 유기물질을 뜻한다.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인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돋는 조연 역할을 한다. 비타민 D를 제외하면 대부분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뉜다. 비타민 A·D·E·K는 지방에 녹아 체내에 저장되며, 과잉 섭취 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 비타민 B군과 C는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꾸준한 보충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비타민 C는 가장 폭넓게 작용하는 영양소다. 콜



라겐 합성에 관여해 피부와 혈관, 잇몸, 뼈, 연골을 단단히 붙잡아주며 상처 회복을 촉진한다. 철의 흡수를 도와 빈혈을 예방하고, 백혈구 기능을 강화해 면역력을 높인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탄력과 색소 침착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도 기여 한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 혈액 흐름을 원활히 하고, 혈관 손상을 줄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 규칙적인 운동과 병행하며 섭취하면 관절과 뼈의 콜라겐 합성을 돋우고, 골밀도 손실을 막는다.

스트레스, 흡연, 불규칙한 식사 등 현대인의 일상은 비타민 C를 아주 빠르게 소모시킨다. 흡연자는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 체내 비타민 C가 급격히 줄어들므로 충분한 양을 섭취해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염증 완화를 개선할 수 있다. 결국 비타민 C는 피부의 투명함부터

면역, 혈관, 뼈, 심장, 호흡기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의 균형을 지탱하는 영양소다.

손질 줄이고, 흡수 높이는 게 관건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몸에서 비타민 C를 생성한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 매일 이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 딸기, 귤, 레몬, 고추, 피망, 브로콜리, 키wi, 감자, 시금치 등이 대표적이지만 많이 먹는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다. 비타민 C는 열, 물, 빛, 공기에 약해 섭취 과정에서 쉽게 손실된다. 따라서 식품을 고르고 다루는 과정에서 얼마나 보존하느냐가 관건이다. 저장 기간이 길거나 상처가 난 식품은 산화효소가 활성화돼 비타민 C가

빠르게 파괴된다. 가능한 한 상처가 없고 단단한 식품을 고르고, 세척 시에는 물에 오래 담그지 말고 흐르는 물에 짧게 씻은 뒤 다듬는 것이 좋다. 절단면이 넓을수록 손실이 커지므로 큼직하게 자르거나 손으로 찢는 편이 낫다. 조리법도 변수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찢는 것이 좋다. 브로콜리를 예로 들면, 생으로 먹을 때는 손실이 거의 없지만 볶으면 20%, 삶으면 30% 이상 파괴된다. 조리 시간이 길고 온도가 높을수록 손실이 커진다. 금속 용기는 산화를 촉진하므로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저온(4°C 이하)에서 보관한다. 식초나 레몬즙처럼 산성 재료를 곁들이면 산화효소의 작용이 줄어 영양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비타민 원료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러나 천연이든 합성이든 분자구조는 동일하다. 천연 제품의 흡수율이 약간 높을 수 있으나 추출 과정에서 화학적 정제를 거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중요한 것은 원료보다 꾸준한 섭취다. 보충제 제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알약형 비타민 C는 모양과 보존성을 위한 부가 성분 때문에 실제 함량 대비 흡수율이 낮고, 과량 섭취 시 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분말형은 첨가물이 거의 없어 흡수율이 높고 용량을 조절하기 쉽다. 다만 신맛이 강하지만 며칠이면 금세 익숙해진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가장 쉽게 놓치는 영양소, 비타민 C. 그 사소한 한 끼의 균형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든다.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



오렌지보다 비타민 C 많은 파워 푸드는?



키wi 키위는 작은 알맹이 속에 상큼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100g당 비타민 C 함량이 85mg, 골드키위는 무려 152mg으로 오렌지의 2배가 넘는다. 하루 한 개면 성인 기준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다. 혈당 지수도 50 이하로 낮아 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고, 루테인과 칼륨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건강을 돋는다.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이 어우러진 겨울철 대표 비타민 과일이다.



케일 짙은 초록빛이 자아내는 생명력 그대로, 케일은 영양 밀도가 높은 채소다. 100g 만으로도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의 80% 이상을 채우며, 비타민 K·칼슘·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해 뼈와 혈관을 단단하게 만든다. 풍부한 엽록소는 간 해독과 장 기능 개선을 도와 몸속 순환을 원활하게 정리해준다. 한 장의 잎에 담긴 힘이 일상 식단의 밸런스를 바꾼다.



딸기 탐스러운 붉은빛 속엔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가 숨어 있다. 딸기 100g에는 89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어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에 달한다. 하루 6~7개면 비타민 C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으며, 안토시아닌과 펙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돋는다.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와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세척은 먹기 직전에 짧게 한다. 오랜 물 세척은 영양도, 맛도 빼앗는다.



시금치 시금치는 철분뿐 아니라 비타민 C의 보고이기도 하다. 100g당 60mg으로 오렌지보다 풍부하며, 계절에 따라 함량이 달라 겨울 시금치일수록 영양 밀도가 높다.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돋기 때문에 오렌지나 감귤류와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데칠 땐 뚜껑을 열고 짧게 익혀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영양 밸런스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비타민 C 함량이 압도적이다. 빨강 파프리카 1/4개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만큼 풍부하며 오렌지의 4배, 키wi의 6배에 달한다. 베타카로티니 풍부한 빨강 노랑 파프리카는 피부 건강에, 비타민 C와 철분이 많은 초록 파프리카는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특히 좋다.

Welcome to TWO CHAIRS ^{'..'}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브랜드입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01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가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 E A L T H &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와 부에 대한 혜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행은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금 가격의 장기 상승 추세를 이끌 구조적 변화

금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금은 금리와 물가, 달러, 불확실한 정치·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금 가격 상승 추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그 상승폭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지고 있다.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금을 투자자산의 일환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Writer. 고혜성(우리은행 WM상품부 Analyst) Photo. 프리피, 한경DB



연일 치솟는 금 가격, 앞으로의 향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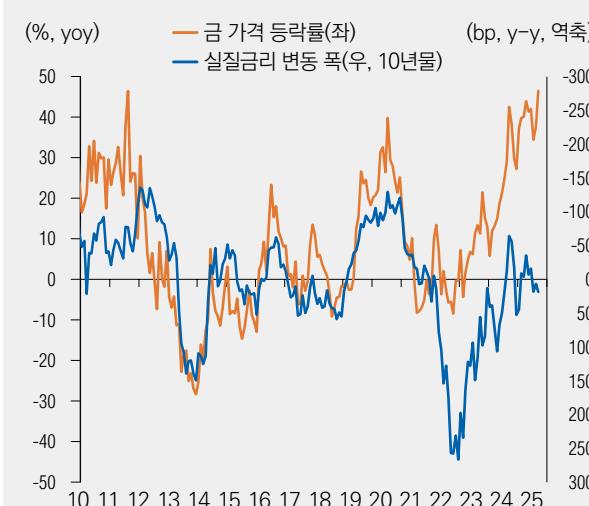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4,200 달러(2025년 10월 15일 기준)를 넘어서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은 27% 상승하면서 주요 자산들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60% 이상 급등하며 주요 자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투자하기에 무서울 만큼 높아져버린 금 가격, 앞으로도 상승 추이가 계속될 수 있을까?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1. 거시경제요인_금리와 물가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는 자산에 비해 금의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 한편 금은 눈에 보이는 실물자산으로 물가가 오르면 그에 맞춰 자산 가치 높아지게 된다. [그래프 1]은 실질금리와 금 가격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실질금리가 오를 때 금 가격은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1] 실질금리와 금 가격의 변동 추이



출처 Bloomberg, 우리은행 WM상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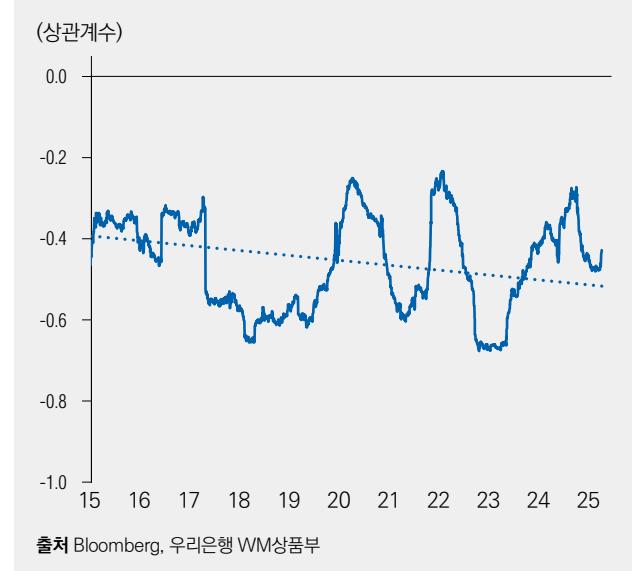
2.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과 달러

금은 달러를 통해 거래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사람이 금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를 달러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환율이 높아지면 비달러화 국가의 투자자는 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자국 화폐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금이 비싸지면 그만큼 금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즉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투자수요는 줄고, 금 가격 하락 압력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의 상승 압력은 높아진다.

3. 경제·정치적 불확실성

금은 대개 적극적 투자자산보다는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과거부터 국경을 넘어 통용되던 실물자산이었고, 경제가 무너지거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가격이 방어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잊지 않는 투자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이는 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높여 금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래프 2] 언제나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온 금 가격과 달러



출처 Bloomberg, 우리은행 WM상품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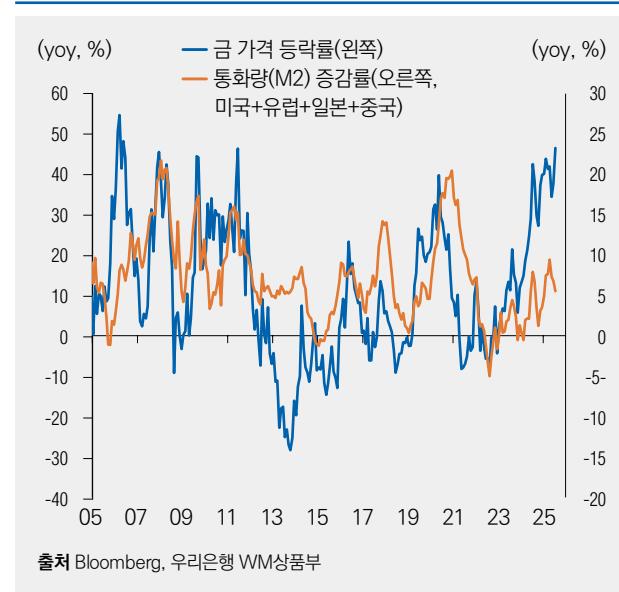
금은 더 이상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을 때만 오르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달리 그리고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는 하나의 투자자산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

금 시장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

그런데 앞서 설명한 요인들을 금 가격 추이와 비교해보면 다소 특이한 부분이 있다. 최근 금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의 움직임이 금 가격의 방향성과 동조하고 있긴하다. 하지만 각 요인들이 과거에 미치던 영향 수준 보다 금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는 금 투자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했고, 금 가격에 우호적인 여건이 일시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프 3] 금은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좋은 인플레 헤지 자산



1. 유동성 확장과 인플레이션

현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에 있다.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에는 대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어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자산 명목가치도 따라 오르길 원한다. 이러한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실질가격이 잘 보전되는 자산이 바로 금이다. [그래프 3]을 보면 금 가격은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유동성 증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달러 패권의 약화 가능성과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달러 자산 통제, 비달러 기축통화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물론 여전히 달러의 패권을 대신 할 통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달러화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달러의 가치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러에 비견될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기 원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금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프 4]를 보면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가 재부각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달러에 대한 우



려가 불식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는 당분간 금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분절화Fragmentation와 불확실성의 만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무역정책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불안은 여전히 높고 다시 세계는 분절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안전한 올타리 속에 놓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역 간 갈등과 분절화 양상이 지속·확대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만연해진 환경은 많은 투자자로 하여금 안전한 가치저장 수단인 금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게 만들고 있다.

포트폴리오에 금 자산 일부 비중 편입 고려

자산의 증식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에 투자하는 일이다. 그리고 투자할 때에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은 더 이상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을 때만 오르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달리 그리고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는 하나의 투자자산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꾀하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으로 채워둬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금을 포트폴리오 내에 어느 정도 담는 일이 당연해진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



고혜성
우리은행 WM상품부
Analyst

노후 대비를 위한 효율적 투자자산, 농지

도시화 현상의 가속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줄고 있다. 농지 또한 마찬가지다.

정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면, 안정적이고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물론 노후를 대비한 은퇴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Writer. 남혁우(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 Photo. 프리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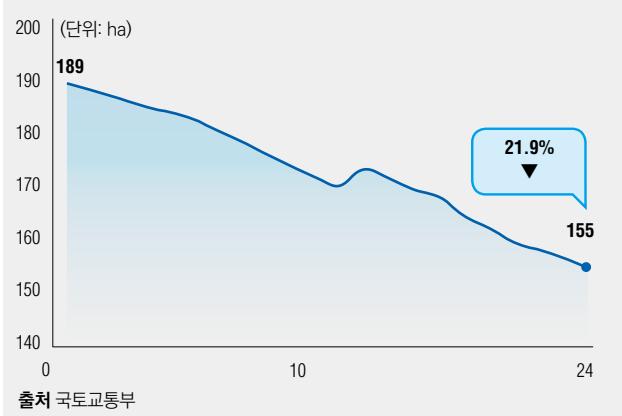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우려에 따른 환율 급등, 중금리 지속 등 거시적 투자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한 분산투자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좋은 자산'을 포트폴리오 내 편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투자의 귀재 위런 버핏에 따르면 좋은 자산이란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고,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해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뿐 아니라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 대상을 말한다. 배당주, 주거용 부동산 등은 위 조건에 부합하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규제 정책과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른 변동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대표적 투자상품인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를 보아도 시기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지의 장점: 개발잠재력과 양의 현금흐름

그렇다면 여유자금의 일부를 활용해 농지를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농지란 지목이 전, 단, 과수원이거나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유자금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하고 운용할 수 있다면 지가 상승에 따라 조금씩 꾸준히 가격이 올라 다른 금융자산보다 안정적으로 운용

[그래프 1] 경작 가능 면적 추이



용도 지역상 비도시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경자유전과 재촌·자경'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지 소재지 연접 또는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또 직접 농업경영을 통해 판매 수익뿐 아니라 추가 소득이 생길 수 있어 노후를 위한 효율적 자산배분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자원)는 희소해지고 있다. 토지는 국가 용도지역 체계에 따라 태생적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도시 관련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들수록 결국 농지를 활용한 도시개발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프 1]에서 알 수 있듯 도시화 추세에 따라 경작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은 지난 24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농지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역할을 하지만 그 면적이 감소하면서 점차 희소해지고 있는 것. 농지는 이처럼 개발 잠재력이 있는 토지이며, 장기 보유할 수 있다면 시세차익도 가능하다.

또 개인 간의 임대, 농지은행 위탁, 그리고 농지 연금 수령 등 보유기간 동안 양의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해 은퇴를 대비한 노후 자산으로 고려해봄 직하다.

과거 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취득 심사가 강화

2021년 신도시 조성 시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을 노린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은 사회적 이슈였다.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의 농지를 농업경영 혹은 주말 영농체험

(표 1) 농지법 개정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농지원부 작성 대상 기준 (농지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농업법인(세대별) 1,000m² 이상 토지 & 330m² 이상 농업용 시설 설치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제한 없이 필지별로 모두 작성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심사 토지대장 같은 공적 장부화 & 관리
농지위원회 감독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내 농지 취득 시 농업법인 농지 취득 시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 시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연접지 포함) 비거주자가 해당 소재지 농지 최초 취득 시
농지이용실태 정례화 농취증 발급심사 강화	취득 면적, 노동력, 소유 농지 이용 실태, 농업기계 확보 방안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농업경영계획서 내 영농 경력, 직업, 경작 거리 신설 및 증빙서류 제출→농지위원회 심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 여부 상관없이 1,000m² 미만의 농지 취득 가능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농취증 발급 심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 불가 주말 체험 목적 용도 영농계획서 신설: 수확 시기, 직업 기재 등 농취증 발급 심사 강화
벌치 조항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취증 거짓 또는 부정 발급: 토지가액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불법 임대차 및 위탁경영: 2천만 원 이하 벌금

(표 1) LH 사태를 계기로 농지 신규 취득 시 직접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불법 운영 중인 농지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주말 영농 체험 목적 용도 농지 취득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농지 법 개정이 시행되었다.

목적 취득으로 위장 신고하고, 이를 취득해 개발사업 진행 시 원주민들에게 보상되는 토지 보상을 노린 투기 사건이었다. 용도 지역상 비도시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경자유전과 재촌·자경’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지 소재지 연접 또는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 거주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도 LH 직원들은 어떻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을까?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통해 농업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 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관할청 담당자의 재량 판단으로 농취증 발급이 가능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불법 임대를 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소규모 농지 규모(1,000m² 미만)면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작

성이 불필요해 300평 정도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 역시 수월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통상 농지관리대장(농지원부)을 통해 농지 현황을 관리하는데, (구)농지법에 따르면 1,000m² 이상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만 장부화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소규모 농지는 사후관리 역시 부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농지법 위반 없는 정당한 취득이 우선

서두에 언급했듯 합법적인 방법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면 노후 대비와 효율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괜찮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지법 개정으로 법령이 강화된 현시점에서 법 위반 없이 정당하게 농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농지법에 명시돼 있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직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경자유전 및 재촌 자경의 원칙하에 1,000m² 이상 농지 경작 또는 연내 90일 이상 농업종사, 축산업·곤충(굼벵이)·벌 꿀통 10대 양봉, 연간 120만 원 판매액 총족(수입/비용 증빙)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둘째, 세대별 합산 기준 1,000m² 미만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직접 농업경영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셋째, 1만m² 이내 농지를 상속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직접 농업경영 없이 개인 간 임대 또는 농어촌공사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해온 농지, 현재 임차 중인 농지의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주거·상업·공업지역(도시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내 농지, 농업진흥지역 외 2만m² 미만 영농 불리 여건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 조건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합법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면, 시세 차익과 현금흐름을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농지를 찾아봐야 한다. 우선 보유(예정)인 농지가 개발 가능성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농지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 상승을 통해 꾸준히 우상향 한다. 만약 개발이 가능하다면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드라마틱한 가격상승을 보여주기도 한다.

- 기존 보유하고 있던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된다면 어떨까. 소유 면적과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대토(토지 보상) 또는 신규 조성된 택지지구 내 분양권을 갖게 되어 기대수익이 커져 가격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
8년 이상 영농한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2년이 지나간 시점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신청한다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령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농어촌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 연금 평균수익률은 2021년 종신 정액형 기준 연 4%다.”

- ② 도시지역 내 시가지 예정지 인근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아 개발과 운용이 용이하다. 즉, 직접 농업경영이 불필요하고 농지 전용(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 사용) 허가 없이 개발·임대할 수 있어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시가지 예정지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 단위로 발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도시계획 포털에 접속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③ 용도 지역상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구역)의 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타 지역 대비 개발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농지를 일정 기간 직접경영, 임대 또는 위탁운영한 후 수월한 농지 전용을 통해 전원주택 수요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임차료, 연금 등 매월 소득이 발생.
노후를 대비한 은퇴자산이 될 수 있다.

소유한 농지가 용도 지역상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또는 비도시지역에 소재했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단, 농업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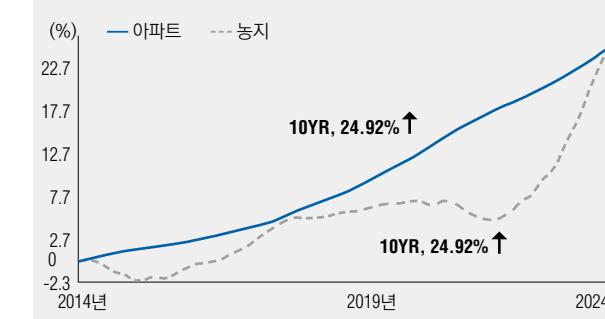
로서 1년 이상 영농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최초 취득했다 해도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영농 경력이 인정된다면 위탁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사업 영위 시 산정되는 월 임차료는 인근 시세를 준용하며, 월 임대 수입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수령할 수 있다.

또 농지 대장, 영농 경력 확인서, 보전 직불금(농업 관련 재화 구입 시 지원금) 수령 자료를 근거로 영농 경력 5년 이상 충족한다면, 만 65세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재촌·자경한 농지를 담보로 월 최대 300만 원(배우자 합산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 연금은 종신 정액형, 총 수령액 30% 일시 인출형 등 다양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연금 수령과 함께 별도 임대가 가능해 매월 영농 소득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8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다면 농지를 추가로 매입해 농지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한 자는 임대 또는 위탁 방식으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8년 이상 영농한 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2년이 지나간 시점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신청한다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령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농어촌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 연금 평균수익률은 2021년 종신 정액형 기준 연 4%다.

경매를 활용한다면 농지 연금수익률 개선과 취득금액의 일부 회수를 통해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연금 지급 시 총 수령 가능 금액은 담보물 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농지 연금 신청 시 담보물 평가금액은 공시가 100% 또는 감정가의 90% 중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농지 연금을 추후 수령한다면 실질 투자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프 2] 농지와 아파트 가격 증감률 추이



예를 들어 감정가 2억2,800만 원인 경매 물건(농지)이 유찰되어 최저가 7,800만 원이라 가정해보자. 만약 7,800만 원에 낙찰받는다면 감정가 2억2,800만 원의 90%인 2억으로 농지 연금 신청 시 담보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균수익률 4%를 적용해 종신 정액형으로 단순 계산 시 월 6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7,800만 원에 구입했으므로 $(660,000 \times 12) / 7,800$ 만 원인 10.15% 수익률이며 전국 평균수익률 4%를 크게 상회한다.

또한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취득한다면 일시금 인출형 방식을 활용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 담보물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산출된 총 연금 수령액 중 30%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매월 연금 수령할 수 있다. 일부 인출한 현금을 통해 취득금액 일부를 회수하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거나 생활자금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한 효율적 자산

역사적으로 농지는 변동성이 적으면서 꾸준히 가격이 우상향했다. [그래프 2]를 통해 2024년 기준 지난 10년간 전국 농지 지가 증감률과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농지와 아파트는 각각 24.92%, 25.15%로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농지는 안정적인 가격 우상향을 띠지만, 아파트는 가격 등락폭이 생기며 우상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투자 환경과 경기 예 델 민감한 농지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여유자금을 활용해 취득한다면 장기보유가 가능하고 개발잠재력이 존재해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 연금, 임대 등을 통해 양의 현금흐름이 창출되어 은퇴 후 제2의 월급이 될 수 있다. 은퇴(예정)자가 5년 이상 직접 영농을 통해 영농 경력을 쌓으며 판매 수익을 얻고, 이후 농지 연금과 임대를 활용해 월 소득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은퇴 후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 개발 가능성 있는 농지를 깊은 호흡으로 찾아보고, 자산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법

토지는 다양한 지목이 있는 만큼 지목에 따라 매매 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토지의 특성상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보유기간 중 매매를 대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Writer: 이원익(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총 28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소득세법에 서 다루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항목	내용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필요경비	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양도차익	양도가액-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2%(30% 한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6~45%(16~55%)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감면세액
총 결정세액	결정세액+가산세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 방법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위 내용 중 세율이라 할 수 있다. 본편에서는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다양한 지목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특히 세율 적용 방식에 알아보겠다.

토지 지목에 따른 세율 적용 방식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지목은 총 28개이나 소득세법은 그중 농지, 임야, 목장용지, 기타 토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 별장의 부속 토지로 총 6개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총 6개로 분류하되, 2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아닌 중과세율(기본세율 +10%)을 적용하므로 토지의 세율 적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의 토지는 지목의 구분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해 항상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①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②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③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종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 ④ 공장의 가동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 토지로서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 토지의 인접 토지
- ⑤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방조제 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 ⑥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지목별 일정 요건

다음의 토지는 지목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① 농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재촌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기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가 아닐 것. 다만, 다음 기간은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며 도시지역 편입일로 소급해 1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해당 기간 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유수면법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 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 다.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 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 마. 소유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질병, 공직 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해 재촌 자경한 농지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재촌하고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 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② 임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서 다음 기간은 재촌한 것으로 본다.

- 가. 산림보호구역 소재
- 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다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한다.
- 다. 사철림 또는 동유림
- 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도시공원, 문화유산법 등의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홍수관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 마. 임업후계자가 임산물의 생산,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 바. 자연휴양림을 또는 수목원을 조성,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 사.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

③ 목장용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기간은 경영한 것으로 보며, 축산용 토지의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해 계산한 면적 이내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목장용지는 해당 기간 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

④ 기타 토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업종별 수입금액 비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외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주차장법 등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
- 나. 하차장용 토지
- 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
- 마. 광천지
- 바. 양어장
- 사.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서 주택 신축을 위한 660㎡ 이하의 토지

⑤ 주택의 부속 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3~10배)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⑥ 별장의 부속 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은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의 부속 토지인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목의 구분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나.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법 등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 다. 위의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 개시일부터 계산한 기간
- 라. 자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착공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 마. 건축물이 멀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멀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특히 세율 적용 방식은 보유기간 중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절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의 양도소득과 달리 법령 개정이 많지 않으나 실무상 가장 어려운 주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



이원익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활용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Special Gift



파나소닉 페이셜 스티머
EX-XS01(2명)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킹(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킹 ➡ 전체메뉴 [생활 혜택]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투체어스PB ➡ TWO CHAIRS 웹진



WON뱅킹 바로가기

Welcome to TWO CHAIRS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TWO CHAIRS W

청담	서울시 강남구 영등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313, 314)
도곡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1층	T. 02-501-1639(내선 550, 560)
센트럴시티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T. 02-3482-6586
狎谷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狎谷洞) 더트리니티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내선 311, 312)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T. 02-6373-2200(내선 212, 213)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우동) 4층	T. 051-741-3625(내선 213, 214)
송도	인천시 연수구 하모니로 177번길 49 헤지글로벌파션복합센터 15층	T. 032-858-3692(내선 210, 411)



TWO CHAIRS W 도곡

TWO CHAIRS Exclusive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5, 316)
본점센터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67(내선 3312, 3316)
시그니처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서초동)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5, 406)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세무 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종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증여세), 가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부동산 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TWO CHAIRS는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우리은행 프라이빗 뱅킹 브랜드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우리은행 TWO CHAIRS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세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여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해외 유학 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끌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기까운 영업점 진단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능)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신의필 2025-0818(2025.01.31~2026.02.28)